

신뢰의 열매

2009년 지속가능성보고서



A B O U T T H E R E P O R T

2009년 기윤실 지속가능성보고서 신뢰의 열매

본 보고서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첫 번째로 발간하는 지속가능성보고서로서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과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기윤실의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발간의의

최근 기업은 기업의 경제적 성과 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의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의 발간이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물리적인 자산만으로 기업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기존 재무회계 보고서가 제대로 담지 못하는 지적재산이나 지역사회 공헌, 고객만족, 브랜드 파워가 기업의 가치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비영리단체들은 존립의 당위성이나, 운동의 당위성에 매몰되어 실제 조직의 투명성과 건전성, 아울러 후원과 사업이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는 책임성에 대해서는 간과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윤실은 창립초기부터 사역보고서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외부회계감사를 통한 재정 투명성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한 단계 도약하여 지속가능성보고서의 국제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GRI G3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로 체계적인 관리 체계나 G3 가이드라인 적용하는데 부족함이 많지만,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좋은 도구로 보고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의 특징

- 2009년 보고서는 "GRI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서 : 중소기업 핸드북"을 적용하여 작성된 시민단체 최초의 지속가능성보고서입니다.
- 목차 구성은 기존 GRI G3의 구조인 경제·환경·사회를 균형성과지표(BSC)를 준용한 열매관점, 협력관점, 재무적관점, 환경적관점으로 정리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 2010년 중 발표예정인 NGO 분야가이드(현재 최종 검토안)를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

본 보고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G3 가이드라인을 기본원칙으로 NGO 분야가이드(Sector Supplement : NGOSS)를 부가원칙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에 기재한 재무정보는 외부회계감사기관에서 인증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 범위 및 기간

- 본 보고서는 서울기윤실의 활동과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지역 네트워크 제외).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의 활동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 일부 활동에 대해서는 2010년 2월까지의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 검증

본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구성한 것입니다. 다만, 보고서에 대한 제3자 검증을 거치지 못했는데, 내년 보고서에서는 제3자 검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보고서 추가정보

이 보고서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다음 연락처로 연락주시십시오.

- 전화 / 02-794-6200
- 이메일 / trust@trusti.kr
- 본 보고서는 기윤실 홈페이지 (www.trusti.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C O N T E N T S

02 About the Report

03 목차

1부

기윤실의 지속가능한 시민운동

04 2009년 한눈에 보기

06 비전메시지 1 : 이사장

07 비전메시지 2 : 사무총장

08 기윤실 개요

10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11 중요성 평가

12 중요성 평가 부가설명

2부

열매관점 ' 더 높은 책무성

16 사업선정 방법

17 운동본부별 사업리스트

18 사업리뷰

20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22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

24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포럼

26 씨드스쿨

28 NO! 위장전입

30 사회적 보고

3부

협력적관점 ' 협력과 섬김을 통한 변화

34 의사결정시스템

38 회원현황

41 30일의 여정

42 대사리

44 간사들의 영적성장

46 협력과 섬김을 통한 변화

4부

재무적관점 ' 더 깊은 투명성

50 재정투명화 노력

51 재정변화 추이

52 2009년도 회계감사보고

5부

환경적관점 ' 더 넓은 공공성

56 환경이슈

57 재생종이 사용 캠페인

6부

부록

61 GRI Index / UNGC 10대 원칙

68 섬기는 사람들, 2009년도 후원자명단

70 2009년 기윤실 일정

71 2009년 발간자료목록

72 기도제목

73 설문조사

74 용어해설

2009년 기윤실 지속가능성보고서 신뢰의 열매

발행일 / 2010년 3월 30일

발행인 / 우창록

편집인 / 양세진

편 집 / 조제호

디자인 / 김문, 지구촌교회 홍보팀

발행처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Tel / 02-794-6200 Fax / 02-790-8585

이메일 / trust@trusti.kr

홈페이지 / www.trusti.kr

-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을 생각하여 재생종이로 만들었습니다.
- 표지종이는 고지율(재생펄프 함유율) 55%(사용전)의 양코르지이며,
- 본문종이는 고지율 60%의 L-라이트지를 사용하여 광기름으로 인쇄하였습니다.
- 형광증백제, 염소계 표백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윤실의 지속가능한 시민운동

신뢰가 주도하는 교회와 사회를 소망하며

열매관점

82명 / 2009년 사업평가 설문조사 참여자

910명 / No! 위장전입 서명운동 참여자

191개 / OnAir 기윤실 블로그를 통해 포스팅 된 게시물 수

125명 / 2009년 사업선정 투표 참여자

40명 / 2009년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 참가 목회자 (12개 교단)

3579 / 기윤실 웹페이지 월평균 방문회수 (홈페이지/OnAir/e_library)
4324,6842

417건 / 이메일 뉴스레터 평균 수신건(평균발송 3,984건)

19.1% /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신뢰도 여론조사 한국교회 신뢰도

44명 / 2009년 씨앗학교 참가 중학생 수

협력적관점

33% / 기윤실 회원 중 여성비율(267명)

32% / 기윤실 회원 중 20~30대 비율(260명)

7% / 이사회 임원 중 여성비율(2명)

22명 / 대사리 참가자 수

재무적관점

580명 / 개인후원자 중 CMS 후원자(72%)

32% / 기윤실 회원 중 20~30대 비율(260명)

73개 / 2009년 1회 이상 후원한 교회(기관) 후원자

37백여만원 / 2009년 당기순자산의 증가 (37,267,274원)

47천여만원 / 2009년 결산(475,539,094원)

환경적관점

9.3 그루 / 기윤실 내 재생종이 사용을 통해 살린 나무 수

2009년 기윤실 사역열매 신뢰나무



2009 기윤실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와 후원교회,
회원님의 기도와 격려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윤실은 2009년에도,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한국사회를 더욱 잘 섬기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교회신뢰회복운동, 사회신뢰회복운동, 회원실천운동의 영역에서 마음을 다해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기업들은 단순히 세금을 잘 내고 고객만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넘어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고객과 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한 고민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봉사, 사회공헌,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이러한 활동을 견인하기 위해 GRI에서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G3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유엔 역시 글로벌컴팩트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 지구적으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제표준화협회에서 사회적책임의 국제표준인 ISO26000 SR(Social Responsibility)이 제정되면서, 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공적 조직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윤실 역시 공적 조직으로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의지와 고민을 담아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자 하며, 유엔글로벌컴팩트에도 2007년 회원단체로 가입해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관한 10대 원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윤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개인과 기관 및 단체의 후원을 통해 재정적으로 건강성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시민단체로는 선도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며, 환경적으로는 재생종이 사용을 중심으로 일회용 컵 사용 안하기 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는 한해의 핵심 사역을 회원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하면서 회비를 내는 회원들을 단순한 후원자에 머물지 않도록 회원들과의 실질적 소통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다양한 전문 단체 및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하고 역동적인 문제들은 어느 한 기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윤실은 간사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및 이사와들의 협력을 통해 사역의 열매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원 및 교회, 기관들의 후원으로 재정적 안정화 및 사업의 영향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2년 동안에도 많은 시민단체들을 파생시켜 왔지만, 기윤실은 전문성을 가진 여러 기관 및 단체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기윤실 사역의 열매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기윤실은 2007년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로 3번째인 셈입니다. 그러나 엄밀함과 철저함의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발간하는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제대로 실험된 첫 번째 열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보고서 발간을 통해 기윤실은 조직적으로 더 높은 책무성과 더 깊은 투명성, 그리고 더 넓은 공공성을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3월
이사장 우창록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기윤실을 위해 아낌없는 후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후원자와 동역교회 및 기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기윤실이 2008년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는 손에 잡히는 숫자로 통계결과가 나타나지만 빈곤에 처한 아이들을 살려내는 것처럼 가슴에 와 닿는 사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손에 잡히거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체로서의 한국교회와 기독교의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희망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역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견인하기 위해, 사회복지를 넘어 통전적인 사회적 섬김을 고민했던 ‘교회의 사회적 책임 2.0 심포지엄’, 지역사회와 지역공동체를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사례들을 공유했던 ‘교회의 사회적 책임 2.0 포럼’, 큰 교회와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감당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과 섬김의 비전과 사명을 확인하고 열정을 고취시켰던 ‘교회의 사회적 책임 컨퍼런스’ 등의 사역은 한국교회와 기독교가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호응과 신뢰의 지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09년 기윤실은 운동의 비전이라는 것이 새로운 사업과 프로그램을 넘어서 사람들이라는 확산 속에 20년 후에도 지속가능한 기윤실 운동을 위해 20대 청년그룹을 세우는 일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취약계층 중학생들의 비전코칭과 학습코칭을 섬기는 ‘교육봉사단 씨드스쿨’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과 배려의 리더십을 구비시키는 ‘대학생사회적 리더십아카데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윤실은 2007년부터 한국교회의 사회적 섬김을 위한 표준을 세우고, 표준을 제시하는 사역을 섬겨나가고 있는데, 2010년에는 특별히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26000을 한국교회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일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공동체로서 세상의 잣대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독특함을 갖고 있기에 이 작업은 더욱 신중하고 진지한 접근이 필요한 사역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와 기독교가 세상의 조롱이 아닌, 희망의 근거가 되고, 신뢰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는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회원들과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해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윤실은 2010년에도 지금 현재 기윤실이 안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균형상태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위기 의식 속에서 새로운 균형상태(New equilibrium)를 탐색하는 도전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윤실이 큰 돈을 후원하는 교회나 기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종속되지 않도록 후원재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리해서 그야말로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2010년에도 한국사회와 교회의 신뢰회복을 위한 기윤실 사역을 위해 아낌없는 후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3월
사무총장 양세진

정직한 그리스도인, 신뢰받는 교회를 향한 여정

- 01 기윤실개요
- 02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 03 중요성 평가
- 04 중요성 평가 부가설명

기윤실의 시작

기윤실은 김인수, 손봉호, 이만열, 이장규, 원호택, 장기려, 강영안 등 38명의 기독교인들이 발기인이 되어 1987년 12월에 시작된 기독교시민운동입니다. 기윤실은 지난 22년간 정직한 그리스도인, 고통받는 이웃의 희망지기, 신뢰가 주도하는 교회&사회 등의 모토를 가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여정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기윤실 사명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신뢰받는 기독교인과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타자를 배려하고 환대하는 문화를 통해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기윤실의 역사

기윤실의 22년은 하나님의 은혜와 후원교회, 회원님의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1988~1990
 ☞ 창립(1988년 12월)
 ☞ 스포츠신문 음란폭력 조장 공동대책위 활동(음대협)



1991~1995
 ☞ 공명선거를 위한 시민협의회활동(공선협)
 ☞ 깨끗한 총회를 위한 활동
 ☞ 삼풍백화점 붕괴 시 기독교연합봉사단 활동



1996~2000
 ☞ 의료인 정직선언 등 직업윤리 회복을 위한 활동
 ☞ 의회발전시민봉사단, 국정감사 모니터 시민연대
 ☞ 기윤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발족



2001~2006
 ☞ 담임목사직 세습반대운동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 전국대학생کن인추방운동

단체명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창립' 1987년 12월
 법인 '사단법인(문화체육관광부)
 이사장' 우창록
 임원' 30명(이사 29명, 감사 1명)
 간사' 9명(정간사 6명, 협동간사 3명)
 소재지'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기윤실 비전체계도

공극적 비전
완성될 하나님 나라

비전 :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신뢰가 주도하는 교회&사회 만들기

전략 : 5대 핵심가치를
 구비케하는 덕윤리 운동

방법론
 다양한 전문기관 및 개인과의
“섬김을 통한 변화”추구



☞ 도박장 규제와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 정직투명성운동
 ☞ 배아복제반대운동



2007~2009
 ☞ 기윤실 2020 비전선포식
 ☞ 한국교회신뢰지표 개발
 ☞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포럼

기윤실 5대 핵심가치

- 01 기윤실개요
- 02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 03 중요성 평가
- 04 중요성 평가 부가설명

1 / 정직 Honesty & Integrity

정직은 'Honesty'와 'Integrity'의 통합개념으로 신실함, 진실됨, 진정한, 성실 등으로 이해되는 가치입니다. 정직을 실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훌륭한 인격과 도덕성, 원칙을 갖추어 매사에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시 51:10)**

2 / 책임 Accountability & Responsibility

책임은 자기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이 실행한다는 'Accountability'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한다는 의미에서 'Responsibility'를 포괄하는 가치입니다. 책임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책임있게 실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의존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실행합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수 22:3)**

3 / 정의 Justice & Fairness

정의는 사랑(Love)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윤실이 핵심가치로 삼고 있는 정의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와 사회 가운데 차이로 인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절차적 공정함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정의가 바로 선다는 것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외부적인 힘에 의해 강제적으로 혹은 강압적으로 강요당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는 힘이 보장됨을 의미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이다(암 5:24)

4 / 평화 Peace & Communication

평화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근본적인 비전이며 토대입니다. 살롬의 공동체,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이유입니다. 평화는 나와 다른 타자들과의 소통이며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와도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소통하고 공유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사 52:7)

5 / 배려 Care & Hospit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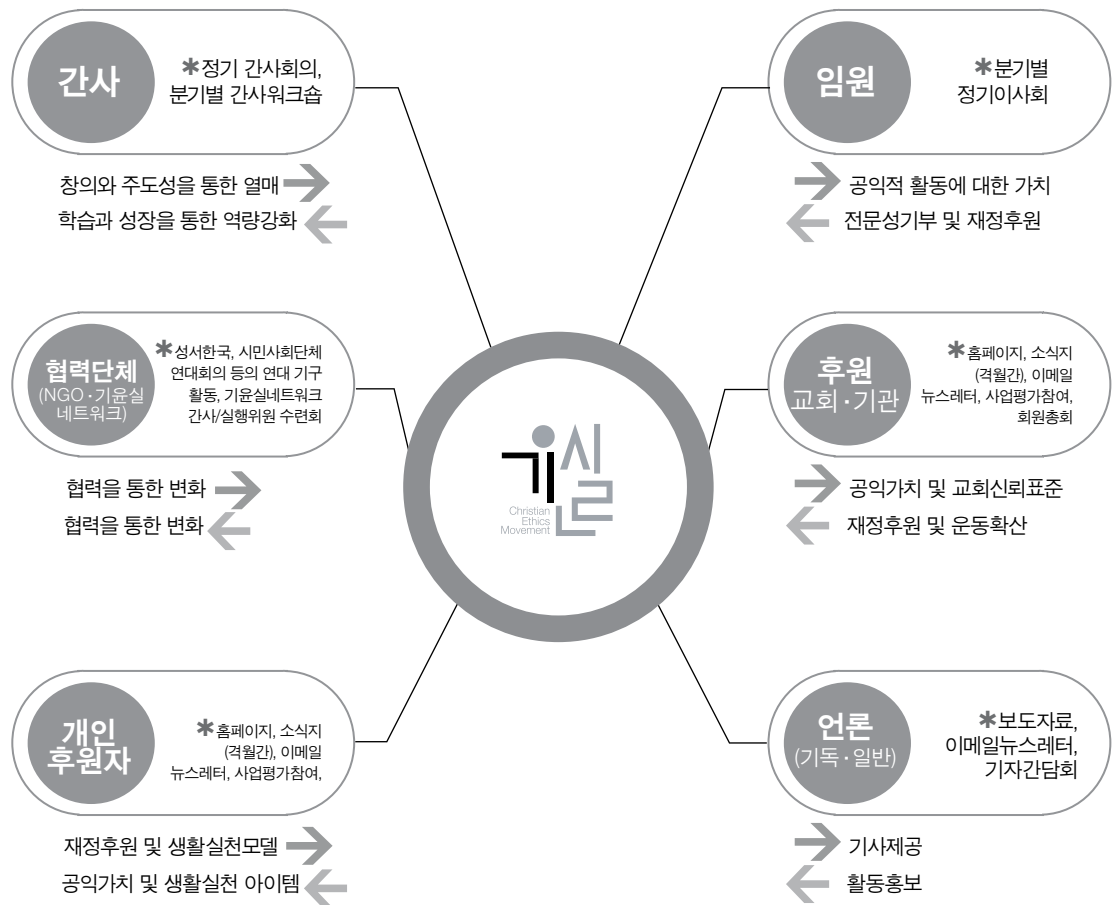
배려는 다원화되고 복잡해진 현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핵심 가치입니다. 나와 다른 타인 및 이질성에 대해 포용하고 환대하며 보살피고 돌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배려는 타인의 아래로 기꺼이 내려가 타인을 떠 받들어 섬기는 삶을 통해 타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약 1:27)**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 01 기윤실개요
- 02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 03 중요성 평가
- 04 중요성 평가 부가설명

지속가능성보고서는 기존 일방적인 사업중심의 보고에서 기윤실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과 성과가 있었던 것을 중심으로 보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윤실은 첫 번째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여 다양한 의사전달 통로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해관계자(Stakeholder)란 누구인가?**
 이해관계자는 조직의 활동, 제품/서비스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을만하고 또한 조직이 성공적으로 전략을 이행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에 영향을 줄만한 객체나 개인을 의미합니다.

중요성 평가

- 01 기윤실개요
- 02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 03 중요성 평가
- 04 중요성 평가 부가설명

중요성 이슈 선정 3단계

지속가능성보고서는 이해관계자가 기윤실로부터 알고 싶은 부분과 기윤실이 추구하는 지속가능성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작성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중요성 평가를 실시하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GRI에서 권고하는 중요성 테스트를 기본으로 시민단체인 기윤실만의 중요성 평가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직 미비하지만 본 보고서를 시작으로 기윤실만의 중요성 평가 절차가 잘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step
이슈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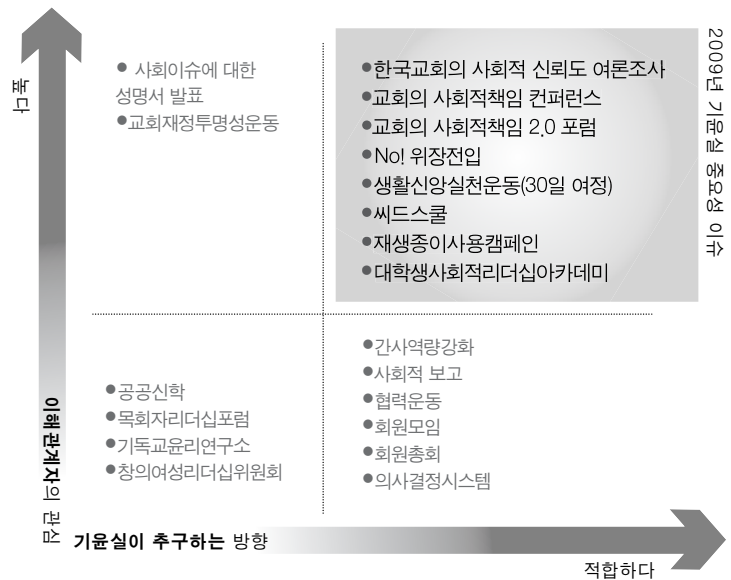
- 기사 검색 주요 일간지·기독언론에서 기윤실 관련 기사로 160개 검색
- 게시글 검색 기윤실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게시관인 공지사항에 2009년 게시된 60개 글과 블로그에 게시된 191개 검색
- 회원설문조사 2009년 사업을 중심으로 개별 사업평가 및 2010년 지속여부, 후원이 아깝지 않았던 사업, 이 사업 때문에 다른이에게 회원권유여부, 더 자세히 보고받고 싶은 사업 등으로 나눠 설문조사. 98명(회원 89명/비회원 9명)이 참여.

2step
이슈분석

- 기사의 경우 단독기사여부를 중심으로 가중치 부여 분석
- 게시글의 경우 조회수를 기준으로 가중치 부여 분석
- 회원설문조사 결과 중 각 문항의 상위 3위 내 사업을 선정
- 키워드 검색 4차례 이사회와 5차례 상임집행위원회 회의록과 회원설문조사 중 주관식 문항에 대해 중복내용을 키워드로 설정하여 검색

3step
중요성이슈 선정

- 이슈분석 내용을 토대로 중요성 이슈 선정



중요성 평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 01 기윤실개요
- 02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 03 중요성 평가
- 04 중요성 평가 부가설명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의 핵심은 이해관계자 파악과 중요성 평가를 통한 보고서 작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 중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단체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GRI G3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GRI G3 가이드라인이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 조직에 더 적합하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로서 기윤실은 존재목적이 가치지향적이며, 게다가 기독교적 비전과 영성에 기반한 조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표준에 맞추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이해관계자 파악이나, 중요성 평가를 통한 보고서 작성의 큰 틀은 변하지 않겠지만, 그것을 적용하고 세부적인 차원에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은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다음은 기윤실이 첫 번째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 준비한 이해관계자 파악과 중요성 평가 절차를 밝힙니다. 이 절차들은 기윤실이 처음 실행하고 적용한 사례여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시민단체에 맞는 적합한 중요성 평가 절차를 정착시키는데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보고서 작성을 하는데 있어 2010년 중 최종본이 발표 될 'NGO 분야가이드' 최종 검토안으로부터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1차 이해관계자	2차 이해관계자	우리가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이해관계자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일반사회	가족인문	경제적	환경적
임직원	일반인문	사회적	경제적
	이사	환경적	사회적
	본부장		
	기타위원		
	간사		
회원	간사 가족 후원회원		
	뉴스레터회원		
	목회자		
	20대		
	고액후원자		
교회	후원교회		
	오라-온라인		
연대관계	아전후임교회		
	지역기윤실		
	기후NGO		
	일반NGO		
	협력단체		

1. 기윤실의 이해관계자 선정 :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에서 우선순위를 파악

1차 이해관계자로 일반 사회, 임직원, 회원, 교회, 연대단체를 선정하고, 1차 이해관계자를 다시 세부 분류하여 아래 질문에 따라 평가하여 기윤실의 6대 이해관계자를 선정하였습니다.

- *기윤실이 이해관계자에게 경제 / 환경 / 사회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
- *이해관계자가 기윤실에 경제 / 환경 / 사회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

6대 이해관계자 : “간사, 임원, 협력단체, 후원교회 / 기관, 언론, 개인후원자”

2. 중요성 이슈 선정을 위한 자료조사

GRI G3 지속가능성 보고서 지침에 따르면 이해관계자 선정을 한 후 선정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보고받고자 하는 측면 조사를 하도록 하는데, 올해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단계를 보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를 조사하였습니다.

직접조사

- 2009년 1년 동안 비정기적으로 만난 회원들의 목소리
- 게시글에 대한 댓글 또는 문의
- 이메일 문의
- 사업평가 설문조사 참여내용
- 이사회·상임집행위원회 회의록 논의내용 파악

간접조사

- 기사인용
- 게시글의 조회수
- 이메일 뉴스레터 수신율

회원설문조사

- 설문기간 /**
2009년 12월 7일(월)~27일(일)
- 설문대상 /**
기윤실 후원회원 및 일반 관심자 (뉴스레터 회원 + 비회원)
- 설문방법 /**
이메일 발송 및 기윤실 홈페이지
- 참여자 /** 82명
- 후원회원 58명 + 뉴스레터 회원 18명 + 비회원 6명
 - 20대 10명 + 30대 24명 + 40대 25명 + 50대 15명 + 60대 7명 + 70대 이상 1명
 - 평신도 65명 + 목회자 17명

3. GRI G3 가이드라인 지표를 담당자가 아래 질문에 따라 분석하여 보고이슈선정

-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주요 지속가능성 관심사 / 주제 및 지표인가
- *동종업체 및 경쟁사에서 보고하고 있는 산업별 주요 주제 및 향후 해결과제인가
(국내 보고서로는 환경재단과 푸른경기21, 한국표준협회, 교직원공제회, 삼성전자, 포스코, 유한킴벌리, 대한주택공사 보고서를 참조했으며 해외 보고서로는 GRI, Oxfam 보고서를 참고했습니다)
- *보고 조직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관련 법률, 규제, 국제 협약, 자발적 협약 내용을 담고 있는가
- *측정 가능한 지속가능성 영향, 위험 요인 또는 기회를 나타내는가
- *조직 차원의 핵심가치, 정책, 전략, 운영관리체계, 목표 및 세부목표인가
- *보고 조직에게 중대한 위험요인인가
- *조직 성공의 핵심 성공 요인인가
- *조직의 핵심역량과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나타내는가
- *보고서가 주제 및 지표 간에 우선순위를 파악하도록 보여주는가

4. 중요성 이슈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슈분석

- 1/ 기사의 경우 단독기사여부를 중심으로 가중치 부여
- 2/ 게시글의 경우 조회수를 기준으로 가중치 부여
- 3/ 회원설문조사 중 각 문항의 상위 3위 내 사업선정

2009년 사업 평가가 좋은 사업 3순위

-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 씨드스쿨
- 정직한성도, 신뢰받는 교회를 위한 30일 여정

2010년에도 지속했으면 하는 사업 3순위

-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 2009년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
-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포럼

이 사업 때문에 내가 후원하는 회비가 아깝지 않다고 느끼는 사업 3순위

-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 2009년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
- 씨드스쿨(대한민국교육봉사단)

이 사업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운실 회원이 되도록 적극 권유할 수 있다고 느끼는 사업 3순위

- 2009년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
-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

4/4차례 이사회와 5차례 상임집행위 회의록의 논의 내용과 회원설문 조사 중 주관식 문항에 대해 중복내용을 중심으로 키워드 검색 실시

교회개혁운동|교회신뢰운동|기운부,기운실데이|기운실미래,젊은세대,Young기운실|기운실 ㄴ
대표상품|단순함,솔림화,선택과 집중|대안적인 교회운동,창의적운동,허브기능 |사회운동 |사회유기
대교체,의사결정구조,사역교통정리|손봉호,선지자적인 목소리,역사적 기
 울트라메타운동,싱크탱크,전문단체,연합|윤리부흥회,윤리적삶,생활윤리,개
 |평신도,목회자운동|한국교회의 공공성|회원실천아이템,회원활성화

교회재정건강성운동필요|교회의 반사회적 모습에 대한 개혁적 운동,지속적인 갱신추구|기도
 하는 기운실이 되길|너무 개별적이고, 메타포적이다|대사리|사업이 너무 방만, 핵심사업에 집중|
 사회적 이슈에만 매달리지 않았으면|신뢰도 측정과 컨퍼런스활동을 통한 언론의 반응과 기운실
 의 대응|실제 삶에 적용이 되는 실천적인 운동, 작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씨드스쿨 구체적인 커리큘
 럼준비과정|제한된 영역에서의 윤리문제|주말회원모임이 있었으면|교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교회간
 연대 및 협력운동|지방선거 관련 사업|지역기운실 활성화 참여와 관심이 더 일어나도
 록 홍보강화|수평이동현황조사|기운실만이 하는 여성정의운동|작은교회 바로세우기 운동

열매관점

Program Effectiveness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가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의 열매를 더욱 탁월하게 얻기 위한 열정적인 도전의 시대.

더 높은 책무성





1. 비전

기윤실은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시대정신과 가치를 담아내는 기독교시민운동을 지향합니다. 기윤실은 회원들의 참여를 통해 교회와 사회가운데 표준이 되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2. 전략방향

다양한 내외적인 부문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비전 공유, 자발적 참여를 통해 탁월한 열매를 창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찰하고,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도전하고 있는가?
한국사회와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사역들을 수행하고 있는가?

3. 주요성과

- 82명** 2009년 사업평가 설문조사 참여자
- 125명** 2009년 사업선정 투표 참여자
- 191개** OnAir 기윤실 블로그를 통해 포스팅 된 게시글 수
- 3,579/4,324/6,842**
기윤실 웹페이지 월평균 방문회수(홈페이지/OnAir/e_library)
- 417건** 이메일 뉴스레터 평균 수신건(평균발송은 3,984건)
- 19.1%**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신뢰도 여론조사
“한국교회 신뢰도”
- 40명**(12개 교단) 2009년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 참가 목회자
- 44명** 2009년 씨앗학교 참가 중학생 수
- 910명** No! 위장전입 서명운동 참여자

4. 2010년 계획

- 사업계획 수립시 사역검증시스템 도입
- 모든 사업의 참여자 평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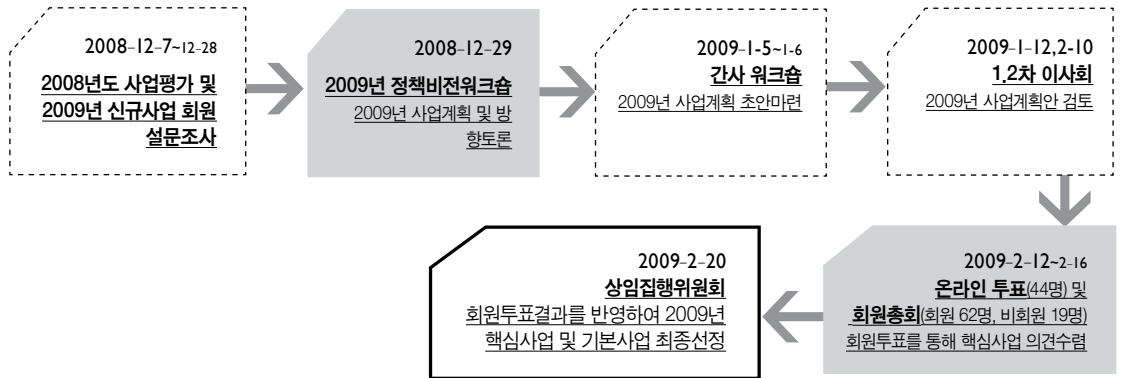
2009년 기윤실 사업선정

- 01 사업선정방법
- 02 운동본부별 사업리스트
- 03 사업리뷰
- 04 사회적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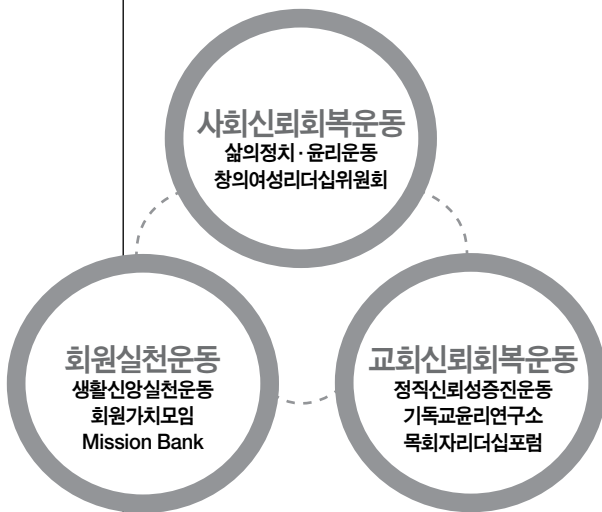
선정절차

- 기윤실은 회원들이 기윤실의 진정한 주인으로 참여하는 운동을 만들기 위해서 2008년부터 회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 해의 핵심 사업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2009년에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들로부터 신규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들을 기초로 정리된 2009년 사업 계획안을 놓고 온라인과 회원총회를 통해 회원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 기윤실은 회원 투표 결과를 기초하여 상임집행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2대 핵심사업과 3대 기본사업 및 각 운동본부 중요사업을 결정하였습니다.

핵심·기본사업 선정 과정



기윤실 운동의 3영역



2대 핵심사업과 3대 기본사업을 2009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핵심사업 중 정직캠페인은 하반기 “No! 위장전입 안하기 1만명 서명운동”으로 대체하였고, 기본사업 중 기윤실 포럼과 중·고 윤리담당 교사 아카데미의 경우 사업타당성 및 기윤실 내부사정으로 인해 2009년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2010년 사업은 실제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조사를 통해 사업 기획을 하고 핵심사업 선정을 위한 회원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2009년 운동본부별 사업리스트

- 01 사업선정방법
- 02 운동본부별 사업리스트
- 03 사업리뷰
- 04 사회적 보고

범 주	세부운동	문서자료	영상자료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①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포럼		
	☞ 환경편 / 지구적 교회, 지역환경을 생각한다		
	☞ 문화편 / 교회와 사회, 문화적 감수성으로 만나다		
	☞ 대안경제 / 교회, 마을 경제를 돌아보다		
	☞ 교육편 / 교육, 교회와 함께 달라다		
	② 2009년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		
씨드스쿨 대한민국교육봉사단	③ 공공신학 : 한국교회의 사회적 섬김에로의 초대 출판		
	④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섬김 보고서		
	⑤ 재생종이 사용 캠페인		
	① 목회자 간담회		
	② 교육양극화와 아동방임에 대한 현실과 대안 세미나		
기독교윤리연구소	③ 교사이카데미(T 스쿨)		
	④ 씨드스쿨		
정직신뢰성증진운동	① 기윤실 비전레터 "세상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 출판		
	② 임파워먼트 논문 발간		
생활신앙실천운동	①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① 정직한 성도·신뢰받는 교회를 위한 30일 여정 출판		
	② 3회 정직한 성도·신뢰받는 교회를 위한 30일 여정		
창의여성리더십위원회	③ 청소년용 미션뱅크 제작		
	① 5기 기독교와 여성 소그룹 성경공부		
목회자리더십포럼	② 교회 여성들의 필요하기 인터뷰		
	① 2기 신뢰받는 목회자를 위한 7H 리더십 워크숍		
사무처	② 3차 기윤실 목회자리더십 포럼		
	① 1기·2기 대학생 사회적 리더십 아카데미(대사리)		
	② No! 위장전입 안하기 1만명 서명운동		
	③ 회원모임		
	④ 2009년 기윤실 네트워크 전국 실행위원 수련회		
	⑤ 장신대 신대원생 기윤실 현장실습 진행		
	⑥ 2009년 기윤실 회원총회		
⑦ 연대활동(성서한국,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등)			

문서자료 / 기윤실 홈페이지(on air 기윤실, e_library)에 관련 자료집 또는 보고서가 PDF파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영상자료 / 기윤실 홈페이지에 관련 홍보 또는 보고용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9년 사업리뷰

- 01 사업선정방법
- 02 운동본부별 사업리스트
- 03 사업리뷰
- 04 사회적 보고

1 / **교회의 사회적 책임 2.0 포럼 <환경><문화><대안경제><교육>** *

교회가 지역사회의 필요에 책임있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환경·문화·대안경제·교육>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여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2 / **2009년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 *

공적기관으로서 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의미있는 성찰을 하면서 동시에 교회와 시민사회와의 건전한 소통을 통해 한국교회와 사회의 변화를 모색하는 컨퍼런스를 2박3일동안 진행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연례행사로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전문 시민단체 및 다양한 교회사례 발굴 소개를 통해 공적 기관으로서 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도전해 나갈 것입니다.

3 / **공공신학: 한국교회의 사회적 섬김에로의 초대 출판**

한국교회가 가치와 문화, 철학의 다원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에 대한 신념을 유지하면서도 세상과 신뢰성 있는 소통을 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신학적 토대를 다양한 학문 제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성을 주제로 정리하여 출판 하였습니다.

4 /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섬김 보고서**

한국교회가 많은 사회적 섬김을 감당하고 있지만, 아직 체계적인 통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2009년 10월을 기준으로 한국교회의 사회적섬김 현황을 제한된 영역이지만 조사하여 발표하였습니다(사회복지법인, 종합사회복지관, 노숙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사립학교, 대복지원단체, 해외원조단체, 의료기관, 장기기증).

5 / **재생종이 사용캠페인** *

교회들이 지구환경보전을 너무 어렵게 볼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주보 및 복사용지 등을 재생종이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재생종이 사용 안내서를 제작 교회들이 재생종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6 / **씨드스쿨** *

씨드스쿨(대한민국교육봉사단)은 헌신된 기독교대학생 교사들을 학교와 교회에 파견하여 취약계층 중학생들의 비전코칭과 학습코칭을 진행했습니다. 씨드스쿨은 2009년 덕양중학교(경기도 고양시)와 대광중학교(서울 동대문구), 정의여중(서울 도봉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7 / **2009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

2008년에 진행된 첫 번째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그동안 심정적으로만 생각되어 오던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낮음을 실증적인 데이터로 보여줬다는 것에 의의가 있었습니다. 2009년 조사 또한 연속사업으로 신뢰추이의 변화를 파악하고, 한국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의미한 데이터로 한국교회의 대 사회적 섬김과 소통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 2009년 기윤실 중요성 이슈

8 / 세상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 : 기윤실 비전레터 출판

2006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기윤실 뉴스레터를 통해 회원들에게 발송된 비전 레터를 묶어 단행본으로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시민단체이자 기독교기관으로서 크리스천의 시대적 고민을 담당해 온 기윤실이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자 만들게 된 것입니다.

9 / 정직한 성도·신뢰받는 교회를 위한 30일의 여정 출판 *

한국 교회는 급세기 놀랍도록 성장하였지만 영향력은 점점 감소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가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적고, 오직 개인 구원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 인식 하에 개인 구원과 사회 참여 사이에 균형 잡힌 신앙을 갖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30일 여정' 목상 교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10 / 5기 기독교와 여성 소그룹 성경공부

2007년부터 시작된 기독교와 여성 소그룹 성경공부는 5기를 맞아 "예수님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인지, 그 당시 가장 소외되었던 여성들의 이야기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 / 3차 기윤실 목회자리더십 포럼

'열린 커뮤니케이션, 열린 교회, 열린 목회'라는 주제로 한국교회의 대 사회적 소통을 위한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성경적 커뮤니케이션의 정신과 원리를 재발견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와 영혼들과 소통하는 목회의 아름다운 희망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2 / 1기·2기 대학생 사회적 리더십 아카데미(대사리) *

대사리는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된 기윤실의 청년교육프로그램입니다. 첫째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 약자를 불쌍한 자비의 대상이 아닌 나와 동일한 존재로 인식하고, 소수자, 약자들에 대한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자문하게 합니다. 둘째는 나와 생각, 의견, 종교가 다른 사람도 포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올바른 삶의 방식을 도전합니다.

13 / No! 위장전입 1만명 서명운동 *

2009년 9월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위장전입의 싹뿌리를 국민이 먼저 준법과 정치를 실천하는 서명운동을 통해 위장전입 공직자에게 도덕적 각성을 요구하기 위해 1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한국교회의 꽃대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2009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 01 사업선정방법
- 02 운동본부별 사업리스트
- 03 사업리뷰
- ☆001 교회신뢰도 여론조사
 - 002 사회적책임 컨퍼런스
 - 003 사회적책임 포럼
 - 004 씨드스쿨
 - 005 NO! 위장전입
- 04 사회적 보고

2009년 한국 교회의 사회신뢰도 여론조사결과는 작년에 비해 긍정적인 결과들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2-3년 전에 비해서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올해 신뢰도의 상승은 “하락 추세 속에서의 유의미한 반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반등이 향후 추세적 전환으로 이어질지, 혹은 이 수준에서 약간의 등락을 거듭할지, 혹은 더욱 하락할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추세적으로 한국 교회의 신뢰지수가 상승하려면 한국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의 삶,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활동하는 기독교인 지도자들의 삶과 행동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는 한국 개신교의 문제점은 바로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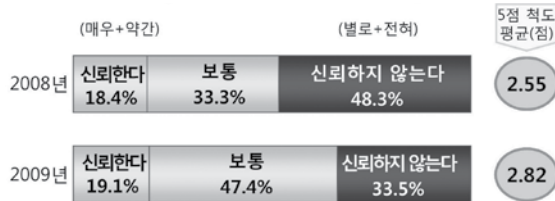
한국 교회의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은 이원적 가치관, 즉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분리하는 가치관을 극복해야 한다. 오히려 말씀을 따르는 사회생활이 기독교인의 참된 증거임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한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대로 “삶의 총체적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생활, 즉 교회의 각종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만을 열심히 신안인 것처럼 교회가 가르치고 유도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배움으로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의 본분을 다하며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가르쳐야 한다. 기독교 정치인, 기업가, 교사, 근로자들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정의와 공평, 사랑과 긍휼을 추구하면서, 최선을 다하지만 약자를 포용하고 배려하는 모습들을 기독교인이 보여 주어야 한다.

김 병 연 교수(여론조사 책임연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여론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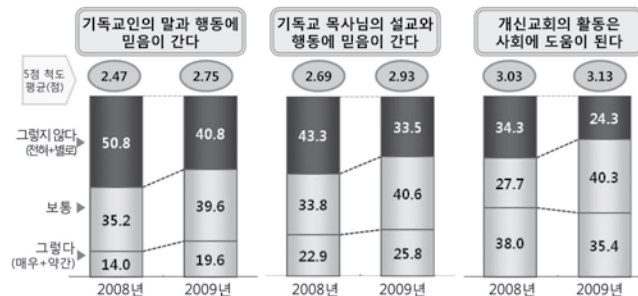
① 한국 교회의 신뢰도 5점 만점 2.82점, 19.1% 신뢰한다고 응답



한국 개신교회 신뢰도

- 한국 개신교회를 신뢰하는 정도는 19.1%로 지난 조사 대비 0.7% 포인트 상승함.
- 작년 대비 20~30대 응답자들의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모두 0.38점씩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함.

② 개신교회 구성요소별 신뢰도 교회활동(3.13점) > 목사(2.93점) > 교인(2.75점)



한국 개신교회 구성요소별 신뢰도

- 사람의 문제가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낮은 핵심 이유

회원 한마디
| 2009년 사역평가 설문조사 중

kgb-yang@hanmail.net(40대·남) 신뢰도 회복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대안과 교회, 성도들과 협력할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신뢰도를 조사한 것만으로는 선언적 의미만 있고 실천과 행동에 대한 대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는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합니다. 여론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 보여 내실 있는 연구와 실천적 과제들을 꾸준히 교회들에게 제시하고, 또 기도팀이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기윤실의 모습도 필요합니다. 대체적으로 기독교인간의 약점이 사회적인 이슈에만 매달려 기도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심장삽입에서 블로그에 올라온 여론조사 관련글을 보시고, 댓글로 달아주시는 표현입니다.

여론조사 개요

조사취지 /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교회 신뢰도를 조사함으로써 한국 교회의 신뢰도 수준을 측정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영역이나 활동을 이해하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교회 전체 차원에서 신뢰도 개선운동을 펼쳐나갈 계획.

조사명 / 2009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

조사대상 / 만19세 이상의 남·여 1,000명(전국)

조사기간 / 09년9월 28일~29일
조사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

표준추출 / 성·연령·지역별 인구 수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3.1%

책임연구원 / 김병연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기윤실 정직신뢰성증진운동본부장)

검토위원회 / 황호찬 교수(세종대 경영대학원, 검토위원장), 신창운 기자(중앙일보 여론조사 전문), 양세진 사무총장(기윤실), 양희승 실장(바른교회아카데미), 이상화 사무총장(한국기독교교육자협의회), 임성빈 교수(장신대 기독교와문화), 조성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실무팀 / 조재호 팀장(기윤실), 선혜림 조교(서울대 경제학 석사과정)

공동주최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후원 / CBS, 국민일보, 목회와신학, 크리스채너티투데이한국판, 한국교회봉사단

조사기관 / 글로벌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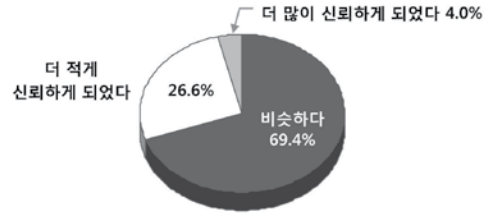
(대표 지용근)

③ 2~3년 전 대비 개신교회 신뢰도 변화

비슷하다(69.4%), 더 적게 신뢰하게 되었다(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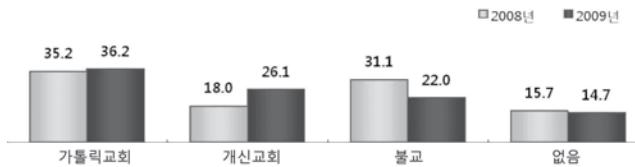
지난 2~3년 대비 개신교회 신뢰도 변화

· 개신교회의 신뢰도는 소폭 상승했으나, 더 적게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응답 또한 무시못할 수준으로 나타남.



④ 종교기관의 신뢰도 순위

가톨릭교회(36.2%) > 개신교회(26.1%) > 불교(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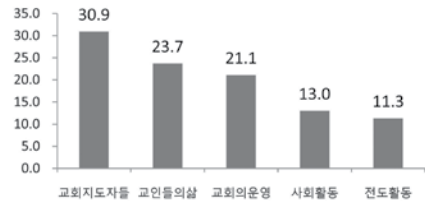


가장 신뢰하는 종교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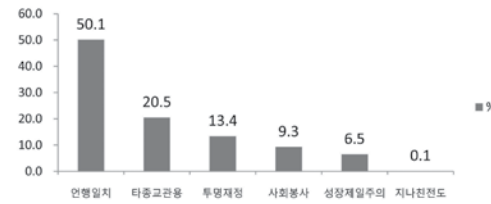
·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471명의 사람들 중에서 개신교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자는 10.8%

⑤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교인과 지도자들의 언행일치, 봉사와 구제, 윤리와 도덕



더욱 신뢰받기 위해 가장 바뀌어야 할 점



더욱 신뢰받기 위해 가장 개선해야 할 점

⑥ 신뢰의 문제는 소통의 문제

	(매우+약간)	(별로+전혀)	5점 척도 평균(점)	
2008년	관심 있음 24.8%	보통 24.8%	관심 없음 50.4%	2.55
2009년	관심 있음 23.4%	보통 28.5%	관심 없음 48.1%	2.68

개신교회 활동에 대한 관심 정도

· 교회의 낮은 신뢰도는 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의 소통의 부재 때문에 야기될 수 있다.
· 비기독교인들은 13.4%가 교회의 활동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고, 57.9%가 관심이 없다고 응답.

⑦ 그 외 질문들

- 12~3년 전 대비 개신교회 신뢰도 변화 비슷하다(69.4%), 더 적게 신뢰하게 되었다(26.9%)
- 정·관·재계 활동 기독교 지도자들의 말, 행동에 대한 교회 신뢰도 변화 부정적으로 바뀐(46.9%)
- 기관에 대한 신뢰도 순위 시민단체(51.1%) > 개신교회(14.5%) > 언론기관(8.7%) > 정부(5.6%) > 사법부(5.2%) > 국회(1.0%)
- 사회 봉사활동 적극수행 종교 가톨릭교(41.2%) > 개신교(42.0%) > 불교(7.8%) > 원불교(0.3%) > 기타(0.3%)
- 개신교회 활동정보 인지 경로 TV,신문언론매체(55.7%) > 가족,친구,이웃(23.9%) > 교회홈페이지,책자(13.0%) > 인터넷(5.4%) > 기타(2.1%)
- 예수님 신뢰도 5점 만점 3.41점, 46.6% 신뢰한다고 응답

*전체 내용은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고정된 시선을 사회로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9년 교회의 사회적책임컨퍼런스

- 01 사업선정방법
- 02 운동본부별 사업리스트
- 03 사업리뷰
 - 001 교회신뢰도 여론조사
 - 002 사회적책임 컨퍼런스
 - 003 사회적책임 포럼
 - 004 씨드스쿨
 - 005 NO1 위장전입
- 04 사회적 보고

컨퍼런스 개요

일시 / 2009년11월2일(월)~4일(수)
장소 / 필그림하우스
 (지구촌교회 영성수련원)

참석 / 한국교회 신뢰회복과 사회적 책임에 관심 있는 목회자 40명
주강사 / 김동호 목사(높은뜻교회연합),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특별강사 / 김병연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임성빈 교수(장신대 기독교외문화), 황형택 목사(강북제일교회)

워크숍강사 / 권이영 상임교문(한국해비타트), 김범석 사무총장(열매나눔재단), 김혜경 사무총장(지구촌나눔운동), 백광훈 목사(문화선교연구원), 신산철 사무총장(크리스천라이프센터), 양세진 사무총장(기윤실), 양재성 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 윤환철 사무국장(한반도평화연구원),

주최 / 지구촌교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후원 / 필그림하우스

파트너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씨드스쿨, 문화선교연구원, 열매나눔재단, 지구촌나눔운동, 크리스천라이프센터, 한국해비타트, 한반도평화연구원

협력 / CBS, 국민일보, 극동방송, 높은뜻교회연합, 목회사회학연구소, 목회와신학, 바른교회아카데미, 생명목회실천협의회, 크리스챤티투데이한국판, 한국교회봉사단, 희망제작소

* 컨퍼런스 참가자 중 한분께서 작성하신 후기에 쓰여진 표현입니다.

기윤실과 지구촌교회가 주최한 2009년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가 경기도 가평의 필그림하우스(지구촌교회 영성수련원)에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와 높은뜻교회연합 김동호 목사를 주강사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교회의 신뢰회복과 사회적책임을 위한 한국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40여명의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과 나눔, 이론적 강외와 뜨거운 기도가 함께한 균형 잡힌 행사로 한국교회의 희망을 발견하는 행사였습니다.



첫째날 개회예배 설교자로 나선 김동호 목사(높은뜻교회연합, 기윤실 공동대표)는 '반석위에 세운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의 사회적책임, 교회의 신뢰회복 이전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안에 바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는 바른 길임을 강조했다. 이어 특별강사로 초청된 희망제작소의 박원순 변호사는 강의를 통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함을 역설했다. 수많은 아이디어로 한국 사회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일하는 소셜 디자이너라고 자신을 소개한 박 변호사는, 교회가 경직된 틀을 벗어나 지역사회와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수많은 가능성과 일감들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농촌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들을 교회가 발굴하여 키운다면 한국사회와 교회에 모두 덕이 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된 저녁집회에서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기윤실 공동대표)는 마태복음의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의 영성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둘째날 새벽예배 설교자로 나선 김동호 목사는 일꾼의 입장이 아닌, 포도원 주인의 입장을 풀어 설명하며 '천국의 사고방식'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포도원 주인이 오로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일을 상기하며, 바로

포도원주인으로 비유된 하나님께서 사회적 기업가의 모델임을, 그래서 한국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교회가 교회를 위해 일하지 않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로 바뀌어야 함을 강조했다. 오전에는 서울대학교 김병연 교수(기윤실 정직신뢰증진운동 본부장)가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하였다. 이어진 강의에서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는 강북제일교회가 실천한 사회적 섬김의 사례들을 발표했다. 점심식사 후에는 8개의 파트너단체와 함께 마련한 분야별 워크숍이 진행됐다. 소울싱어즈의 특별찬양 이후 이어진 저녁집회에서 이동원 목사는 교회가 사회적책임을 실천함에 있어서 일방적이고 교회중심적인 사역에서 탈피해, 지역과 이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다가가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셋째날 마지막 날 새벽, 김동호 목사는 세 가지 시험이라는 설교를 통해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처럼 교회와 목회자들이 빠질 수 있는 시험들을 철저히 경계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잡아 사역해 나가자는 말씀을 전했다. 이후 내전으로 인해 고통을 겪던 르완다의 화해와 용서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 'AS WE FORGIVE'를 함께 감상했으며, 폐회예배를 마지막으로 컨퍼런스가 마무리됐다. 임성빈 교수는 '사랑과 섬김'이라는 설교를 통해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웃을 섬기는데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근본적인 동기에 더해, 지식과 충명을 갖춰 좋은 동기가 잘못된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해야함을 설교했다.

2009 교회의 사회적 책임 선언

참가자 한마디

- ☞ 한국 교회 전체, 모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하여 신뢰 회복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기동 했으면
- ☞ 분야별 전문성과 정보 교류 / 교회와 전문 선교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 ☞ 선택 워크숍 시간을 좀 더 주어서 구체적인 부분까지 접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 100인 미만 교회, 500여명 규모의 교회 등 다양한 사례 발굴
- ☞ 여자 목회자 사역 사례 발표를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감격, 감동, 사역 방향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와 사회에 책임과 선택하여 집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영적 자존심 계속 회복하는 사역자가 되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목회 와 교회가 되도록 결단합니다.
- ☞ 가슴 뛰게 하는 충격과 도전을 준 재도약의 발판이 됨
- ☞ 식탁의 교체 시간은 참 훌륭한 시간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편성 되어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역 거점 교회로 지역에서의 영향이 지속되게 했으면 합니다.
- ☞ 만족스럽고 감사합니다. 진행의 입장에서는 적은 인원이지만 참석자 입장에서는 적은 인원기에 더욱 감사
- ☞ 큰 그림을 보며 방향성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 너무 교회 안으로 고정된 시선을 사회적 밖으로 넓히는 시선을 열어주는 계기가 됨
- ☞ 사회적 책임에 대한 원리, 핵심을 발견, 도전받고 방향과 시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얻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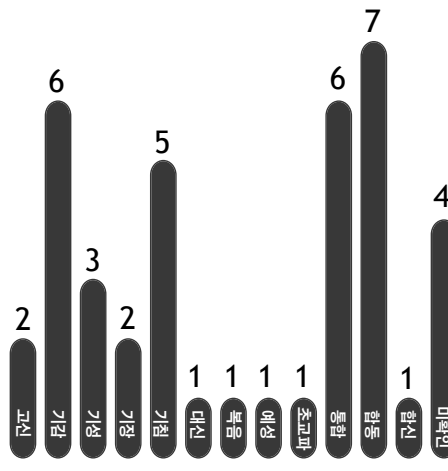
2009 교회의 사회적 책임 컨퍼런스에 참여한 목회자 일동은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 하락의 아픔을 가슴으로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명으로 한국 교회의 신뢰회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1** 고백 우리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며 복음의 본질임을 고백한다.
- 2** 인식 우리는 한국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이웃의 고통이 우리 자신의 문제임을 인식한다.
- 3** 대안 우리는 사회적 책임 컨퍼런스를 통하여 교회의 사회적 책임의 가능성과 대안을 보았다.
- 4** 실천 우리는 지역 사회의 현실을 경청하고 필요를 질문하고 요청에 응답하여 섬김과 나눔의 삶을 실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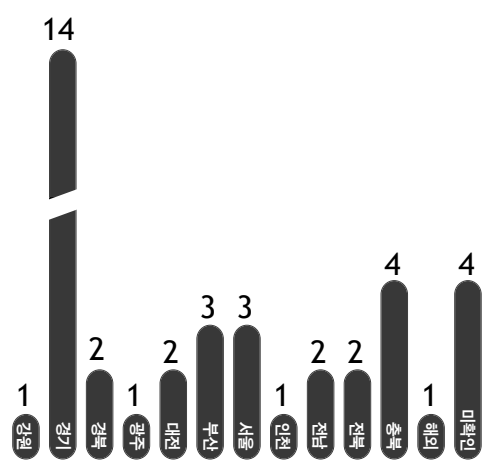
2009년11월4일, <2009 교회의 사회적 책임 컨퍼런스> 참여자 이동원, 김동호 외 42명 일동

주요일정

	11월 2일(월)	11월 3일(화)	11월 4일(수)
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벽예배1 / 김동호 목사 ● 강의2/ 김병연 교수 (2009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 강의3/ 황형택 목사 (신뢰회복을 위한 목회자의 영성과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벽예배2/ 김동호 목사 ● as we forgive 영화상영 ● 폐회말씀/임성 빈 교수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말/ 이동원 목사 ● 축사/ 손인웅 목사 ● 개회말씀/ 김동호 목사 ● 강의1/ 박원순 변호사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생각한다) 	선택 워크숍¹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씨드스쿨/ 크리스천라이프센터/ 한반도평화연구원	
저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씀1/ 이동원 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씀2/ 이동원 목사 목회자 대담	



교단별 참가자 현황



지역별 참가자 현황

사회복지를 넘어 사회적책임으로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포럼

- 01 사업선정방법
- 02 운동본부별 사업리스트
- 03 사업리뷰
 - 001 교회신뢰도 여론조사
 - 002 사회적책임 컨퍼런스
 - ★ 003 사회적책임 포럼
 - 004 씨드스쿨
 - 005 NO! 위장전입
- 04 사회적 보고

2008년 처음으로 실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90점 만점에 40.95로 C-점수를 받았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지금까지 교회가 사회복지부문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감당하였지만 이러한 유의미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한국교회에 대해 더 높은 책무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무게감이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시대에 뒤떨어지는 섬김의 방식과 자세에 대한 질책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 한 구성체로서 '사회복지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여, 이웃사랑의 방식이 교회중심의 일방적 지원이 아닌 이웃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의 관점의 변화를 기대하며, 2009년 교회가 한국사회 안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위해 지역교회의 고민을 담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 2.0 포럼'을 네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매회 진행되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 2.0 포럼'을 통해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신학적 지평을 넓히고 교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천사항을 논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주제별 전문단체와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하여 공공영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교회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빛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Empowerment)하는 운동이 될 것입니다.

환경포럼 <지구적 교회, 지역환경을 생각한다> 일시·장소 2009년 5월 8일(금) 오후3시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 **생각나눔 Think Globally**
 - 신학적 입장에서 본 환경문제 : 송준인 목사(청량교회, 총신대학교 석좌교수)
 - 생태문제, 교회의 책임 : 박영신 교수(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녹색연합 상임대표)
- ☞ **실천나눔 Act Locally**
 - 교회의 친환경적 운영을 위한 제안 : 손석일 전도사(높은뜻정의교회, 환경공학 박사)
 - 친환경 소비, 먹을 거리와 생활재를 중심으로 : 김재일 이사장(예장생협, 연평교회 목사)
 - 기후변화 대응 교회실천 및 녹색교회 운동 : 유미호 정책실장(기독교환경운동연대)

문화포럼 <교회와 사회, 문화적 감수성으로 만나다> 일시·장소 2009년 6월 11일(목) 오후7시 / 명동 청어람 3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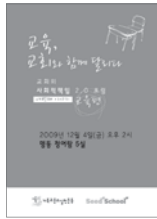
- ☞ **생각나눔 Think Globally**
 - 웹 2.0 시대와 문화선교 : 임성빈 교수(장신대 기독교와문화, 문화선교연구원장)
- ☞ **실천나눔 Act Locally**
 - 아름다운 상상 '세상에 행복을 주는 교회' 최은호 목사(예장통합 문화법인 사무국장)
 - 오래된 이야기를 새롭게 하소서! : 신동주 PD(CBS TV 제작부)
 - 지역사회와 문화로 소통하는 파구스스토리 : 박상규 목사(분당만나교회 문화사역담당)
 - 크리스천, 대중문화 흥수 속 래프팅을 타다 : 박준용 기획자(청어람 문예아카데미, 한양대 강사)

대안경제포럼 <교회, 마을 경제를 돌아보다> 일시·장소 2009년 9월 22일(화) 오후7시 / 연동교회 2층 베레렘실



- ☞ **생각나눔 Think Globally**
 - 교회의 사회적책임과 공동체 자본주의 권영준 교수(경희대 국제경영학부)
 - 새로운 나눔의 시작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김범석 사무총장(열매나눔재단)
- ☞ **실천나눔 Act Locally**
 - 사회적 기업, 커피밀 윤선주 목사(다담돌교회, 커피밀 대표)
 - 교회와 함께 하는 행복한 나눔 조병준 팀장(행복한나눔 매장전략팀)

교육포럼 <교육, 교회와 함께 달리다> 원시·강사 2009년 12월 4일(금) 오후2시 / 명동 청어람 5실



생각나눔 Think Globally

-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 장신근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학)

실천나눔 Act Locally

- 에듀투게더, 분당우리교회와 함께 하는 교육양극화 해소 프로젝트
김윤태 실장(분당우리교회 복지재단, 에듀투게더 담당)
- 가정과 교회협력을 통한 기독교 대한교육 모색 이재현 목사(지주촌교회 글로벌홈스쿨링아카데미 담당)
- 교회와 함께 하는 행복한 나눔 박경현 소장(한국교육복지연구소, 씨드스쿨 교육이사)



문화포럼은 임성빈 교수의 기초발제 이후 4명의 토론자들의 2시간 넘는 단상토론과 청년논객들의 질의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토론 시 요약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녹취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녹취 전문은

기윤실 블로그(<http://trustitistory.com/476>)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조성돈 / 토론을 시작해 보겠다. 이 시대의 특성에 대해 얘기해 보았으면 한다. (중략) 소통, 공유, 민주주의가 주제로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시대의 감수성이 무엇인가를 물어 보고 싶다.

박준용 / 문화적 감수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았다. 한국교회신뢰도조사 결과가 예측된 결과이지 않았나? 청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거부한다고 했을 때, 그 이유는 기독교는 정답을 가진 종교이고, 소통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대는 함께 생산하고 함께 공유하는 것인데, 교회에서는 그 생산을 대부분 교역자로 독점하다 보니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방법이 문제가 아니다. 예전에 열린예배, 구도자에배를 했는데, 그것은 복음은 문제가 없는데 형식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우리의 본질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가를 자기 반성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문화적 감수성의 방법 찾기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 구현 찾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최은호 / 방법론이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중에 다시 방법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내용과 방법론은 언제나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내용과 함께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선교를 미션으로만 하지 않고, 요즘은 소통(communication)이라고 부른다.

박준용 / 선교가 소통이라는 것을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면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한국교회는 소통을 전도를 위한 미끼로 사용하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이미 눈치채고 있다. (중략)

조성돈 /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가?

박상규 / 교회 파구스를 잠깐 소개하겠다. 파구스는 지역사회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카페파구스, 공간파구스, 도서관, 체육관 등이 있다. 특이한 것은 이 공간에 휴연실이 있다. 많은 남성들이 교회에 못 오는 이유가 흡연, 음주를 금기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들을 배려하고자 휴연실을 만들었다. 어떤 문화기획 공연은 외면 받기도 했다.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마니아층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역주민들에게 열려있는 교회로 인식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통주 / 만나교회의 사역이 인상적이었다.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다. 교회카페에 온 일반인들이 교회를 알게 되고, 목사님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까? 일반인들은 교회 내의 민주성에 주목하지 않을까? 교역자 사회 내의 관계는 민주적인가? 교회 내의 사소통은 자유로운가? 묻고 싶다.

최은호 / 신PD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문화마케팅에는 분명 한계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문화세대와 소통하려는 노력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진정 문화적으로 소통의 공동체로 변하지 않으면 한계는 분명할 것이다. 친근해진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문화포럼
그현장을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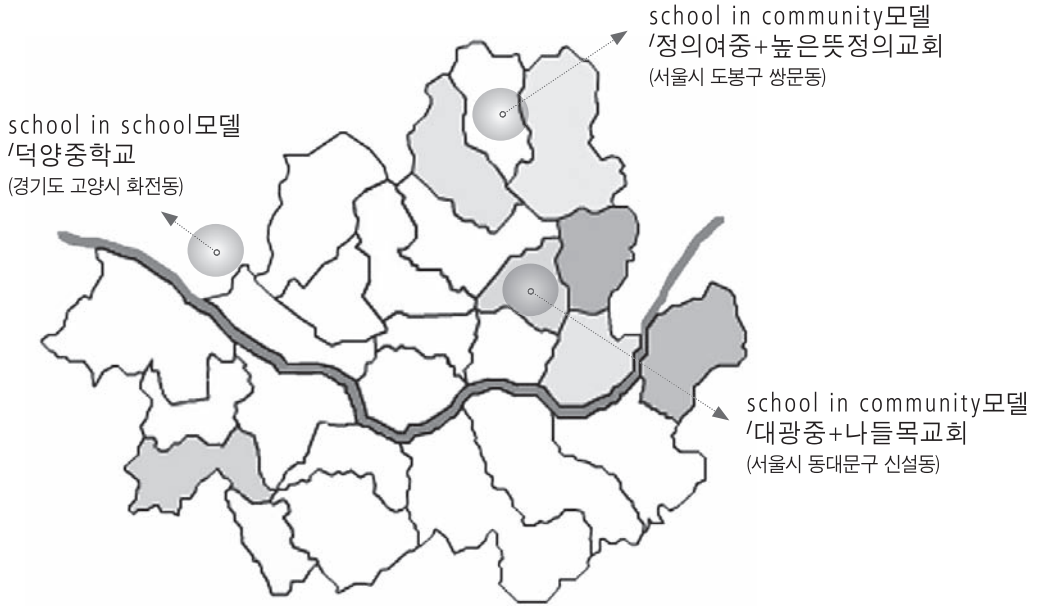
4차례 포럼 중 문화 포럼 토론회 녹취록을 일부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의 방과후 교육은 우리가 책임진다!

씨드스쿨 (Seed School)

- 01 사업선정방법
- 02 운동본부별 사업리스트
- 03 사업리뷰
 - 001 교회신뢰도 여론조사
 - 002 사회적책임 컨퍼런스
 - 003 사회적책임 포럼
- ★ 04 씨드스쿨
 - 005 NO! 위장전입
- 04 사회적 보고

2009년 기윤실 핵심사업으로 선정된 교육봉사단 씨드스쿨은 기독교영양연구원, 좋은교사운동, 한국리더십학교, 학교사회복지사협의회, 한빛누리재단과 함께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중학생들의 비전코칭과 학습코칭을 섬겼습니다. 2010년에는 기윤실에서 독립하여 방과후 교육봉사 전문운동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섬겨나갈 것입니다



① 덕양중 씨앗학교

- 일시 | 2009년 9월~12월, 매주 수요일 17:30~20:30(총12회)
- 장소 | 덕양중 글마루(도서관) 및 식당
- 인원 | 교사 21명, 학생 21명(총42명)
- 내용 | 저녁식사, 창의상상 집단활동(독서,그림,음악,글쓰기등), 멘토링 및 학습지원
- 기타 | (주)미래영재학원과 함께하는 영재과학교실 운영(매주 화,목 3시간씩, 교사2명·학생8명 총10명)

② 나들목꿈틀공부방(나들목교회+대광중학교)

- 일시 | 2009년 9월~12월, 매주 화,목,금 18:00~21:00(총36회)
- 장소 | 나들목교회
- 인원 | 교사 17명, 학생 17명(총34명)
- 내용 | 저녁식사, 멘토링과 학습지원

③ 정의여중 씨앗학교

- 일시 | 2009년 9월~12월, 매주 화,목 17:30~20:30(총24회)
- 장소 | 높은뜻정의교회 정의마루
- 인원 | 교사 12명, 학생 6명(총18명)
- 내용 | 저녁식사, 멘토링과 학습지원

회원 한마디
| 2009년 지역평가 설문조사 중

esemane@hanmail.net
(30대·남) 2009년 들어 기윤실이 뭔가 뜻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대안을 만들어 내고 정의의 편에 서고자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소외되고 왜곡된 모습에 대한 대안 만들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대학생 교육 봉사단 활동은 정말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crow7605@hanmail.net
(30대·남) 씨드스쿨은 취지가 좋네요.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 시켜서 많은 청소년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did80@hanmail.net(30대·남) 씨드스쿨의 구체적인 커리큘럼이나 준비과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교회교육과 연결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있을 수 있을까요?

T 활동후기

나눔과 동행을 통한 변화를 추구하는 씨드스쿨. 씨드스쿨의 핵심은 바로 헌신된 멘토교사인데요, 우리는 그들을 T(Teacher)의 약자로 씨드스쿨의 멘토교사라고 부릅니다. 이제 씨드스쿨의 자랑인 T들의 감동스토리를 들어볼까요? Go! Go!



씨드스쿨 T 비야·정고운

1. 씨드스쿨 T로 자원하게 된 이유는?

한국 교육현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봉사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국의 교육불평등을 이야기 합니다. 그렇지만 선뜻 해결책을 내어놓을 수는 없지요. 아마 한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실타래처럼 꼬인 교육 문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씨드스쿨은 이것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담대하게 “도전” 청년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움직임을 보고 선뜻 동참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2. 씨드스쿨 만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공부 하라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대신 왜 공부해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즐겁고 유쾌한 방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씨드스쿨의 콘텐츠는 “삶의 이유와 목표”라는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씨드스쿨의 방법은 언제나 유쾌한 놀이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학교. 희망이 없고, 꿈이 없고, 삶이 무료했던 아이들에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학교. 씨드스쿨의 “can do spirit!” 이것이 바로 이 곳 씨드스쿨만의 매력입니다.

3. 씨드스쿨을 통해 변화되길 바라는 나의 모습은?

씨드스쿨은 저에게 또 하나의 사랑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씨드스쿨을 통하여 이 사랑법을 더 잘 익히고 싶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저는 지금까지 “섬기는 사랑, 주는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아이 한 명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생각 속의 사랑”이상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이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씨드스쿨이 끝난 후 저는 조금 더 변화되어 있길 바랍니다.

4. 씨드스쿨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즐거웠던적) 느낀 적은?

저의 멘티가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변화란 마음문을 열고 저와 조금 더 가까워졌을 때를 말하구요. 선생님이라고 깽뚫하게는 대하지만 지금껏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몇 주 전 영원히 건널 수 없던 강 같은 우리 사이가 갑자기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 제 멘티가 저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들 중에는 저에 대한 것도 있었습니. 우리의 관계가 일상의, 사적인 관계가 되고 서로 기억하는 의미있는 존재가 되어 간다는 것. 아마 가장 뿌듯한 변화가 아닐까요...?

5. 씨드스쿨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처음에 힘들었던 것은 학생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문화에 침투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저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저마다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을 보았지요. 가까워지는 것 같다가도 이질감을 쉽게 느끼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친밀해 질 수 있을까 고민한 적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훨씬 나아진 느낌입니다. 저 또한 아이들을 알기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또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이의 마음을 열고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나에게 씨드스쿨이린?

볼꽃 이환 갈때는 설레는 맘 갖고 가고 올 때는 따뜻한 맘 갖고 오는 곳 / 모모 유모나 또 다른 안식처. 그리고 함께 어 린아이로 되는 것 / 사인 박희나 나를 의아하게 하는 가을햇살! / 헤일리 박혜령 일주일의 앤들핀이다 / 비야 정고운 나 를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변화시키는 곳이다 / 덩기 최한나 일주일의 베틀민 / 흰둥이 성윤식 즐겁고 가벼운 명에 / 상록 수 전은진 저 요즘에 씨드스쿨 때문에 살아요 / J 권지영 지금 내 삶에서 가장 가치있는 일이고 최고의 낙이다 / 봄봄 정 승화 (아이들에게) 숨겨진 보물들을 발견하는 기쁨이다 / 령이 김진경 섬을 얻는 곳이다. 몸이 아파 힘들었는데 아이들과 있다보니 힘을 얻었어요^^ / 벨로체 표경남 최초로 배품의 즐거움을 알게 해 준 하나님의 선물 / 겸장군 임채광 따뜻한 관심과 열정이 숨쉬는 즐거운 교육 / 뽀뽀 김혜인 꿈을 찾아가는 오솔길 / 이수 권장훈 나에게 있어서 또 다른 삶의 이유를 주는 곳 / 쟁쟁 박정미 함께 꿈꿀 수 있는 곳 / 사샤 한 상아 좋은 사람들과의 잊지 못할 추억이자 나를 돌아보고 성장 할 수 있는 곳 / 들콤 오정희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잔^^ / 남코치 남도현 뜻하지 않은 최고의 선물 / 쿨 명현기 씨드스쿨은 쿨의 핫타임! / 가드 이홍범 짜릿한 버저버터.



위장 전입 공직자에게 준법과 정직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No! 위장전입 1만명 서명운동

- 01 사업선정방법
- 02 운동본부별 사업리스트
- 03 사업리뷰
 - 001 교회신평도 여론조사
 - 002 사회적책임 컨퍼런스
 - 003 사회적책임 포럼
 - 004 씨드스쿨
 - ★005 NO! 위장전입
- 04 사회적 보고

2009년 9월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위장전입의 쓴뿌리를 국민이 먼저 준법과 정직을 실천하는 서명운동을 통해 위장전입 공직자에게 도덕적 각성을 요구하기 위해 1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 총 서명 인원 : 910명(2009년 12월 31일 기준)

○ 온라인 서명운동

일정 | 2009. 9. 21~12. 31 / 서명 페이지 주소 | <http://house.trusti.kr> / 참여 인원 | 296명

*거리 서명운동

	1차 거리서명	2차 거리서명	3차 거리서명
일시	2009. 9. 30(수)	2009. 10. 1(목)	2009. 10. 9(금)
장소	명동	대학로	명동
서명인원	129명	165명	118명

*외부 서명운동 참여

	서강대 IVF	산울교회
일시	2009. 9. 30(수)	2009. 10. 4(일)
장소	서강대 캠퍼스 일대	산울교회 본당
서명인원	145명	57명

*비전 레터 발송

일시	제목	필자
2009. 9. 28	위장전입과 생쥐들의 선택	백종국
2009. 9. 28	망령된 관습 이제 청산해야 합니다.	신동식
2009. 10. 26	자녀 교육을 위한다는 위장전입,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까?	정병오



위장전입은? 위장전입이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상 주소만 바꾸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위장전입을 도덕성 문제로만 치부하지만,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실정법 위반이다.(위키백과 “위장전입” 항목)

왜 위장전입을 하는가? “부동산과 교육 때문”

위장전입의 유형은 선거 후보자를 도우려고, 각종 보상을 챙기려고, 지자체 승격에 필요한 주민수를 채우려고, 타 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니기 위한 것 등 다양하지만, 역시 우리나라에서 위장전입의 주력은 부동산투기나 아파트분양 그리고 자녀학군 배정과 관련한 교육문제로 고위공직자는 물론, 중산층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으로 퍼져있는 사회적 문제이다. 특히 실정법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범죄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이 기회에 정직한 사람들만 손해보지 않도록 위장전입을 범죄행목에서 폐지하자는 웃지 못할 주장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No! “위장전입 공직자에게 준법과 정직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배우자가 공무원이든, 그로써 일을 보겠다는 부정부패, 재물, 영장유출에 이르러서...
 또 물론 그해 공직선거 당시 유권 할 수 있고, 영장유출 사건, 위장전입을 통해 이익을 챙겨 주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불법 행위도 포함됩니다.
 또 자녀 학군에 영향을 미친다. 아이도 공교육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데, 사립학교로 갈 수 있는 실정법 위반, 공적의 손익은 국민이 아닌 관공서 공무원, 공무원이 하는 행위를 기밀에 유출하여 합니다.
 “자녀 위장전입 - 정통 사립학교”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로써 학군을 바꾸는 것은, 사립학교로 갈 수 있는 실정법 위반, 위장전입을 통해 이익을 보려는 부모가 벌금이나 억울하게 사립학교로 갈 수 있도록 하여 정통 사립학교로 갈 수 있도록 합니다.

0905 영희

서명 참여자 한마디

1 온라인 서명 중



- 교회 다니는 위장전입 공직자님들... 예수님이라면 위장전입 했을까요?
- 권력의 주인인 국민의 진심이 전해지길 바라며 서명합니다.
- 바른 법치주의 제대로 실현되는 나라를 꿈꿉니다. 아~ 제발ㅜㅜ
- 슬픈 현실 위장전입공화국 애 떠나고 싶다. 적극 지지합니다.
- 도덕적인 고위공직자 어디 없나요? NO위장전입!
- 법은 법이기에 마땅히 평등하게
- 위장전입 안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라면 법 앞에 스스로 더 엄격해져야 합니다.
- 위장전입 하지 맙시다. 나또한
- 나부터 깨끗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 적극적인 헌법윤리실천운동을 펼쳐주세요.
- 위장전입!!! 불법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서명합니다.
- 위장전입은 물론 부동산 투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 우리 민족의 미래와 장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서명합니다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위장전입의 의미

기회를 얻거나 혹은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거나

위장전입의 유혹은 잠깐 시간을 벌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한다거나 휴지통이 떨어져 담배꽂초를 길에 버리는 행위와 같은 단순한 법규위반문제 정도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잠깐의 위장전입으로 얻게 되는 개인의 이익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위장전입을 하나 하지 않느냐에 따라 엄청난 세금부과를 감당하거나 마냐, 아파트분양을 받느냐 못받느냐, 내 아이가 좋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느냐 못 받느냐, 내가 이 지역의 공무원시험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일상의 문제에서 금전적 이익이나 구체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위장전입으로 얻은 개인의 기회는 다른 누군가의 기회박탈을 전제하고 있다. 위장전입으로 인해 부동산 투자적격자 중 일부는 탈락한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기는 학생도 나온다. 하지만 그런 방법을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규범과 공익에 반하는 일을 차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회를 가로챈 사람들이 오히려 득세하는 사회에 남는 건 분노와 상실감이다.(2009. 9. 16. 문화일보 시론 '위장전입의 사회학')

No! 위장전입 서명 참여자의 고백(김OO님)

저도 3년간 공무원 준비를 했었는데, 시험의 기회를 더 늘리기 위해서 주변에서 위장전입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2번 떨어진 후 저에도 그것이 유혹이 되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해선 당연하진 안 될 죄이고, 법이 정한 원칙을 어기면서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그건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 되는 무서운 범죄이기에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 대부분이 하는걸 왜 그러느냐 말을 할 때, 크리스천이기에 성실히 뿌린대로 거두고 싶다고 말하며 거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법치주의란 말을 새정부 들어 더더욱 많이 듣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법치주의가 참으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며 지켰던 소크라테스가 떠오르네요.. 이젠 바른 법인데

도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어기는 것이니 확실히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고위 공직자의 작금의 위장전입의 도덕성의 문제는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우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2009년 성명서·논평 발표 리스트



- 1월 22일 / 용산 철거민 사망 참사에 대한 기윤실 성명서
- 2월 17일 /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을 애도하며
- 5월 25일 / 5월 21일 대법원의 존엄사 판결에 대한 입장
- 8월 18일 /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합니다.
- 11월 25일 / 우리나라의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확정을 환영하며

사회적보고

- 01 사업선정방법
- 02 운동본부별 사업리스트
- 03 사업리뷰
- 04 사회적 보고

기운실은 시민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활동내용에 대한 사회적 보고와 정보 공개에 충실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운실의 사회적 보고는 홈페이지,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한 온라인은 물론, 소식지를 통한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1. 기운실 웹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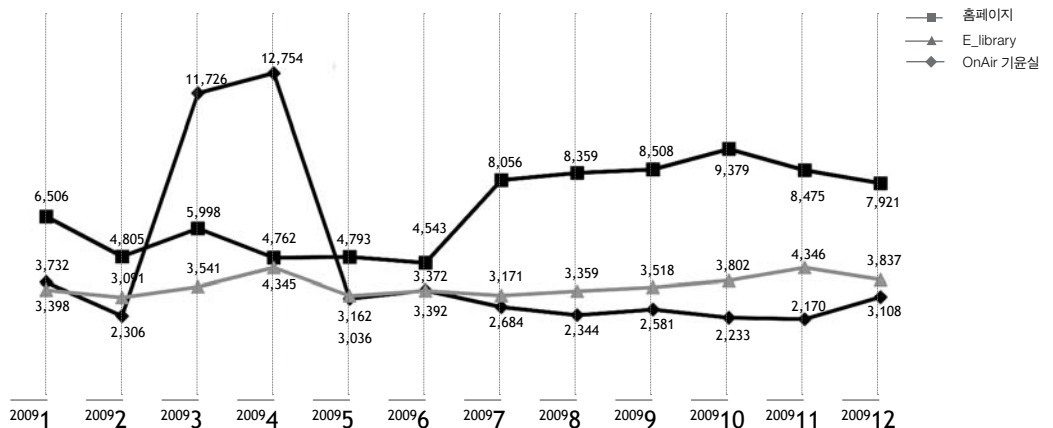
기운실은 공식홈페이지 외에 검색의 용이성을 위해 활동보고는 OnAir 기운실 블로그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종 정보는 e_library 블로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이트명	웹 주소	월 평균방문회수	2009년 게시물	평균 조회수
OnAir 기운실	http://trusti.tistory.com	4,324	191개	563
e_library	http://blog.naver.com/e_library	6,842	20개	-
홈페이지	www.trusti.kr	3,579	60개(공지사항)	374

e_library의 축적된 글은 총 1,764개입니다.
OnAir 기운실 조회수는 실 조회수가 아닌 다음(www.daum.net)을 통해 검색조회 된 수치입니다.



○ 월 평균 방문회수 통계



○ OnAir 기윤실 게시글 조회 베스트 3 (2010년 1월 기준)

글 제목	게시일	조회수
사회적 리더십을 위한 나의 사명서	6월 8일	1056
[재생종이 사용 캠페인 2탄] 재생종이 너는 누구냐?	5월 26일	832
2008년 회계감사보고서	2월 24일	618

○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글 조회 베스트 3 (2010년 1월 기준)

글 제목	게시일	조회수
2009년 기윤실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 2009년 기윤실 사업소개	3월 2일	9028
기윤실 “대학생사회적리더십아카데미” 1기를 모집합니다.	3월 2일	3863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 등록안내입니다.	9월 26일	3199

2. 이메일 뉴스레터 “윤실이네 소식”



매주 1회 한주간의 기윤실 소식을 담은 이메일 뉴스레터 “윤실이네 소식”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기윤실 후원회원 뿐 아니라 뉴스레터 수신을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발송회수	평균 발송건수	발송 성공률	수신확인(율)
39회	3,984건	3,844건	417건(11%)

○ 이메일 뉴스레터 수신율 베스트 3

글 제목	발송일	수신율
[기윤실편지 22호] 현대사의 아픔	5월 29일	15%
[기윤실편지 44호] 2009 한국교회의 사회적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	11월 9일	13%
[기윤실편지 24호] 교회! 소통을 이야기하다.	6월 15일	13%

3. 기윤실 열매소식지 “신뢰의 여정”

기윤실은 단순한 보고 내용을 담은 기존의 소식지 양식을 넘어 기윤실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과 트너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사업의 중요성에 기반하여 사역열매를 정리한 “신뢰의 여정”을 2008년부터 발간하고 있으며, 매호의 발간부수는 1,200부입니다.



협력적관점

Social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더 빨리, 더 많이를 넘어 더 멀리,
더 오래 가기 위한 상호의존성의 시대.

협력과 섬김을 통한 변화



1. 비전

오늘날 한국교회와 사회가 직면한 복잡하고, 역동적이고 다원적인 문제들은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운실은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섬김을 통해 변화를 추구하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2. 전략방향

기운실과 관계 맺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면서 협력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가?

회원들이 진정한 주인으로 참여하는 운동을 만들어 가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새로운 이슈, 새로운 전망, 새로운 삶의 방식을 담아내고 또한 변화된 시대와 소통할 수 있는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운동방식은 무엇인가?

3. 주요성과

33% 기운실 회원 중 여성비율(267명)

7% 이사회 임원 중 여성비율(2명)

32% 기운실 회원 중 20~30대 비율(260명)

22명 대사리 참가자 수

4. 2010년 계획

- 여성 임원/회원 비율의 연차적 증가
- 회원참여 정기모임(온라인·오프라인)
- 젊은 회원들이 참여유도 전략수립



기윤실의 의사결정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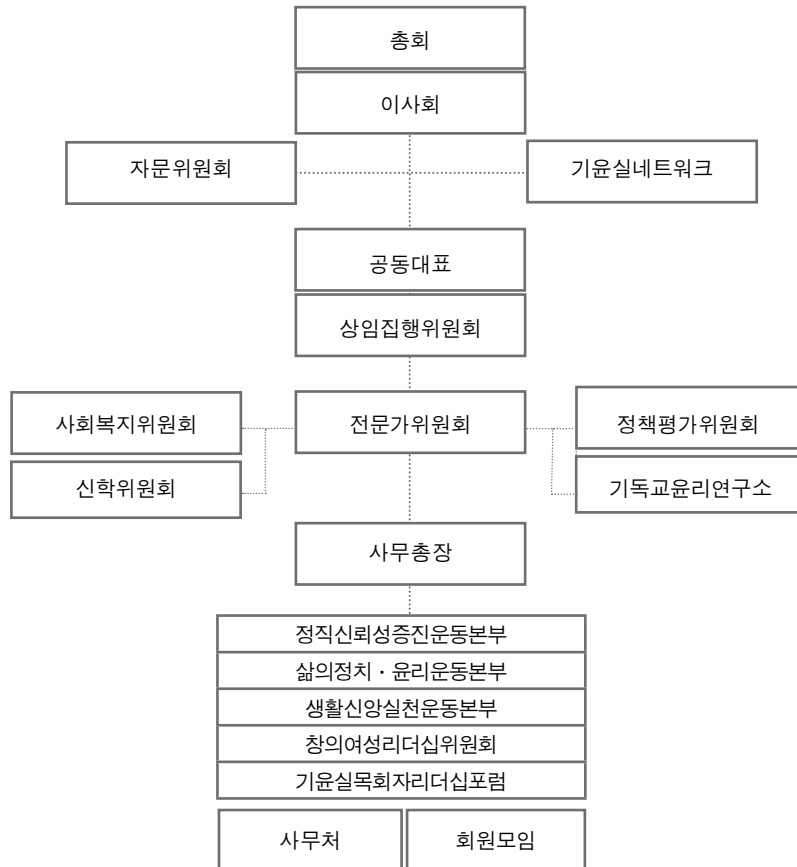
- 01 의사결정시스템
- 02 회원현황
- 03 간사들의
영적성장
- 04 협력과 섬김을
통한 변화



정치적중립성과 공정성원칙

기윤실 임원(이사, 실행위원, 본부장, 전문위원 등)이 임원의 자격으로 특정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거나 행위를 할 경우 직을 사퇴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해임할 수 있도록 한다.

1. 의사결정기구 및 활동



○ **총회** 년 1회 개최되며 기윤실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회원총회의 주요 권한은 한해의 사업과 예결산 의결, 임원의 선출과 해임, 정관개정 등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원총회 참석현황 연간추이

	2008년	2009년
개인회원	55명	57명
교회(기관)회원	3곳	3곳(5명)
비회원	20여명	30여명

** 2009년 회원총회 주요 의결사항

- ① 신임공동대표 선출(2명) :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임성빈 교수(장신대 기독교와문화)
- ② 신임이사 선출(4명) : 손인웅 목사(떡수교회), 문애란 대표(ROG미디어), 이문식 목사(산울교회),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 ③ 정관개정(제15조) : 제15조에서 공동대표 5인을 7인으로, 이사 5인 이상 20인 이내를 5인 이상 30인 이내로 개정





★김일수 공동대표(고려대 법학과 교수)의 경우 2009년 8월 1일부터 경찰위원장직을 맡게 되면서 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임원 직을 겸직할 수 없는 <공무원 직무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윤실 임원직에서 사임하고, 자문위원으로 기윤실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1, 4, 7, 10월 연 4회 개최되며, 기윤실 사역의 큰 틀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단위입니다. 이사의 수는 정관(15조3항)에 의해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이사는 회원총회를 통해 선출됩니다.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기윤실 이사들은 이사장을 포함해서 모두 비상근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활동과 관련해서 어떠한 보수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직명	성명	성별	현 직업	임기
이사장	우창록	남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2012년 2월
이사	강영안	남	서강대 철학과 교수	2012년 2월
	권장희	남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	2010년 2월
	김동호	남	높은뜻송의교회 담임목사(공동대표)	2012년 2월
	김충환	남	다니엘교회 은퇴장로	2012년 2월
	김홍섭	남	시립인천전문대학 e-비즈니스과 교수	2012년 2월
	문애란	여	ROG미디어 대표	2013년 2월
	박상은	남	샘병원 의료원장	2012년 2월
	박은조	남	분당샘물교회 담임목사	2011년 2월
	방선기	남	직장사역연합 대표	2012년 2월
	백종국	남	경상대 정치행정학부 교수	2012년 2월
	손인웅	남	덕수교회 담임목사	2013년 2월
	송인수	남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2012년 2월
	오정현	남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2011년 2월
	이동원	남	지구촌교회 담임목사(공동대표)	2011년 2월
	이문식	남	산울교회 담임목사	2013년 2월
	이우근	남	법무법인 총정 대표변호사	2012년 2월
	이의용	남	생활커뮤니케이션연구소 소장	2012년 2월
	이장규	남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공동대표)	2012년 2월
	임성빈	남	장신대 기독교와문화 교수(공동대표)	2013년 2월
	전재중	남	법무법인 소명 대표변호사	2012년 2월
	정애주	여	홍성사 대표	2012년 2월
	정현구	남	서울영동교회 담임목사	2010년 2월
	조흥식	남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2년 2월
	주광순	남	부산대 철학과 교수(공동대표)	2012년 2월
	한기채	남	중앙성결교회 담임목사	2013년 2월
	황형택	남	강북제일교회 담임목사	2012년 2월

★2009년 이사회 회의 일정

★ 이사회 성별 구성현황 연간추이

	2007년	2008년	2009년
남	21명(100%)	22명(96%)	25명(93%)
여	0명(0%)	1명(4%)	2명(7%)
합	21명	23명	27명

일시/장소	참석이사/감사,상집위원
1 2009년 1월 12일(월) 18:00-21:00, 율촌 회의실	16/7
2 2009년 2월 10일(화) 18:00-21:00, 율촌 회의실	4/5
3 2009년 7월 6일(월) 18:00-23:00, 율촌 회의실	7/8
4 2009년 9월 11일(금) 19:00-24:00, 필그림하우스	11/7



- 01 의사결정시스템
- 02 회원현황
- 03 간사들의
영적성장
- 04 협력과 섬김을
통한 변화

○**상임집행위원회** 이사장, 공동대표, 본부장, 사무총장으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주로 이사회가 열리지 않는 월에 진행됩니다. 기윤실 사역의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의결하며 이사회 의제를 점검하는 단위입니다.

직명	성명	성별	담당 업무	현 직업
위원장(이사장)	우창록	남	이사장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위원(공동대표)	김동호	남	교회신뢰회복운동	높은뜻교회연합 대표목사
	이동원	남	교회신뢰회복운동	지구촌교회 담임목사
	이장규	남	사회신뢰회복운동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임성빈	남	회원실천운동	장신대 기독교와문화 교수
	주광순	남	기윤실 네트워크	부산대 철학과 교수
위원(소장, 본부장)	김병연	남	정직신뢰성증진운동 본부장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선욱	남	삶의 정치·윤리운동 본부장	송실대 철학과 교수
	김은혜	여	창의여성리더십위원회 본부장	장신대 기독교와문화 교수
	노영상	남	기독교윤리연구소 소장	장신대 기독교와문화 교수
	신동식	남	생활신앙실천운동 본부장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황영익	남	목회자리더십포럼 본부장	서울남교회 담임목사
	위원(사무총장)	양세진	남	사무총장

○**사무총장·사무처** 이사회와 상임집행위의 위임을 받아 사무처의 일상적인 활동 전반을 관할합니다. 기윤실의 비전과 사명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무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하며 업무를 처리합니다.

*** 2009년 상임집행위원회 회의일정**

일시/장소	참석
1 2009년 2월 20일(금) 12:30-14:00, 율촌 회의실	8
2 2009년 4월 23일(목) 18:30-20:50, 율촌 회의실	6
3 2009년 6월 9일(화) 18:00-20:00, 율촌 회의실	5
4 2009년 10월 27일(화) 18:00-20:00, 율촌 회의실	7
5 2009년 12월 1일(화) 17:00-20:00, 율촌 회의실	8

2. 브랜드 컨설팅 실시 중

기윤실은 1987년 12월 창립되어 지난 22년 동안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진 윤리를 실천하는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윤실 사역에 애정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기윤실이 어떤 운동을 하는 단체인지 정체성이 애매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기윤실 운동이 단순히 맥락적으로 상황 적응적인 운동이 아닌 본질과 정체성을 제대로 밝히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재정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브랜드 컨설팅 전문 기관인 엣지본(Edgebone) 윤선민 대표의 도움을 받아서 2009년 3월부터 기윤실의 비전, 사명, 핵심가치 등이 한방향정렬되어 있고, 가치와 사업 현장이 동기화 되어 있는지를 재점검하고(Re-set) 리디자인(Re-design) 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컨설팅은 2010년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감사인은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200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사업년도의 내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회계 및 운영의 내부통제제도의 이행, 각종 규정의 정비 및 준수 등을 점검하여 전반적인 업무의 합리적인 수행과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를 위하여 감사인은 내부 감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련서류의 검토, 사무실의 방문 및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다음에서 지적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회계 및 운영의 내부통제, 규정의 정비 및 준수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별첨 자료는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요약한 것입니다.

2010년 2월 9일, 감사 황호찬
경영학박사, 공인회계사

3. 내부 업무감사 실시

기윤실은 지난 1999년부터 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의 공인회계감사기관으로부터 전문적인 회계감사를 받아 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윤실은 조직운영에 대한 더 높은 책무성 차원에서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윤실 사역이 단순히 재정의 투명성 뿐 아니라 업무의 책무성을 통해 비전과 사명, 핵심가치에 맞게 재정이 사용되고, 조직이 효율성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2009년 내부감사는 2010년 2월 1일 황호찬 감사(세종대 경영대학원 교수)로부터 받았습니다.

2009내부감사보고서

1. 장려사항

가. 외부회계감사 지적사항의 공식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2008년 회계연도에 대해 재무제표뿐 아니라 외부감사인이 지적한 사항을 공식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바가 있으며 2009년도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나. 각종 사역의 기획, 진행, 평가 및 보고
기윤실은 2009년도에 다양한 사역을 기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공청회의 개최를 통하여 대외적인 신인도를 증진하였을 뿐 아니라, 사역 결과를 언론을 통해 알림으로써 사역 효과의 극대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새로운 사역의 개발은 기윤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계속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개선사항

가. 이사회의 구분 ※ 4월 정기이사회에서 이사회를 운영이사, 후원이사, 협력이사로 구분하는 것을 논의할 예정. 현재, 일상적 의사결정은 이사장-사무총장 논의를 통해 집행되고 있는데, 올해는 이사장-공동대표, 사무총장 논의를 활성화 할 예정)

현재 기윤실의 제반 의사결정은 사무총장, 공동대표, 상임집행위원회, 이사회 등으로 나누어져 시행되는 관계로, 권한 및 책임이 중복되어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반적인 지배구조의 재정비를 제안합니다.

대안으로는 현재 이사회를 (1)운영이사, 후원이사, 협력이사로 구분, 혹은 (2)이사회 내부에 몇 개 분과를 설치하고 한 분과 (예를 들어 운영이사) 안에 사무총장, 공동대표, 상집위를 포함하여 기윤실 운영 전반에 걸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 방안입니다.

나. 각종 규정의 정비 ※ 2010년부터 분기별로 재무제표에 대한 이사장 결재 시스템 구비할 예정) 2008년도의 내부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업무에 대한 제반 규정이 미비하였던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9년도에 기윤실은 사무실 업무규정, 회계업무규정, 평가규정 등을 제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다만 승인규정 등이 차후 보완되어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며 본 사항은 위 (2)의 (가)항과 연결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각종 재무제표는 분기 단위로 이사장의 내부 결재를 득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 각종서류의 관리 ※ 3월부터 정비하여 시행할 예정)

모든 서류는 작성에서부터 시작하여 보관에 이르기까지 누락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매 지출결의서에는 사전에 인쇄된 일련번호를 체계적으로 부여하여 서류의 완전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역별로 구분된 통제번호를 할당하여 사용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작성 및 정보 활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라. 예산 통제의 강화

(※ 국제NGO의 예산통제 기준을 준용하여 3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정비할 예정)

현 기윤실의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있습니다. 이 때 확정된 예산은 항목 별 총액에 대한 승인입니다. 한편 이를 집행할 때에는 지출에 앞서 예산항목의 분류는 정확하지, 지출예산금액은 확정된 예산총액의 범위에 있는지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에 실제적인 지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기윤실의 실무에서는 사후적인 결재가 사무총장으로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사전에 예산통제 업무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 이사장의 결재가 필요할 것이며, 예산 조과의 지출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 혹은 추경예산의 편성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마. 윤리규정 보완 ※ 기존에 내부규정 및 기윤실 업무규칙 등 정리되어 있는 것을 취합하여 2월말 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

현재 기윤실은 윤리규정이 부재하며, 업무 규정상에 일부 기술되어 있습니다. 기윤실 직원 및 기윤실 전체에 대한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실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회원의 실천이 기윤실 운동의 마침표입니다.

- 01 의사결정시스템
- 02 회원현황
- 03 간사들의
영적성장
- 04 협력과 섬김을
통한 변화

회원인터뷰 모음

기윤실 운동은 일반 시민운동과는 달리 회원들이 재정적 후원만 하거나 혹은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회원들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실천해 나갈 때 비로소 기윤실 운동이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총회를 2008년부터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회원총회로 변경하였으며, 2008년부터 한해의 사업평가와 사업제안을 받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Interview



박상규회원에게회원운동의길을문다!

☐ 일시 '2009년 2월 18일(수) 저녁 7시 ☐ 장소 '박상규 회원 자택

Q>회원이 함께 하는 기윤실운동,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제가 가르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칭'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 상담사 같은 경우는 접근방식이 이래요.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네. 여러 정황을 들어보니 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군요. 이렇게 해 보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코칭'은 달라요. 말 그대로 답을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답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지원하는 역할만 하는거죠. 저는 기윤실이 회원실천운동을 그렇게 '코칭'과 같은 자세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인가요? 회원실천체크리스트 '미션뱅크' 같은게 있었잖아요. 그런 접근은 좋은거 같아요. 다만 그런 실천리스트가 있으면 회원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그래서 실천을 진행 중에 있는지, 함께 따라가 주면서 격려하면서 운동을 해나가면 좋겠어요. 그런 소통이 있는 기윤실운동이 되면 좋겠어요.



기윤실의한의학적인건강검진날

☐ 일시 '2009년 4월 7일(화) 1시 ☐ 장소 '그린빈 커피숍

Q>한 의사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연관되나요?

A>뭐 한의학쪽에서도 기독교적 세계관 강의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역지로 끼워 맞추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실용학문으로서 그 기술을 잘 연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의료봉사팀으로 섬기기도 했지만 제3세계 의료

인프라가 없는 환경이면 모를까 한국에서 그냥 의료봉사 다니는 것이 좀 이벤트성인거 같기도 하고 오히려 건강제미나나 강의 같은 게 훨씬 도움이 되겠다 싶기도 해요. 하지만 아직은 그리스도인 한의사로서 사회적 봉사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환자들에게 좋은 진료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엔 오진을 하면 당황스러웠는데 이제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오진 시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큰 봉사가 아닐까요~ 좀 더 나이가 들면 생각이 바뀌겠지요. 10년 뒤 정도 되면 오히려 사회참여적인 활동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운실이 회원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좋아요

☞ 일시 '2009년 4월 30일 저녁 ☞ 장소 '창의상상룸



영미영회원

Q>>기운실 활동 중 인상적인 것이 있었다면요?

A>>음...입사기 운동이에요. 제가 중등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참 힘들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믿음이 있는 부모님들도 자녀 교육에는 마찬가지로요. 이에 대해 목사님이나 교계 지도자들도 딱히 어떤 가이드를 주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기운실이 이처럼 사회문제에 대해 방법론을 제시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일단 교회 안에 들어가면 사회, 세상과 분리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기운실이 내건 "세상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인상적이에요. 교회가 또 하나의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좋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 분명 있잖아요. 또, 기운실이 회원제로 운영되는데, 지난 2월 회원총회 때 회원들과 소통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존중하려는 느낌을 받았고요. 다른 단체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모습이지요.



장은림회원

사진을 통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알리고 싶어요

Q>>기운실이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지 의견을 주세요~

A>>힘없고 돈없는 자들을 대변해서 목소리를 내주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세상에 목소리를 내서 알리는 역할이요. 사회도 교회도 물질중심이지 않아요. 여전히 뜻있고 맘있는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다리역할이요~



회원 한마디

2009년 사역평가 설문조사 중

shalom39@dreamwiz.com(30대·남)

기운실에 주요사업들을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참여와 관심이 참 적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매뉴얼이나 전체운동보다는 소규모의 회원참여와 소소한 회원참여 운동들이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참여도 못하면서..^^) 작은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작은 소리가 보다 귀 기울여 듣게 됨으로 도리어 큰 소리가 되는 듯 합니다.

또한 한국교회, 사회적...이라고 하면, 웬지 개인적인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관심은 덜 한듯 한 느낌(?). 아주 작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 재생용지 사용 캠페인(보다 적극적으로), 회사 물건 사용 안하기(짤림!!^^), 자녀들에게 기운실을 소개해 주기 운동(아빠는 기운실 회원이란다...그래서, 거짓말도 안할껀!!, 공정무역소개, 재능기부...등등...

jacob019@hanmail.net(40대·남)

회원으로서 당연히 참가해야 하는 모임들이 많지만 평일시간이 곤란하므로 주말활동을 하였으면 합니다. 일반 회원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지역모임의 활성화를 바랍니다.

7749c@hanmail.net(60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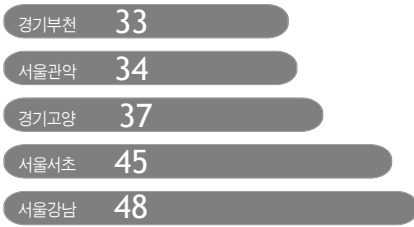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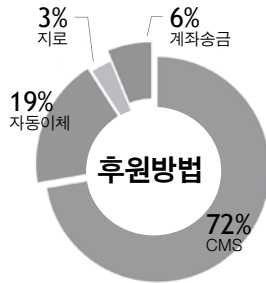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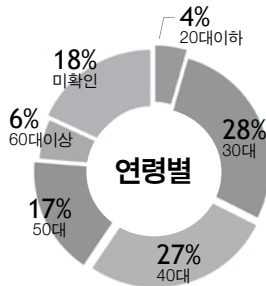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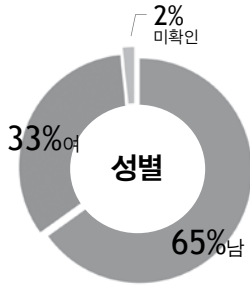
두명이든 세명이든 지역별로 회원들의 활동이 있었으면 합니다.

hyunddt@naver.com(20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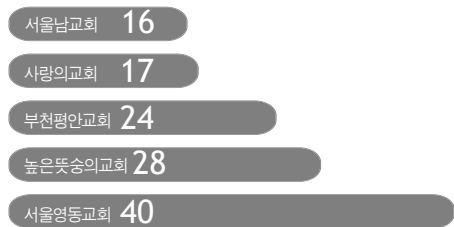
기독교 시민 단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NGO단체와 협력해서 기독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다른 NGO단체에서 인턴이나 자원봉사같은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곳에서 하는 역할들은 지금 대다수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익숙치 않고 무엇보다 가치관이 많이 다르지만 그 속에서 훈련받으며 같이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009년도 회원분석



기윤실회원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



기윤실회원이 가장 많이 출석하는 교회

· 집주소가 없이 직장주소만 있는 경우 직장을 거주지로 판단했습니다.
 · 출석교회의 경우 회원정보에 누락된 경우가 많아 실제와 데이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높은뜻송의교회는 2009년부터 교회가 분리되어 실제 출석교회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개인후원자 연도별 성별비교

	2008년	2009년
남	565명(61%)	522명(65%)
여	321명(35%)	267명(33%)
미확인	36명(4%)	13명(2%)
합	922명	802명

* 개인후원자 연도별 연령비교

	2008년	2009년
20대이하	39명(4%)	36명(4%)
30대	238명(26%)	224명(28%)
40대	235명(26%)	217명(27%)
50대	159명(17%)	135명(17%)
60대이상	56명(6%)	45명(6%)
미확인	194명(21%)	145명(18%)
합	922명	802명

* 개인후원자 연도별 후원방법비교

	2008년	2009년
CMS	608명(66%)	580명(72%)
자동이체	166명(18%)	149명(19%)
계좌송금	78명(8%)	50명(6%)
지로	70명(8%)	23명(3%)
합	922명	802명

* 후원교회·기관 변화추이

	2007년	2008년	2009년
교회	70개(88%)	63개(90%)	63개(86%)
기관	10개(12%)	7개(10%)	10개(14%)
합	80개	70개	73개

정직·책임·정의·평화·배려를 통한 균형있는 성경묵상

정직한 성도·신뢰받는 교회를 위한 30일의 여정

- 01 의사결정시스템
- 02 회원현황
- ☆ 001 30일의 여정
 - 002 대사리
- 03 간사들의 영적성장
- 04 협력과 섬김을 통한 변화

회원 한마디

2009년 사역평가 설문조사 중

stigma50@korea.com(50대 남)
정직한 성도, 신뢰받는 교회를 위한 30일 여정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할 사업이라 생각된다. 이것은 기유실의 기본 이념이 되기 때문이며, 또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덕목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30일 여정’은 한국 교회가 대 사회적인 참된 영향력을 회복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한국 교회는 금세기 놀랍도록 성장하였지만 영향력은 점점 감소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가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적고, 오직 개인 구원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 인식 하에 개인 구원과 사회 참여 사이에 균형 잡힌 신앙을 갖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30일 여정’ 묵상 교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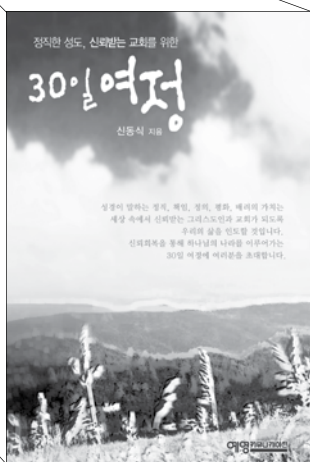
○교재목차

정직과 희망 (정직)	합당한 삶 (책임)	의를 추구하는 삶 (정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평화)	작은 자 하나에게 (배려)
정직과 희망	약속과 책임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의 평화	비방과 판단
거짓의 열매	영적 파수꾼	정의 우선성	세상과 구별된 교회	참된 경건
멀망인가? 영광인가?	가정의 무한 책임	권력의 주인은 하나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작은 자 하나에게
정직 훈련소	살아있는 공동체	성경의 법과 제도	율법의 완성, 이웃 사랑	믿음의 길 섬김의 길
소명과 영광	합당한 삶	사회적 약자 보호	행복한 가정의 비결	하나님의 마음
정직자의 고백	예수님의 초상화	의를 추구하는 삶	마음은 생명의 근원	서로 짐을 지라

○**교재특징** 첫째는 기유실의 모토에 따른 교재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성도, 신뢰 받는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는 목적을 가진 기유실의 가치를 현실 가운데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유실의 모토는 정직, 책임, 정의, 평화, 배려 다섯 가지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치를 좀 더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 묵상에 있어서 보다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5개의 핵심 가치가 하나님과 이웃, 교회와 가정 그리고 직장과 자신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주제에 대하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만들어진 교재는 없었습니다.

셋째는 그룹 공부와 개인 묵상에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개인 묵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그룹에서 토의와 나눔 그리고 특별 집회를 위한 교재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신동식 지음 | 9,000원
에듀커뮤니케이션

정직한성도, 신뢰받는교회를 위한 30일 여정 묵상모임

일시 / 2009년 3월 4일(수) ~ 2009년 4월 8(수)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대상 교회 / 서울남교회

프로그램 1주 / 정직과 희망(정직) 신동식 목사(빛과소금교회 목사)
2주 / 합당한 삶(책임) 김선옥 교수(숭실대 철학과 교수)

3주 / 의를 추구하는 삶(정의) 이상원 교수(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4주 /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평화) 노영상 교수(정신대 신학과 교수)
5주 / 작은 자 하나에게(배려) 김은혜 교수(정신대 기독교문화학 교수)
6주 / 우리 교회 실천 캠페인 만들기 워크숍(현가자들이 직접 교회의 실천 캠페인을 기획)

소수자와 약자를 향한 포용, 배려, 소통의 사회적 리더십

대학생 사회적 리더십 아카데미(대사리)

- 01 의사결정시스템
- 02 회원현황
 - 001 30일의 여정
 - ☆ 002 대사리
- 03 간사들의
영적성장
- 04 협력과 섬김을
통한 변화



대사리는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된 기윤실의 청년교육프로그램입니다.

1. 우리 사회의 소수자, 약자를 불쌍한 자비의 대상이 아닌 나와 동일한 존재로 인식한다.
2. 우리 사회의 소수자, 약자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이해한다.
3. 소수자, 약자들에 대한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한다.
4. 나와 생각, 의견, 종교가 다른 사람도 포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5. 문화적 다양성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올바른 삶의 방식을 이해한다.
6. 사회적 리더십을 실천하기 위한 삶의 계획을 세운다.
7. 기윤실 운동의 비전을 이해하고 소중한 파트너로 기윤실과 함께 동역한다.

나는 대사리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느꼈을까?

대사리들의 짧은 한 마디!

- * 약자와 소수자들을 이해하기 위한 숲길을 걸은 것 같아요..^^ (강지혜)
- * 애통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김나래)
- * 탁월한 길잡이가 되어주신 강사님들에게 얻은 도움과 통찰^^ (김수정)
- * 신앙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불태워 준 계기가 되었어요. (권인호)
- * 타인을 향한 공감의 깊어지는 또 다른 시작! (서정우)
- *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단초를 제공해 준 시간. (신상린)
- * 섬김과 나의 비전을 연결시킬 수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우종진)
- *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답이 되어 준 대사리! (이권규)
- * 소수자를 포함한 더 넓은 세상을 끌어안아야 함을 알았어요. (장일수)
- *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져야 하는지 마중물이 되어 준 대사리! (정보영)
- * 배려란 한 마디로 타인에 대한 포용이란 걸 알았어요^^ (천경화)
- * 소수자를 그들의 입장에서 사랑해야 함을 알았다. (허지훈)



1기 참가자 / 강지혜(사암성결교회), 권인호(함께하는교회), 김나래(서울영동교회), 김수정(잠실중앙교회), 서정우(서울영동교회), 신상린(삼일교회), 우종진(늘푸른교회), 이권규(여의도순복음교회 제2성전), 장일수(동송교회), 정보영(서울영동교회), 천경화 (동송교회), 허지훈(건대 온누리교회)

2기 참가자 / 강영훈(하나.의.교회), 김정윤(한영교회), 배성우(새문교회), 서동욱(복래감리교회), 송승용(서울중앙교회), 임채민(분당우리교회), 장혜리(인천중앙장로교회), 정은영(일산은혜교회), 조진성(광명교회), 황형경(인천중앙장로교회)

대사리 개요

일시
1기 / 2009. 3. 27(금)~5. 30(토)
 (10주간) 매주 금 저녁 7시
2기 / 2009. 8. 28(금)~11. 28(토)
 (13주간) 매주 토 오전10시
장소 / 기윤실 창의상상룸

프로그램
 강의 / 말이 통하는 소통의 리더십(의용 중앙대 겸임교수), 이 시대의 키워드 : 포용과 배려의 리더십(김은혜 장신대 교수), 문화적 다양성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임성빈 장신대 교수), 그리스도인, 당신의 공감능력은? 타자와 공감하기(강영안 서강대 교수), 기독교인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박득훈 연덕교회 목사), 우리 사회의 소수자, 그들이 사는 세상(배용호 장애인편의시설추진 시민연대 사무총장)
현장프로그램 / 다양한 현장 체험하기(장애인, 새터민, 외국인노동자, 노숙인, 다문화가정, 탈성매매 여성, 동성애자 등), 내가 만드는 시민운동 기획안 발표

회원 한마디
 2009년 사역평가 설문조사 중

hosik1520@naver.com(20대 남)
 대사리 교육 프로그램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더 많은 대학생들이 기독교의 사회적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알도록 더 힘써 주십시오^^

dalongss@hanmail.net(20대 남)
 대사리를 통해 올해 처음 기윤실이란 이름을 듣고 몇몇 활동에 참여도 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사업도 관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먼저는 기윤실이 한국교회와 사회의 신뢰회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를 위해 바른 기독교성을 심어줄 수 있는 모임으로 차세대 미래를 준비하는 기윤실의 브랜딩에 크게 도전이 되고 공감이 되었습니다.

대사리 기도 서포터즈

대사리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들은 소수이지만, 이들이 교육받는 동안 열정을 다해 배우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로 지원하고 응원해 주는 서포터즈를 운영했습니다. 실제 아카데미 참여는 연간 22명이었지만, 기도 서포터즈로 연결된 사람은 100명이 넘는 것이지요^^



- 5** 사회적 리더십을 위한 5가지 질문
- 1/ 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는가?
 - 2/ 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섬김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 3/ 소수자, 약자를 위한 희생을 실천하는가?
 - 4/ 얼마나 사회적 약자들과 소통이 가능한가?
 - 5/ 섬김의 실천을 통해 얼마나 내 자신이 변해가고 있는가?

“꿈을 틀다”



대사리 착한(윤리적)여행 보고서

대사리 2기를 중심으로 현장활동프로그램으로 착한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일정

2월 8일(월) 삼각지 집합→여행준비 기도모임(기윤실)→인천항 이동→저녁식사→인천항 출발(18:30)→오하마나호 內 활동(오리엔테이션 공정여행스터디 제주방안배우기)
 2월 9일(화) 제주항 도착(08:30)→아침식사→노꼬메오름, 금산공원 탐방→점심식사→무릉곶자왈 탐방→제주명소1→정리모임, 환경놀이 준비
 2월 10일(수) 아침식사→제주명소2→환경놀이준비→지역아동센터 환경놀이→여행스케치
 2월 11일(목) 성산일출봉(07:22)→아침식사→김영감 갤러리, 해녀박물관-제주공항→김포

여행소감한마디

강영훈 자신이 지나간 땅을 이름게 하는 지렁이처럼 꿈틀대면서 현지의 상황과 현지인의 삶에 대해 책임있는 여행자가 되어보자는 것이 목표였다. 여행을 앞두고 들었던 걱정은 나 아닌 타인까지 염두에 둔 여행을 한다는 것이 여간 벅차고 골치 아픈 일이 아닐 것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행지에서의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 그리고 신뢰와 애정을 기반으로 한 거래는 여행의 참 의미를 깊이있게 고민하며 나아가도록 이끌어줬고 도리어 진정한 섬을 누리는 경험이었다.

김제민 단지 돈을 통해 서비스를 교환하는 여행이 아니라 여행지와 가까워지는 경험을 통해 다른 나라인 것 같이 느껴졌던 제주도를 알아가는 귀한 경험이 되었다.





간사들의 영적 성장 - 신뢰받는 삶을 위한 도전

- 01 의사결정시스템
- 02 회원현황
- 03 간사들의 영적성장
- 04 협력과 섬김을 통한 변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10:43-45)

사명으로서 기운실 운동이 탁월한 열매를 맺도록 활동하는 3가지 중요한 주체가 있습니다. 한 주체는 이사회와 전문가 자원 리더십입니다. 다른 한 주체는 동역교회와 회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주체는 바로 간사입니다.

‘행복한 소가 좋은 우유를 만든다.’는 광고 카피처럼, 기운실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 탁월한 신뢰의 열매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역량을 갖춘 간사들이 요청됩니다. 간사들이 직업의 차원을 넘어서 사명으로서 기운실 사역을 수행하고 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활동의 경험이 더해갈수록 힘이 빠지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4:16)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Renovare).”

이처럼 기운실은 신뢰할 만한 간사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학습과 성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월 독서비를 지원하며 책을 읽는 간사가 되도록 돕고 있으며, 개인과 단체의 필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외부 교육에 참여하여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사역과 관련된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있으며, 연 1회 해외 연수를 통해 간사들의 폭넓은 경험과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운실의 간사들이 늘 의식적으로 깨어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늘 마음에 품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간사들이 의식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운동의 대상과 관련된 2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신뢰의 열매를 온전하게 산출하고 있는가?’ 다른 하나는 ‘우리를 신뢰하는 회원들의 격려와 후원에 온전하게 응답하고 있는가?’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간사 스스로에게 던지는 4가지 성찰적 질문이 있습니다.

- ① 기운실 사역은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삶인가?
- ② 기운실 사역을 위해 내가 가진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아 붓고 있는가?
- ③ 기운실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
내가 가진 창의성과 주도성을 온전히 발휘하고 있는가?
- ④ 지금 여기에서 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사역을 하고 있는가?

운동선수들이 날마다 연습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듯이, 기운실 간사들 또한 위의 4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정직하게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글. 양세진 사무총장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기운실 문화만들기

2009년 기운실 운동을 일선에서 진행하는 간사들이 만들어 내는 문화가 따뜻하고 재밌고 즐거워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기운실 문화만들기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시도했는데, 실제 바쁜 업무가운데 실천적으로 진행된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 잘 실천되고 있는 것이 총장, 부장, 팀장이라는 딱딱한 호칭 대신에 친근한 애칭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애칭사용은 이미 대안학교나 여러 시민단체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리더십센터, CJ, 아모레퍼시픽 등 일반기업에서도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위해 직급을 떼고 'oo님' 또는 애칭을 부르고 있는 곳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운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애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리(양세진), 조이(조재호), 전선(전선영), 다정(윤나래), 메로니카(김효민), 이든(박은애), 흘(김지숙)입니다.

○기운실 문화만들기 연간내용^{^^} 의미있는 이름을 불러 주세요 "애칭 부르기"

^{^^} CFO제도를 아시나요? 재미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 창의상상보고서

^{^^} 한달에 하루는 문화생활을~

○기운실 간사 고용현황(2009년 12월 기준) 기운실은 풀타임으로 일하는 정간사와 업무에 따라 시간제로 협력하는 협동간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간사는 모두 정규직이며, 협동간사는 비정규직입니다.

	직급별	연차	성별		연령		
			남	여	20대	30대	40대
사무총장	1	3	1	0			1
팀장	2	7/4	2	0		2	
간사	3	1/1/1	0	3	1	2	
협동간사	4	5/3/3/1	1	3		4	
합	10		4	6	1	8	1

· GRI G3의 NGO 분야가이드에서는 자원봉사자까지 통계적으로 기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자원봉사자 통계는 데이터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2010년부터는 이 부분의 통계가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시민단체의 특성상 활동하는 임원들은 무보수 비상근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로 개념정리할 수 있으며, 임원들의 구성과 봉사현황은 의사결정시스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이나 급여산정에 있어 남녀간 차이는 없으며, 신입간사의 초봉은 법정최저임금(월 836,000원) 대비 143%(월 1,200,000원)입니다.
· 기타 세부적인 근로기준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작성된 "기운실 업무운영규칙"에 따라 준용하고 있습니다.

* 사무처 간사 연도별 구성현황 추이

	근무형태		성별		이직자	
	정간사	협동간사	남	여	남	여
2007년	5명(55%)	4명(45%)	3명(33%)	6명(67%)	3명	1명
2008년	5명(55%)	4명(45%)	3명(33%)	6명(67%)	0명	1명
2009년	6명(60%)	4명(40%)	4명(40%)	6명(60%)	1명	2명

· 연간 9개월 이상 근무자는 정간사로 산출하였고, 이직자는 연간 이직자 통계입니다.

○간사교육시간

	시간	인원평균	1인당 평균
2008년	1,041시간	7명	149시간(6.2일)
2009년	324시간	6명	54시간(2.3일)

· 2008년의 경우 4박5일 일본연수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숙박을 하는 교육인 경우 하루 8시간만 교육시간으로 인정했습니다.
· 주1회 정기간사회의와 월1회 창의상상발표, 분기별 간사워크숍 시간은 제외한 통계입니다.

*2009년 간사워크숍 일정

회차	일시/장소	주제
1	2009년 1월 5일(월)~6일(화), 서울유스호스텔	2009년 사업계획
2	2009년 3월 16일(월), 기운실 회의실	2009년 홍보전략
3	2009년 8월 14일(금), 달개비	하반기 사업전략 1
4	2009년 9월 3일(목), W-ing	하반기 사업전략 2
5	2009년 11월 17일(화), 덕수교회	의사소통

○간사복지현황(1~2번은 정간사에 한함, 2009년 기준)

-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미래에셋)
- ② 연 1회 종합건강검진 실시
- ③ 월 5만원 도서비 지원
- ④ 법정 출산휴가 실시
- ⑤ 월 1회 문화활동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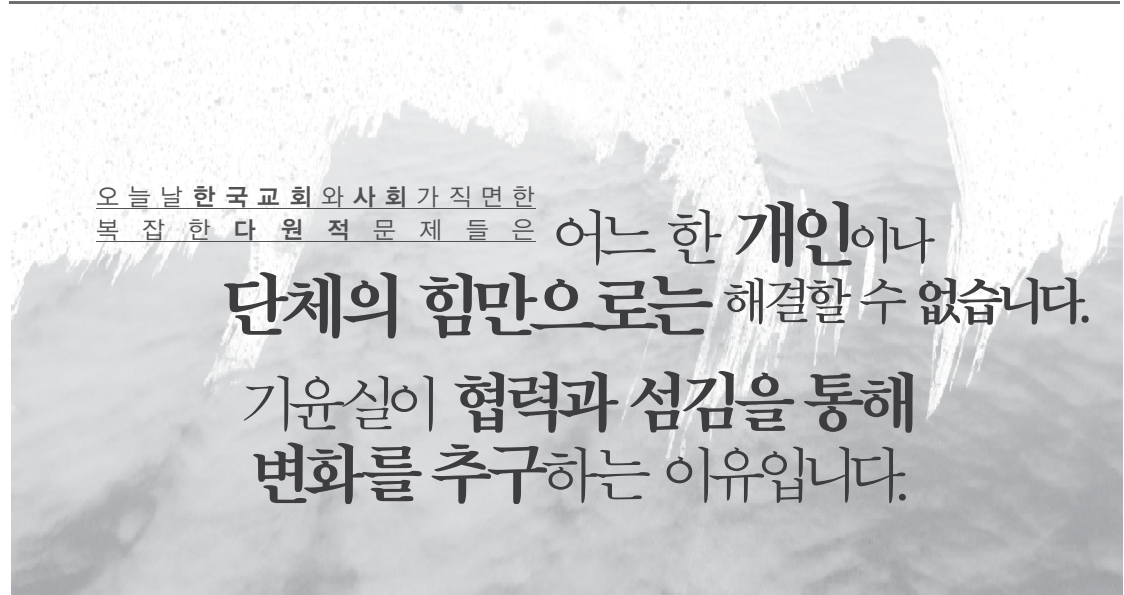


협력과 섬김을 통한 변화

- 01 의사결정시스템
- 02 회원현황
- 03 간사들의 영적성장
- 04 협력과 섬김을 통한 변화

기윤실은 기독교시민운동단체의 모태로서 지난 22년 동안 수많은 시민운동단체의 설립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해 왔으며, 여러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 부산, 울산, 익산, 전주, 진주, 청주, LA, 워싱턴에 기윤실 네트워크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제	일시/장소	공동주최	강사
교인들의 "입시·사교육" 고민, 목회적 대안은 무엇인가?	4/28(화) 오후2시 영락교회 50주년기념관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좋은교사운동	방선기 목사, 박재원 소장, 박상진 교수, 정병오 대표
건강한 사역공동체 세우기 세미나	10/13(화) 오후6시 명동 청어람	한빛누리, 기윤실, Young2080	임성빈 교수, 브라이트캠프 운영위원
2009 교회 재정 세미나 예산(豫算)의 정석(定石)	11/13(금) 오후2시 명동 청어람	교회개혁실천연대, 기윤실, 나눔과섬, 바른교회 아카데미, 한빛누리	황호찬 교수, 최호윤 회계사, 황병구 본부장
자살예방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11/19(목) 오후2시 국회 도서관	사회정의시민행동, 불교인권위원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오경환 신부, 백도수 교수, 이영문 교수, 신동식 목사
백종국 교수의 "한국 자본주의의 선택" 출판기념 저자 특강	12/3(목) 오후6시 명동 청어람	교회개혁실천연대, 기윤실, 공정연대, 성서한국, 청어람아카데미	백종국 교수
" 강영안 교수의 십계명 강의 " 출판기념 강연회	12/16(수) 오후7시 명동 청어람	기윤실, IVP, 청어람아카데미	강영안 교수



2009성서한국, 기윤실 간사들이 떴다~



2009 성서한국 전국대회
주제 / 회심2.0
일시 / 2009년 8월 3일(월)~7일(금)
장소 / 명지대 용인캠퍼스

회심 2.0을 주제로 열린 2009 성서한국에 투입된 기윤실 간사 5명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였을까? 그들의 24시를 따라가 보자.

날, '생활영성' 교사로 뛰다!

2009 성서한국의 꽃으로 불린 영역별 소그룹활동에 '생활영성' 교사로 합류하여 10여명의 대학청년들의 오후시간을 책임졌다. 뿐만 아니라 성서한국 공식신문 '회심의 미소' 미투토피에 여러번 글이 실리는 활약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 낮은 교회청년들과 동거동락하다!

기윤실의 10대 간사, 이들은 성서한국의 일반신청자로 등록하여 성서한국의 A부터 Z까지를 참석하며 성서한국의 구석 구석을 누볐다. 첫날 다른 간사님들이 교사로 스텝으로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홀로 있음을 걱정하였으나 곧 한방 언니와 그녀의 교회청년들과 어울리며 사교성을 증명해 보였다.

조이와 느낌, 그리고 홀~ 밤마다 뉴스레터를 발송하다!

성서한국 매체국스텝으로 참여한 이들은 아무도 시키지 않은 성서한국 1일 뉴스레터를 제작, 발송하였다. 집회가 끝나는 11시경이면 이들은 어김없이 한 방에 모여 그날의 집회스케치와 뉴스를 정리하여 성서한국 관심자와 중보자들에게 보냈다. 대회 내 소통을 위한 '미투토피', 대회 외 소통을 위한 '블로그운영 거기다 뉴스레터 발송까지...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을 그들끼리 신나서 했다는 후문이 들려 온다.

기독교단체들의 자발적 섬김과 연합으로 꾸러지는 성서한국!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이들의 수고가 눈에 보이시나요^^

기윤실 운동을 통해 설립된 단체

- 1990년 음란·폭력성 조정매체 대책시민협의회(음대협)
- 1994년 낙태반대운동연합
- 1995년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 1999년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국감시민연대)
- 1999년 기독교법률가회(CLF)
- 2002년 교회개혁실천연대
- 1999년 좋은교사운동
- 2003년 도박산업규제와개선을위한 전국네트워크
- 2000년 공의정치실천연대
- 2005년 놀이미디어교육센터(놀이터)
- 2001년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 2007년 크리스천라이프센터
- 2010년 교육봉사단 씨드스쿨

기윤실이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연대기구

- 교회재정건강성연대, 성서한국,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유엔글로벌컴팩트한국협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2009 기윤실 네트워크 전국 실행위원 수련회

주제 /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일시 / 2009년 8월 21일(금)
오후5시-22일(토) 오후1시
장소 / 부산유스호스텔 아르파나(해운대)
참석 / 기윤실 네트워크 실행위원, 간사 25명
장면 / 백중국 공동대표(진주), 임성빈 공동대표(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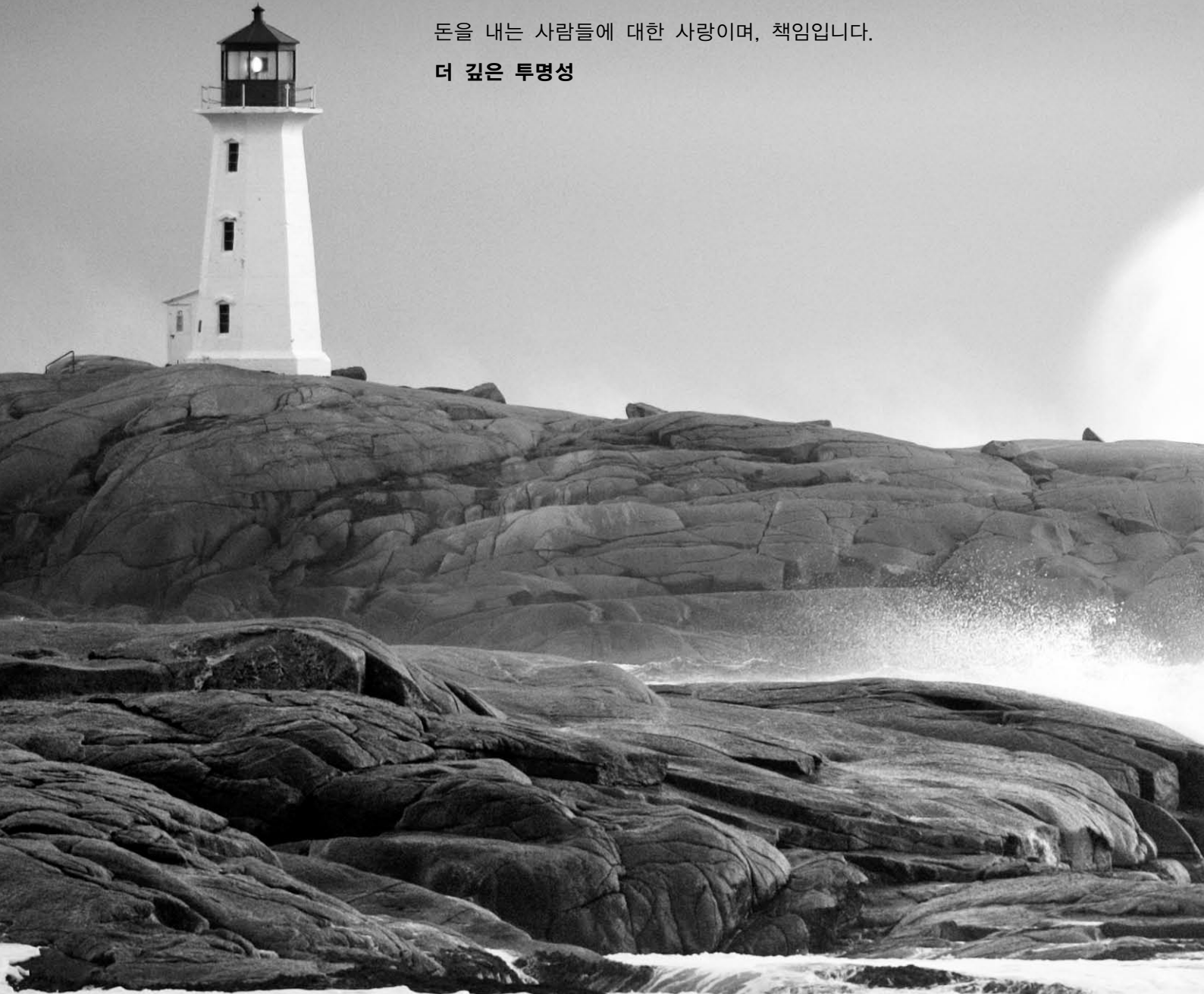


재무적관점 Economic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우리에게 돈은 숫자가 아닙니다.

돈을 내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며, 책임입니다.

더 깊은 투명성





1. 비전

기운실은 100% 회원의 회비를 통해 운영경비를 채워나갑니다.

2. 전략방향

기운실을 위해 애정 어린 기도와 재정적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들의 마음에 합당하게 책무를 다해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가?

재정적인 안정화와 투명한 운영을 넘어 적합한 사업에 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

3. 주요성과

580명 개인후원자 중 CMS 후원자(72%)

802명 2009년 1회 이상 후원한 개인후원자

73개 2009년 1회 이상 후원한 교회(기관) 후원자

4억 7천여만원 2009년 결산(475,539,094원)

3천 7백여만원 2009년 당기순자산의 증가(37,267,274원)

4. 2010년 계획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장기후원자 서비스 실시
- 운영경상비 후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 핵심/주요사업별 예산집행내역 공개

재정투명화 노력

- 01 재정투명화 노력
- 02 재정변화 추이
- 03 2009년도 회계감사보고

1/ 기윤실은 재정 투명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① 모든 후원금은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 ② 매달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소식지,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 ③ 연 1회 이상 외부 공인회계 감사를 받고,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 ④ 정부나 기업으로부터는 단체운영이나 인건비 명목의 후원은 받지 않습니다.
단, 단체의 사명 실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업비 명목의 후원은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⑤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허위로 하거나, 차명으로 하지 않습니다.

2/ 기윤실은 재정투명성의 일환으로 지난 1999년부터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 1998년부터 황호찬 교수(세종대 경영학과, 공인회계사)를 통해 외부감사를 받기 위한 사전 준비시작
- 1999년 가립회계법인(대표이사 최상훈)
→ 2000년 3월 22일 수요일 국민일보 결산공고 *
- 2000년 가립회계법인(대표이사 최상훈)
- 2001년과 2002년은 내부사정으로 외부회계감사 실시하지 못함.
- 2003년 송현회계법인(대표이사 이민)
- 2004년 제일회계법인(대표이사 범진덕)
- 2005년 제일회계법인(대표이사 범진덕)
→ 나눔과섬 프로그램 사용을 시작으로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전환
- 2006년 제일회계법인(대표이사 이상호)
- 2007년 제일회계법인(대표이사 이상호)
- 2008년 가립회계법인(대표이사 최상훈·박개성)
- 2009년 가립회계법인(대표이사 박개성)



* 2006년 회계감사보고서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기윤실 운동은 회원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01 재정투명화 노력
- 02 재정변화 추이
- 03 2009년도
회계감사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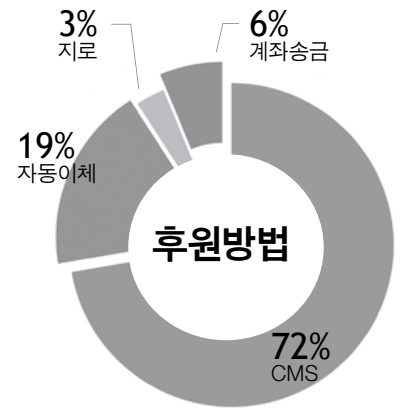
기윤실 운동은 정부나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단체 회원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윤실은 2009년 정부나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수입 중 100%를 후원금을 통해 충당했습니다.

특히, 개인 후원자 중 91%가 CMS와 자동이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회원으로
여타 시민단체와 비교하여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22년 동안 한결같은 후원과 기도로 함께 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기윤실은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안정적 재정구조를 바탕으로
한국교회와 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응답하는
서포터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후원자 변화추이

	2007년	2008년	2009년
정기후원자	852명(88%)	774명(84%)	729명(91%)
비정기후원자	111명(12%)	148명(16%)	73명(9%)
합	965명	922명	802명

정기후원은 후원이 예측되는 CMS와 자동이체이며, 비정기후원은 계좌이체와 지로입니다.

○ 요약 운영성과표 (단위: 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수입	397,423,009	406,984,196	537,383,024	384,769,102	475,539,094
지출	434,917,896	433,220,867	428,262,088	376,341,345	438,271,830
순자산의 증감	-37,494,887	-26,236,671	109,120,936	8,427,757	37,267,274

○ 요약 재무상태표¹ 대차대조표 (단위: 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자산총계	110,759,911	96,389,700	175,909,901	186,799,252	207,621,963
유동자산	13,206,762	20,867,732	89,680,013	61,218,903	91,861,353
고정자산	97,553,149	75,521,968	86,229,888	125,580,349	115,760,610
부채총계	42,728,413	53,393,239	23,792,504	26,254,098	9,809,545
유동부채	5,261,695	31,761,112	1,095,041	3,210,497	3,264,369
고정부채	37,466,718	21,632,127	22,697,463	23,043,601	6,545,176
순자산총계	68,031,498	42,996,461	152,117,397	160,545,154	197,812,418
기본금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적립금	128,138,847	128,138,847	-	-	-
잉여금	-105,107,349	-130,142,386	107,117,397	115,545,154	152,812,418

재무상태표

제19기 2009년12월31일현재
제18기 2008년12월31일현재

단체명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 단위 : 원

- 01 재정투명화 노력
- 02 재정변화 추이
- 03 2009년도
회계감사보고

☞ 2009년 회계감사는 2010년 1월 14(목)부터 15일 (금)까지 진행됐으며, 감사기관인 가립회계법인(대표이사 박개성)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과 200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현금흐름의 내용을 법인의 정관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감사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과목	당 기(2009년)	전 기(2008년)
I.자산	207,621,963	186,799,252
1.유동자산	91,861,353	61,218,903
가.당좌자산	91,861,353	61,218,903
(1)현금	1,082,370	558,430
(2)예금	87,557,533	56,066,143
(3)선급금	2,633,050	-
(4)선납세금	588,400	594,330
(5)단기대여금주 *1)	-	4,000,000
2.고정자산	115,760,610	125,580,349
가.사용제한자산	45,415,790	63,445,129
(1)간사연수적립금	-	269,010
(2)기본금적립금	45,115,790	45,374,888
(3)기타보증금	300,000	300,000
(4)보금자리적립금	-	10,001,231
(5)영상사업적립금	-	7,500,000
나.유형자산	70,344,820	62,135,220
(1)차량운반구	6,000,000	6,000,000
(2)비품	64,344,820	56,135,220
II.부채	9,809,545	26,254,098
1.유동부채	3,264,369	3,210,497
(1)미지급금	465,932	1,654,180
(2)예수금	2,798,437	1,556,317
2.고정부채	6,545,176	23,043,601
(1)장기차입금주 *2)	-	20,000,000
(2)고유목적사업준비금	6,545,176	3,043,601
III.순자산	197,812,418	160,545,154
1.기본금(영구적제약)	45,000,000	45,000,000
2.잉여금(무제약)	152,812,418	115,545,154

*1) 단기대여금은 400만원은 2000년 '공의정치포럼(현 공의정치실천연대)'에 대여한 금액을 2009년 2차 이사회(2009년2월10일) 의결을 통해 정리한 것입니다.

*2) 장기차입금 2,000만원은 1990년 초반 기윤실이 사무실 전세금으로 아시아미션에서 차입한 금액이 10년 이상 회계장부에 부채로 남아 있었던 것을 아시아미션의 배려로 후원금 처리되어 정리한 것입니다. 아시아미션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외부회계감사기관의 건의사항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회 귀중

본 감사인은 200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성과표 및 수지결산서를 감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의 개선을 건의하오니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법인')의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물조사 실시** (※ 3월 중 실시하여 정리할 예정)
법인은 자산의 실재성을 파악하기 위해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불용처리 된 유형자산은 폐기손실로 계상함으로써 재무상태표상 자산을 적정하게 관리 및 계상하여야 합니다.
2. **지역기윤실 관계설정** (※ 하반기에 지역기윤실과 협의 를 통해 논의 할 예정) 지역기윤실이 관할사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서 통장관리 및

4대보험 신고 등 회계 및 세무상 처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 바랍니다.

3. **수지결산서의 공시** (※2010년 1월부터 반영하여 시행 중)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은 자금의 수입 및 지출과 전월이월 및 차월이월금액이 보고되는 수지결산서를 보고하고 있으므로 당 법인은 소식지에 운영성과표가 아닌 수지결산서를 주 재무제표로 공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사항은 일부 요약한 것입니다.

운영성과표

제19기 2009년12월31일현재
제18기 2008년12월31일현재

단체명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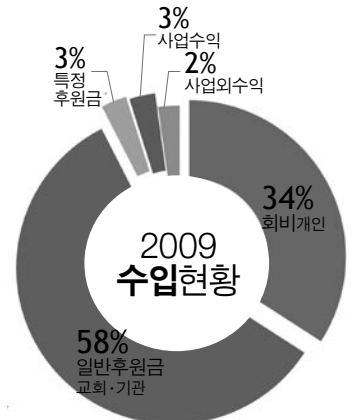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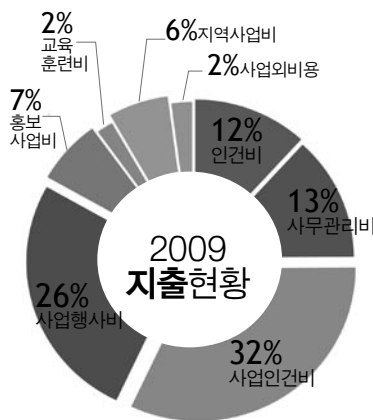
- 01 재정투명화 노력
- 02 재정변화 추이
- 03 2009년도 회계감사보고

수 입			지 출		
계정과목	2009년	2008년	계정과목	2009년	2008년
I. 사업수익	465,012,600	373,239,840	I. 사업비용	428,957,332	369,782,480
1. 회비	162,237,800	152,837,400	1. 인건비	51,618,704	64,350,792
(1)회원회비	110,067,000	115,907,400	(1)급여및상여	42,487,500	52,735,000
(2)이사회비	31,258,800	17,710,000	(2)협동간사사례비	-	2,600,000
(3)지역회비	20,912,000	19,220,000	(3)퇴직급여	9,131,204	9,015,792
2. 일반후원금	277,574,800	122,880,000	2. 사무관리비	57,543,175	54,222,508
(1)교회,기관후원금	277,574,800	122,530,000	3. 사업비	319,795,453	251,209,180
(2)간사후원금	-	350,000	가.사업인건비	140,776,286	81,507,500
3. 특정후원금	12,500,000	93,272,440	나.사업행사비	114,616,130	70,199,728
(1)개인후원금	-	4,056,000	(1)회의비	12,029,233	4,857,562
(2)특정목적후원금	12,500,000	89,216,440	(2)행사비	80,123,807	49,393,800
4. 사업수입	12,700,000	4,250,000	(3)교육행사비	12,966,440	5,405,210
(1)사업후원금	9,300,000	600,000	(4)회원사업비	409,900	181,800
(2)등록비	3,400,000	3,650,000	(5)모금행사비	248,930	-
II. 사업외수익	10,526,494	11,529,262	(6)대외행사분담금	8,837,820	10,361,356
(1)이자수익	6,545,176	5,634,471	다.홍보사업비	30,009,417	46,733,728
(2)자료판매비	443,000	617,000	라.교육훈련비	7,429,400	27,084,459
(3)노동부지원금	-	1,922,790	마.지역사업비	26,964,220	25,683,765
(4)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3,043,601	2,697,463	II.사업외비용	9,314,498	6,558,865
(5)잡수입	494,717	657,538			
수입총계	475,539,094	384,769,102	지출총계	438,271,830	376,341,345
당기순자산의감소			당기순자산의증가	37,267,264	8,427,757

본 운영성과표는 기립회계법인의 감사를 거친 검증된 데이터를 일부 요약한 것입니다.

2009년 후원금 중
일시후원으로
가장 많이 후원받은
5대 후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씨드스쿨 : 높은뜻교회연합
- 2/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 : 지구촌교회
- 3/ 씨드스쿨 : 소망교회
- 4/ 씨드스쿨 : 지구촌교회
- 5/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포럼 : 지구촌교회





환경적관점

Environmental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작은 실천의 시대.

더 맑고 푸른 환경을 위하여.

더 넓은 공공성



1. 비전

환경단체보다 더 환경적인 내부운영을 지향합니다.

2. 전략방향

환경전문단체가 아닌 기윤실은 환경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어 우리가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을 실행하고 있는가?
선언적인 구호로 끝나는 환경운동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을 제시하고 있는가?

3. 주요성과

9,3그루 기윤실 내 재생종이 사용을 통해 살린 나무 수
(30년생 원목 기준)

4. 2010년 계획

- 재생종이 사용 캠페인의 외부성과 보고
- 윤리적인 먹거리운동 전개

환경단체보다 더 재생종이를 이야기하다

- 01 환경이슈
- 02 재생종이 사용 캠페인



사진출처
www.expressmarketingdesign.com
www.greenpeace.org
www.npb.or.jp

2009년 기운실은
 재생종이 사용을 통해
 9.3그루의 나무를
 살렸습니다.



30년생 원목 1그루가
 생산하는 종이량은 A4
 기준 약 10,000장입니다.

2008년, 기운실은 신뢰운동을 전개하면서 기운실이 먼저 신뢰받는 시민단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1987년 세계환경발전위원회에서 나온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더욱 심도 있게 공부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고, 그 후 기운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무처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기로 다짐하며, 에코오피스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재생종이에 대한 정보가 기운실 내에 쌓이면서 어느 단체보다 종이사용량이 많은 교회들이 주보나 복사용지뿐만 아니라 재생종이로 바꾼다면 어떻게 하는 상상을 가지고, 재생종이 사용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혹자는 윤리단체인 기운실이 왜 재생종이 사용 캠페인에 열심이나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지구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은 환경전문단체만의 몫이 아니고, 각각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프로야구기구(NPB)는 스포츠단체이지만, 2008년부터 CO₂ 절감을 위한 '그린베이스볼 프로젝트'를 발족해서 경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야간경기가 많은 야구의 특성상 조명의 전력소비를 강력히 억제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실제 2008년에는 2007년 대비 6분을 단축하여 218kWH을 절감했는데,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약 105t, 밤나무 묘목을 275만 그루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지구를 지키고자 하는 환경운동은 시민단체, 기업, 국가를 불문하고 참여해야 할 과제입니다. 교회들은 환경운동을 어렵게 생각하거나, 어떤 것부터 실천해야 할지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교회에서 늘 사용되고 있는 종이를 재생종이로 변경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손쉽게 환경운동을 실천하며 지구환경을 보전하는 것에 참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운실 내부적으로는 아직 환경운동 이슈 중 종이를 중심으로 한 것 외에는 실천이 미비하지만, 재생종이 사용과 종이컵 사용안하기를 시작으로 CO₂ 절감을 위한 실천적인 활동을 폭넓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기운실 재생종이 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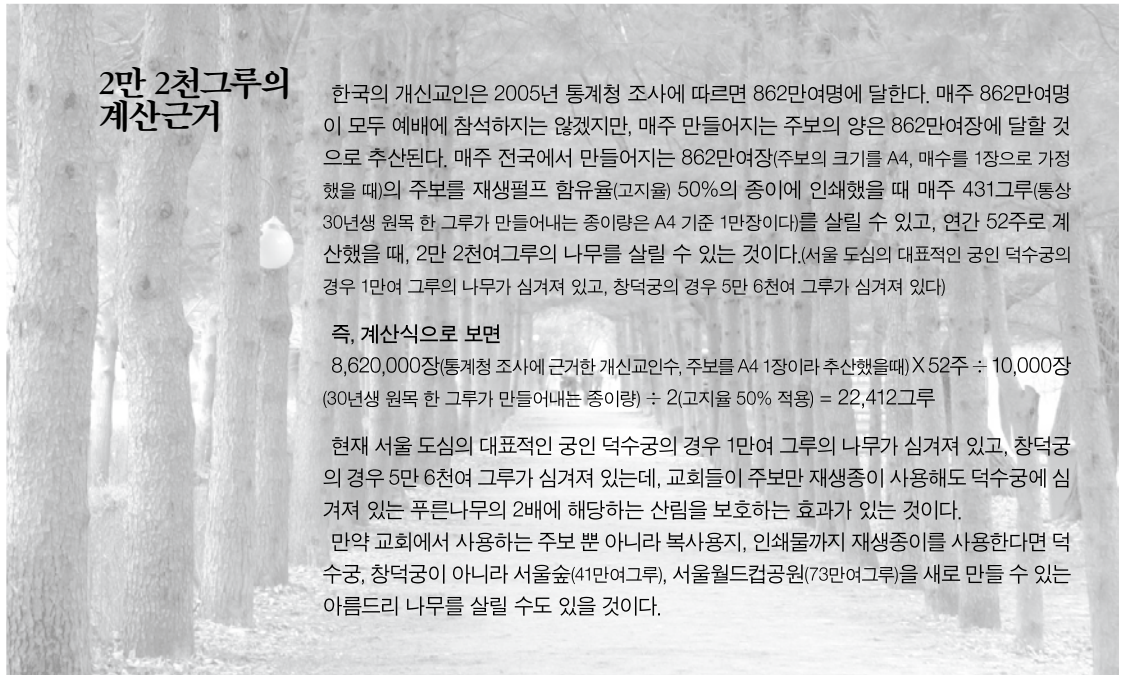
	2008년		2009년	
	일반	고지율 적용(50%)	일반	고지율 적용(50%)
총 종이사용량	계산 못함		199,014장	
재생종이사용량	약60,000장	30,000장	186,174장	93,087장= 9.3그루
재생종이사용비율			94%	46.77%

- 단위는 모두 A4로 환산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 기운실이 사용하는 종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사용지(프린트/복사): A4 - 재생복사용지 사용 / A3 - 중질만화지를 A3로 제단하여 사무실 복사기에서 사용 = 55,000장
 2. 소식지: 격월로 1,200부 인쇄(가로 180mm, 세로 225mm, 24쪽), 별첨문서인 후원자명단 1,000부 인쇄(A4 1장) = 51,800장
 3. 각종 자료집: A4와 B5 사이즈로 수시 인쇄. 재생종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통 인쇄날짜보다 하루 이틀이 더 필요한데, 마감에 쫓기는 경우가 아니면 재생종이를 미리 주문하여 인쇄함 = 81,414장
 4. 부정기적으로 인쇄하는 홍보브로슈어, 명함 등도 재생종이에 인쇄 = 10,800장
- 기운실이 사무실과 행사 때 종이컵을 자제하고 머그컵 또는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별도로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 재생종이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이사용을 최소화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운실은 프린트를 할 때 양면인쇄(임대복사기에 양면인쇄기를 설치하여 사용)와 이면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후보만 재생종이 사용해도 연간 2만 2천 그루의 나무를 살릴 수 있습니다.

- 01 환경이슈
- 02 재생종이 사용 캠페인

재생종이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재생종이에 대한 편견 아닌 편견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재생종이의 은은한 미색을 '누런종이'로 표현하며 예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갈색빛 나무를 원료로 하는 종이가 푸른빛을 띄는 백색종이로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화학적 인공적 노력을 들여야 하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 속에 환경오염의 보이지 않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나무줄기를 이용해 종이를 만들기 시작한 역사는 150여년! 숲에서 벌목하는 나무의 42%가량은 펄프의 원료로 사용되며 이 펄프는 종이의 원료가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종이이지만 이 종이로 인해 지구전체 원시림의 2/3가 훼손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새 하얀 종이를 보고 무덤덤해서는 안 될 일이겠죠! 재생종이의 은은한 미색을 아름답게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한국교회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만 2천그루의 계산근거

한국의 개신교인은 200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862만여명에 달한다. 매주 862만여명이 모두 예배에 참석하지는 않겠지만, 매주 만들어지는 후보의 양은 862만여장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매주 전국에서 만들어지는 862만여장(후보의 크기를 A4, 매수를 1장으로 가정했을 때)의 후보를 재생펄프 함유율(고지율) 50%의 종이에 인쇄했을 때 매주 431그루(통상 30년생 원목 한 그루가 만들어내는 종이량은 A4 기준 1만장이다)를 살릴 수 있고, 연간 52주로 계산했을 때, 2만 2천여그루의 나무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공인 덕수궁의 경우 1만여 그루의 나무가 심겨져 있고, 창덕궁의 경우 5만 6천여 그루가 심겨져 있다)

즉, 계산식으로 보면

$8,620,000 \text{장(통계청 조사에 근거한 개신교인수, 후보를 A4 1장이라 추산했을때)} \times 52 \text{주} \div 10,000 \text{장(30년생 원목 한 그루가 만들어내는 종이량)} \div 2 \text{(고지율 50\% 적용)} = 22,412 \text{그루}$

현재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공인 덕수궁의 경우 1만여 그루의 나무가 심겨져 있고, 창덕궁의 경우 5만 6천여 그루가 심겨져 있는데, 교회들이 후보만 재생종이 사용해도 덕수궁에 심겨져 있는 푸른나무의 2배에 해당하는 산림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만약 교회에서 사용하는 후보 뿐 아니라 복사용지, 인쇄물까지 재생종이를 사용한다면 덕수궁, 창덕궁이 아니라 서울숲(41만여그루), 서울월드컵공원(73만여그루)을 새로 만들 수 있는 아름드리 나무를 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1. 재생종이란?

재생종이는 말 그대로 버려진 종이를 모아 되살리는 종이입니다. 일반 종이가 나무에서 섬유소를 뽑아 만든 펄프로 만들었다면, 재생종이는 폐지를 그 원료로 합니다. 재생종이가 모두 100% 폐지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실제 100% 재생종이는 품질이나 가격 등의 문제로 구하거나,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생종이 함유율(고지율이라고도 합니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율 50%라면 이 종이에는 재생종이가 50% 사용되었지만, 나머지는 재생종이가 아닌 목재펄프나 비목재펄프가 사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보통은 목재펄프만 사용 됩니다. 비목재펄프가 사용된 경우는 아주 고가의 수입지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지율이 높을수록 좋지만, 재생종이를 처음 사용하는 입장이라면 고지율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재생종이가 함유되어 있는 종이를 사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재생종이 Q&A 모음

재생 종이 Q&A 모음



2. 사용 전 고지와 사용 후 고지??

사용 전 고지는 제지사에서 종이를 만들고 가공을 하면서 버려지는 쪼가리를 다시 모아 사용한 것을 의미하고, 사용 후 고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폐지수거를 통해 만들어진 재생종이를 나타냅니다. 기윤실 소식지는 표지는 사용 전 고지 55%, 내지는 사용 후 고지 60% 이상의 종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생종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재생종이의 경우 앞서 이야기 했듯이 일반적으로 재생종이 함유율이 높을수록 누런 색깔을 띠고, 종이질이 떨어집니다. 물론, 폐지에도 등급이 있기 때문에 깨끗한 폐지를 사용한다면, 공정에 따라 고지율이 높으면서도 희고, 종이질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격이겠지요? 우리가 흔히 인쇄에 사용하는 종이가 모조지인데, 모조지와 가격이 비슷하면서도 수급에 문제가 없어야 재생종이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윤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생종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목록은 기윤실에서 여러번에 걸쳐 인쇄에 사용해 본 것으로 수급에 문제가 없으면서(대다수 재생종이의 경우 이윤문제로 인해 일정수량 이상이 되어야만 구매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적으로 일반종이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거나, 더 저렴한 재생종이들입니다. 일반종이와 가격이 비슷하면서 수급에 문제가 없는 재생종이를 더 조사해서 계속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이름	고지율	특징	기윤실사용
인쇄용	중질만화지(80g)	사용 후 고지 60% 이상	본문종이용으로 사용	①, ③
	양코르지(130g)	사용 전 고지 55%	표지종이나 브로슈어용으로 사용	①, ③, ⑤
	친환경복사용지(75g)	고지율 40%	일반복사용지와 품질차이 없음	④
명함	스코틀랜드(220g)	고지율 70%	명함인쇄소에 제공하는 재생종이	②

4. 재생종이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환경에 나쁜 것은 아닌가요?

재생종이 공정 또한 수거/탈묵 단계를 제외하고는 일반종이 공정과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와 물을 사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종이쓰레기를 매립, 소각하면 더 큰 오염물질들을 만들 수 있고, 그만큼의 나무를 벌목하고, 가공해서,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종이를 재활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환경에 더 유익이 됩니다.

5. 재생복사용지는 복사기에 자주 걸리지 않나요?

시중에서 A4나, B4사이즈로 제단되어 판매되고 있는 재생복사용지는 엄밀하게 구분하면, 평량이 50~60g/m²의 '중질지', '갱지와 75g 이상의 '친환경 복사용지'가 있습니다. 중질지와 갱지의 경우 고지율이 더 높고, 저렴한 재생종이지만, 일반복사기에서 사용할 경우 적은 평량으로 인해 걸림, 휨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복사용지'는 평량이 75g 이상이기 때문에 일반복사기에서의 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복사기의 성능에 확신이 없을 경우 평량이 75g 이상인 '친환경복사용지'를 구매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재생종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종이에 비해 비싼가요?

재생종이의 경우 고지율 함유율이 높을수록 누런색깔을 띠고, 종이질이 떨어집니다. 다만, 고지율이 높으면서도 희고, 종이질이 좋을 수 있는데, 그런 종이들은 주로 수입재생종이로 고가입니다. 기윤실이 추천하는 재생종이(만화중질지, 양코르지, 재생복사용지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조지나 레자크지, 복사지에 비해 구입처,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더 저렴합니다.



이미지출처
네이버블로그 펭귄의 응감한 도전
<http://blog.naver.com/penguining>

7. 재생종이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재생종이(복사용지)는 일반종이에 비해 어둡고, 섬유소가 짧게 끊어져 있기 때문에 컬러인쇄(복사)의 경우 색채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거나, 고속/고열 복사의 경우 걸림 또는 휨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지율 100%의 재생종이가 아니고, 평량 70g 이상의 재생종이를 사용한다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흰 종이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더 큰 어려움이라 하겠습니다.

8. 교회 사무실 A4를 재생복사용지로 바꾸기

모든 교회, 단체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A4복사용지를 재생복사용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보통 모든 교회 사무실에서 출력용이나 복사용으로 사용되고, 작은 교회의 경우 복사용지에 주보를 복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생복사용지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는 불가능하고, 성림몰(<http://sunglimmall.net>)과 곰두리몰(<http://gom.or.kr>)에서 친환경복사용지라는 이름으로 A4와 B4 구매가 가능합니다. 옥션 등에서도 친환경복사용지로 검색하면 판매하는 곳이 나옵니다. 단, 이 경우 재생종이를 이용한 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9. 기획사와의 작은 전쟁! 주보와 헌금봉투 바꾸기

교회 복사용지를 재생복사용지로 변경했다면 이제 주보와 헌금봉투도 재생종이로 변경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의 경우 기획사나 인쇄소에 의뢰해서 주보나 헌금봉투를 인쇄하게 되는데, 보통 기획사나 인쇄소의 경우 재생종이 사용을 꺼립니다. 이때 그냥 재생종이를 사용해서 인쇄해 달라고 요청하기보다 본 안내서 2페이지에 있는 재생종이 이름을 거명하면서 인쇄를 요청하면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인쇄수량이 너무 적거나, 인쇄를 급박하게 요청하시는 경우, 지역에 따라 수급 문제로 인해 재생종이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하기 어렵거나, 인쇄하기 어렵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주보를
재생종이로 변경해서

**살릴 수 있는 나무를
계산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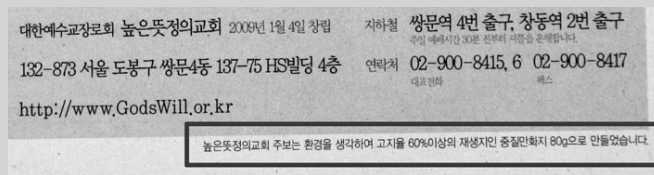
30년생 원목 1그루가 생산하는 종이량은 A4 기준
약 10,000장입니다. 이를 기본으로 계산합니다.

인쇄부수 × A4 변환 장수(사이즈를 대략 A4에 맞춰 계산합니다)
× 52주 × 60%(재생종이 함유율) ÷ 10,000장
(원목1그루가 만들어내는 종이량) = 00그루

예) 매주 A4 4장 분량의 주보를 500부 인쇄하는 교회가 한해 살릴 수
있는 나무 500부 × 4장 × 52주 × 60% ÷ 10,000장 = 6그루

☐ 기윤실에서는 재생종이 샘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전국 500여 교회에 일괄적으로 샘플을 발송했으며, 아래 명단은 기윤실에 직접 연락을 주셔서 샘플을 받아보신 교회명단입니다.
가향공동체교회 감동교회 광주다일교회 그분의회교회 극동방송 나눔N교회 난정교회 대전명성교회 동광교회 바울의교회 부산다대중앙교회 부산우리교회 부평신촌성결교회 EBM포럼 새누리2교회 새문안교회대학부 새생명교회 사론교회 성진감리교회 소망중앙교회 순복음성서화운동본부 순복음신동산교회 실로암비전교회 우리교회 우리소망교회 은천교회 은천제일교회 은혜의교회 의정부열린교회 이문동교회 인천동산교회 잠실중앙교회 장충단성결교회청년부 전주제자교회 정신사랑의교회 종교교회 천안남산교회 청학영락교회 춘천성서화운동본부 늘사랑교회 준포교회 중만성결교회 코람테오 포항참된교회 폴샘교회 하당제일교회 한샘교회 행복누리교회 화성YMCA두바퀴로꿈원사업단 후암교회(가나다순, 2010년 2월 기준)

☐ 재생종이를 사용할 경우 어떤 종이를 사용했는지 표기해 주세요.



기윤실은 재생종이를 사용할 경우 어떤 종이를 사용했는지 꼭 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사용할 수 있는 재생종이는 보통 자주 볼

수 있는 종이 아니고, 사용하려고 해도 어떤 종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가끔 재생종이를 보고, 사용하려고 해도 어떤 종이인줄 모르면 사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종이 어떤 재생종이 인줄만 알라도 실제 사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높은뜻정의교회는 주보에도 친절히 어떤 종이를 사용했는지 표기하고 있습니다.



부록 Appendix

GRI G3 Index

● 보고 ○ 일부보고 ○ 보고안함 N/A(Not Applicable) 해당없음

- 01 GRI Index / NGOSS
- 02 섬기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후원자명단
- 03 2009년 기윤실 일정
- 04 2009년 발간자료목록

지표	보고수준	보충설명	페이지
전략 및 분석			
1.1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보고 조직 및 전략과 지속가능성의 연관성을 밝힌 선언문	●	6
1.2	주요 영향, 위험 요인 및 기회에 대한 기술	●	15,33,49,55
조직 프로필			
2.1	조직 명칭	●	8
2.2*	대표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	8, 18, 19
2.3*	주요 사업부서, 운영회사, 자회사, 합작 회사를 비롯한 보고 조직의 조직 구조	●	34
2.4	본사/본부 소재지	●	8
2.5	보고 조직이 영업 중인 국가 수, 주요 사업장이 있거나 보고서에서 다루는 지속가능성 문제와 구체적인 연관성을 갖는 국가명	N/A	
2.6*	소유 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	8
2.7*	대상 시장	●	8
2.8*	보고 조직의 규모	●회원, 재정, 참여인원	40, 51, 68
2.9	보고 기간 중 규모, 구조 또는 소유 구조상의 중대한 변화	●없음	
2.10	보고 기간 중 수상 내역	●수상내역 없음	
보고서 매개변수 보고서 프로필			
3.1	보고 대상 기간	●	2
3.2	가장 최근 보고서 발간 일자	N/A 첫 번째 보고서임	
3.3	보고 주기	●	2
3.4	보고서 및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처	●	2
보고범위 및 경계			
3.5	보고 내용 정의 프로세스(중요성 결정, 우선순위 결정, 이해관계자 파악)	●	10, 11
3.6	보고 경계(국가, 사업부, 자회사, 임대시설 등)	●	2
3.7	보고 범위 또는 보고 경계상의 구체적인 제한사항을 기술	●	2
3.8	합작 회사, 자회사, 임대시설, 외주 업무 등 기간별 또는 조직간 비교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객체에 대한 보고 기준	N/A	
3.9	성과 지표 등 기타 정보 수집 과정에서 적용된 예측을 뒷받침하는 가정과 기법을 포함한 데이터 측정 기법 및 계산 기준	●	12, 13
3.10	이전 보고서에 제시된 정보의 재기술로 인한 효과 및 재기술 사유	N/A 첫 번째 보고서임	
3.11	이전 보고기간 대비 보고서의 범위, 경계 또는 측정 방식 상의 큰 변화	N/A 첫 번째 보고서임	
GRI대조표			
3.12	보고서 내에서 표준 공시 사항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	●	61-67
검증			
3.13	보고서 외부 검증을 위한 정책 및 현재활동	○ 외부검증을 받지 못함	
지배구조, 책임 및 참여 지배구조			
4.1	조직의 지배구조 - 전략 수립, 전사적 감독 등을 책임지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 포함	●	34~36
4.2*	이사회 의장의 임원 겸직 여부(임원인 경우 경영진 내에서의 역할과 의장에 임명된 이유도 명시)		35
4.3	이사회가 일원화된 조직의 경우, 이사회에서 독립적인 또는 임원이 아닌 구성원의 수를 명시합니다.	●시민단체인 기윤실은 이사들이 모두 비상근인 독립구성원임	35
4.4*	주주와 직원이 이사회에 조언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메커니즘	●	16
4.5	이사회 구성원, 고위 관리자, 임원 등에 대한 보상(부서별 구성 포함)과 조직의 성과(사회/환경 성과 포함) 간의 관계	●	35
4.6	이사회 내의 이해 관계상의 충돌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관련규정 정비중	

☞ 해당없음은 근본적으로 조직의 운동방향이나, 사무실의 구조적인 변화(단독 건물 사용 등) 없이는 앞으로도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함.
 ☞ 보고기간동안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이유를 설명하고, 보고할 것으로 표기
 ☞ * 표시지표는 2010년 중순 발표예정인 NGO 분야가이드에서 추가코멘트가 붙을 예정인 지표입니다. 본 보고서는 NGO 분야가이드 내용을 적용하여 보고수준을 평가하였습니다.

지표	보고수준	보충설명	페이지
4.7*	경제/환경/사회 전략을 보조하기 위한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 및 전문성 기준을 결정하는 프로세스	●	35, 36
4.8	경제/환경/사회 성과 및 활동과 관련하여 내부에서 마련한 미션/핵심가치 진술문, 행동 강령 및 원칙	●	8, 9
4.9*	이사회가 경제/환경/사회 성과 파악 및 관리를 권장하는 절차	●	34, 50, 67
4.10*	이사회 자체의 성과, 특히 경제/환경/사회 관련 성과를 평가하는 프로세스	●	35
외부 이니셔티브에 대한 책임			
4.11	사전예방의 원칙과 접근방법 채택 여부 및 채택 방식에 대한 설명	N/A	해당사항 없음
4.12	경제/환경/사회 현장, 원칙 등 가입하거나 지지하고 있는 외부 이니셔티브	●	UNGC 67
4.13	협회(예: 산업협회) 및 국가별/국제적 정책 기구 멤버십 획득 현황	●	47
이해관계자 참여			
4.14*	참여한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	10, 12
4.15	참여할 이해관계자 식별 및 선정기준	●	10, 12
4.16*	참여유형, 이해관계자 그룹별 참여 빈도 등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현황	●	12, 13, 16, 34-47
4.17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주제와 관심사, 이에 대한 대처 방식	●	12, 13, 16

Economic 경제성과지표

지표	보고수준	보충설명	페이지
경제 부문 경영방식에 대한 공시			
경제성과			
EC1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	●	52, 53
EC2	기후 변화의 재무적 영향과 사업활동에 대한 위험과 기회	N/A	기후변화로 인한 의미있는 재무적 영향 없음
EC3	연금 지원 범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미래에셋) 45
EC4	정부 보조금 수혜 실적	●	정부로부터 보조금 수혜 없음
시장지위			
EC5 ^(부가)	주요 사업장의 현지 법정 최저임금 대비 신입사원 임금 비율	●	45
EC6	주요 사업장의 현지 구매 정책, 관행 및 비율	N/A	현지를 정의하기 어려움
EC7	주요 사업장의 현지인 우선 채용 절차 및 현지 출신 고위 관리자 비율	N/A	현지를 정의하기 어려움
간접 경제 효과			
EC8	공익을 우선한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지원활동과 효과(지원 형태구분 없음)	N/A	이 지표에서 설명하는 인프라는 시설인프라를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없음
EC9 ^(부가)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 및 설명(영향의 범위 포함)	N/A	이 지표에서 설명하는 인프라는 시설인프라를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없음

지표	보고수준	보충설명	페이지
환경 부문 경영방식에 대한 공시			
		●환경적관점	55
원료			
EN1	중량 또는 부피 기준 원료 사용량	N/A 제조업체가 아니므로 해당없음	
EN2	재생 원료 사용 비율	●재생종이 사용량으로 한정	56
에너지			
EN3	1차 에너지원별 직접 에너지 소비량	N/A 직접에너지 소비량 없음	
EN4	1차 에너지원별 간접 에너지 소비량	N/A 전력사용량이 적용가능하나 총별로 공동사용량이 나오는 건물 이라 독립된 사용량 확인어려움	
EN5 ^(부가)	절약 및 효율성 개선으로 절감한 에너지량	○데이터 미비	
EN6 ^(부가)	에너지 효율적이거나 재생가능에너지 기반제품/서비스 공급 노력 및 해당 사업을 통한 에너지 감축량	○데이터 미비	
EN7 ^(부가)	간접 에너지 절약 사업 및 성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구입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으나 데이터 미비	
용수			
EN8	공급원별 총 취수량	N/A 공동사용량이 나오는 건물이라 독립된 상수도 사용량 확인어려움	
EN9 ^(부가)	취수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용수 공급원	N/A 상수도 이용	
EN10 ^(부가)	재사용 및 재활용된 용수 총량 및 비율	N/A 상수도 이용	
생물 다양성			
EN11	보호 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 또는 주변지역에 소유, 임대, 관리하고 있는 토지의 위치 및 크기	N/A 별도 토지 없음	
EN12	보호 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에서의 활동, 제품, 서비스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N/A 연관 활동없음	
EN13 ^(부가)	보호 또는 복원된 서식지	N/A 연관 활동없음	
EN14 ^(부가)	생물다양성 관리 전략, 현행 조치 및 향후 계획	N/A 연관 활동없음	
EN15 ^(부가)	사업 영향 지역 내에 서식하고 있는 국제자연보호연맹 지정 멸종 위기종과 국가지정 멸종위기 종의 수 및 멸종 위험도	N/A 연관 활동없음	
대기 배출물, 폐수 및 폐기물			
EN16	직·간접 온실가스 총 배출량	N/A 공동사용량이 나오는 건물이라 독립된 배출량 확인어려움	
EN17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직원통근, 출장관련 배출량이 적용가능하나 데이터 미비	
EN18 ^(부가)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성과	○데이터 미비	
EN19	오존층 파괴 물질 배출량	N/A 연관 활동없음	
EN20	NOx, SOx 및 기타 주요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N/A 연관 활동없음	
EN21	최종 배출지별 총 폐수 배출량 및 수질	N/A 상수도 이용	
EN22	형태 및 처리방법별 폐기물 배출량	●중대한 유출 없었음	
EN23	중대한 유해물질 유출 건수 및 유출량	N/A 유해물질 연관된 활동없음	
EN24 ^(부가)	바젤 협약 부속서 I, II, III, VIII에 규정된 폐기물의 운송/반입/반출/처리량 및 해외로 반출된 폐기물의 비율	N/A	
EN25 ^(부가)	보고 조직의 폐수 배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수역 및 관련 서식지의 명칭, 규모, 보호 상태 및 생물다양성 가치	N/A	

지표	보고수준	보충설명	페이지
제품 및 서비스			
EN26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 영향 저감활동과 성과	● 재생 종이 사용 및 캠페인	56-59
EN27	판매된 제품 및 관련 포장재의 재생 비율	N/A 재생 가능한 포장재 판매 해당없음	
법규 준수			
EN28	환경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액 및 비금전적 제재 건수	● 위반건수 없음	
운송			
EN29 ^(부가)	제품 및 원자재 운송과 임직원 이동의 중대한 환경 영향	○ 관리체계 미흡으로 데이터 미비	
전체			
EN30 ^(부가)	환경보호 지출 및 투자 총액	N/A	

Labour practices and decent work 노동성과지표

지표	보고수준	보충설명	페이지
노동 부문 경영방식에 대한 공시			
		● 협력적관점	33, 34
고용			
LA1*	고용 유형, 고용 계약 및 지역별 인력 현황	○ 자원봉사자에 대한 데이터 미비	45
LA2	직원 이직 건수 및 비율(연령층, 성별 및 지역별)	●	45
LA3 ^(부가)	임시직 또는 시간제 직원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상근직 직원에게만 제공하는 혜택(주사업장별)	● 4대보험, 건강검진, 퇴직금 등	45
노사 관계			
LA4	단체 교섭 적용 대상 직원 비율	● 노동조합은 없으나,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업무운영규칙을 통해 노동법규를 준수하고 있음	
LA5	중요한 사업 변동 사항에 대한 최소 통보 기간(단체 협약에 명시 여부 포함)	○ 규정 없음	
직장 보건 및 안전			
LA6 ^(부가)	노사 공동 보건 안전 위원회가 대표하는 직원비율	N/A 소규모 조직인 기원실은 해당없음	
LA7*	부상, 직업병, 손실 일수, 결근 및 업무 관련 재해 건수(지역별)	○ 데이터 미비	
LA8*	심각한 질병에 관해 직원 및 그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훈련, 상담, 예방 및 위험 관리 프로그램	○ 운영 프로그램 없음	
LA9 ^(부가)	노동 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 보건 및 안전 사항	● 내규를 통해 운영	
교육 및 훈련			
LA10*	직원 형태별 일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 자원봉사자에 대한 데이터 미비	45
LA11* ^(부가)	지속적인 고용과 퇴직직원 지원을 위한 직무교육 및 평생 학습 프로그램	● 퇴직자를 위한 별도 프로그램 없음	45
LA12 ^(부가)	정기 성과평가 및 경력 개발 심사 대상 직원의 비율	● 평가를 수치화하지는 않지만 정기적인 간사워크숍을 통해 사업성과를 파악하고 있음	45
다양성 및 평등한 기회			
LA13	이사회 및 직원의 구성 현황(성, 연령, 소수계층 등 다양성 지표기준)	●	35
LA14	직원 범주별 남녀 직원 간 기본급 비율	● 남녀직원간 차이 없음	45

Human Rights 인권성과지표

● 보고 ○ 일부보고 ◯ 보고안함 N/A(Not Applicable) 해당없음

지표	보고수준	보충설명	페이지
인권 부문 경영방식에 대한 공시		●협력적관점	33
투자 및 조달관행			
HR1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되거나 인권 심사를 통과한 주요 투자 협약 건수 및 비율	N/A 시민단체의 특성상 투자협약 없음	
HR2	주요 공급업체 및 계약업체의 인권 심사 비율	○데이터 미비	
HR3 ^(부가)	업무와 관련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직원 교육 이수(교육이수 직원 비율 포함)	○인권교육 없었음	
차별금지			
HR4	총 차별 건수 및 관련 조치	●해당 건수 없음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HR5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업무분야 및 해당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N/A	
아동노동			
HR7	강제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 분야 및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N/A	
보안관행			
HR8 ^(부가)	업무와 관련한 인권 정책 및 절차 교육을 이수한 보안 담당자 비율	N/A 소규모 조직인 기윤실은 별도 담당자가 없음	
원주민 권리			
HR9 ^(부가)	원주민 권리 침해 건수 및 관련 조치	N/A 국외사업장이 없으므로 해당없음	

Society 사회성과지표

지표	보고수준	보충설명	페이지
사회 부문 경영방식에 대한 공시		●열매관점	15
지역사회			
SO1	업무 활동의 시작, 운영, 종료 단계에서 지역 사회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의 특성, 범위 및 실효성	N/A 지역사회에 대한 규정이 미비	
부패			
SO2	부패 위험이 분석된 사업 단위의 수 및 비율	N/A 소규모 조직인 기윤실은 사업 단위 구분이 해당없음	
SO3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직원 비율	○교육받지 않음	
SO4*	부패 사건에 대한 조치	●부패사건 없었음	
공공정책			
SO5	공공 정책에 대한 입장, 공공 정책 수립 및 로비활동 참여	●모든 사업전반	
SO6 ^(부가)	정당, 정치인 및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가별 현금/현물 기부 총액	●법인의 정치자금기부를 금지하는 정치자금법을 준수하고 있음(정치자금법 31조)	
경쟁 저해 행위			
SO7 ^(부가)	부당 경쟁 행위 및 독점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건수 및 그 결과	N/A 연관된 법률 없음	
법규준수			
SO8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및 비금전적 제재 건수	●사소한 교통법칙금이 있으나, 미비함	

지표	보고수준	보충설명	페이지
제품책임 부문 경영방식에 대한 공시			
고객 건강 및 안전			
PR1	개선을 목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건강 및 안전 영향을 평가한 라이프 사이클 상의 단계,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해당 평가 실시 비율	N/A 적용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 없음	
PR2 ^(부가)	제품 및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고객의 건강과 안전 영향 관련 규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결과 유형별)	N/A 적용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 없음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PR3	절차상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 정보 유형, 그러한 정보 요건에 해당되는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비율	N/A 적용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 없음	
PR4 ^(부가)	제품/서비스 정보 및 라벨링과 관련된 규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결과 유형별)		
PR5 ^(부가)	고객 만족도 평가 설문 결과 및 고객 만족 관련 활동	● 회원설문조사	12, 13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PR6	광고, 판촉, 스폰서십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규제, 표준, 자발적 규칙 준수 프로그램	N/A 적용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 없음	
보안관행			
PR7 ^(부가)	광고, 판촉, 스폰서십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규제, 표준,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N/A	
고객 개인 정보 보호			
PR8 ^(부가)	고객 개인 정보 보호 위반 및 고객 데이터 분실과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건수	● 불만건수 없음	
법규 준수			
PR9	제품 및 서비스 공급에 관한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액수	N/A 적용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 없음	



기윤실은 '2009년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시 GRI의 G3가이드라인을 적용하였습니다. GRI에서는 아래 적용기준표에 따라 스스로 적용하여 레벨을 선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본 보고서가 B 수준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자체 선언합니다. 외부 검증은 받지 못했습니다.

보고서 적용 수준		C	C ⁺	B	B ⁺	A	A ⁺
표준공시	G3 프로파일공시	공시항목: 1.1 2.1-2.10 3.1-3.8, 3.10-3.12 4.1-4.4, 4.14-4.15	보고서 외부 검증	공시항목: 수준 'C'의 모든 항목과 1.2 3.9, 3.13 4.5-4.13, 4.16-4.17	보고서 외부 검증	공시항목: 수준 'B'의 요구사항과 동일	보고서 외부 검증
	G3경영방식 공시	필요없음		각 지표범주에 대한 경영방식공시		각 지표범주에 대한 경영방식공시	
	G3 성과지표 및 산업별 부가지표	최소한 10개 이상의 성과지표를 보고 해야 함 (경제, 환경, 사회지표를 각 1개이상포함)		최소한 20개 이상의 성과지표를 보고 해야함 (경제, 환경, 인권, 노동, 사회, 제품책임지표를 각 1개 이상포함)		중요성 원칙에 따라 모든 G3핵심성과 지표 및 산업 가이드 지표에 대해 a)보고하거나 b)보고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	

GRI NGO 분야 가이드 추가지표

● 보고 ○ 일부보고 ○ 보고안함 N/A(Not Applicable) 해당없음

NGO 분야 가이드(Sector Supplement) : 분야 가이드(Sector Supplement)는 특정 산업분야에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분야별 성과지표를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해석과 길잡이를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G3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추가적으로 사용됩니다.

☞ Sector Supplement의 해석은 부가지표가 무난하나 GRI에서 사용하는 용어정리에 의하면 부가지표는 additional Indicators의 번역으로 사용되고 있고, Sector Supplement는 산업가이드로 용어정리되어 있으나, NGO의 경우 산업보다는 '분야'라는 용어가 무난해 여기에서는 '분야 가이드'라고 번역 표기했습니다.
☞ 현재 지표는 Draft Final 버전으로 2010년 중순 최종본이 나올 예정입니다.

지표	보고수준	보충설명	페이지
프로그램 유효성(Program Effectiveness)			
프로그램 유효성 부문 경영방식에 대한 공지			
		● 열매관점	15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참여	
NGOSS1	정책과 사업의 기획, 수행, 모니터링, 평가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그룹(기관의 미션에 따른) 참여	● 이사회, 설문조사	10-13
		피드백, 불만과 후속 조치	
NGOSS2	사업과 정책에 관련된 피드백과 불만처리의 방법, 그리고 문제점(자각하는 문제점 포함)에 대한 후속조치	○	12, 13
		모니터링, 평가와 학습	
NGOSS3	사업의 모니터링, 평가 (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영향력이 있는지)와 학습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업이 어떻게 변화 되었는지)을 위한 시스템	● 이사회, 설문조사, 간사워크숍	12, 13, 35-37, 45
		성별과 다양성	
NGOSS4	성별과 다양성이 사업의 모니터링, 평가 및 학습 사이클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실행에 융합되도록 하기 위한 현재방안	○ 고려는 하나 체계적이지 않음	
		대중인지와 지지	
NGOSS5	지지 입장과 대중 인지 캠페인을 형성하고, 소통하고, 실행 및 변경하기 위한 절차	●	12, 13, 28-31
		조정	
NGOSS6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다른 관련자의 활동을 고려하고 협력하는 절차	●	46, 47
경제 지표 범주의 추가지표			
		자원 할당	
NGOSS7	자원의 추적과 분배 기준	● 외부회계감사	50-53
		윤리적 자금 모집	
NGOSS8	5건의 개별 고액 후원을 포함한 각 후원금의 출처 명시	●	53
노동 지표 범주의 추가지표			
		고용	
NGOSS10	사내 피드백과 고충처리의 방법-고충 접수 숫자와 해소방법	○ 관리체계 미흡으로 데이터 미비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10대 원칙

글로벌콤팩트는 인권, 노동, 환경과 반부패 분야에서의 기업전략을 글로벌콤팩트의 10대원칙과 결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로서, 100여 개 이상의 국가들의 수천여 회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엇보다도 기업과 세계시장의 사회적 합리성을 제시하고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윤실은 2007년 4월 가입하여, 글로벌콤팩트의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관한 10대 원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분야	10대 원칙	GRI 관련지표
인권	1. 우리는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한다.	EC5, LA4, LA6-9
	2. 우리는 인권침해에 가담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다.	HR1-9, SO5
노동	3. 우리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권리를 보장한다.	LA4-5, HR1-3, HR5, SO5
	4. 우리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한다.	HR1-3, HR7, SO5
	5. 우리는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한다.	HR1-3, HR6, SO5
환경	6. 우리는 고용 및 업무상 차별을 근절한다.	EC7, LA2, LA13-14, HR1-4, SO5
	7. 우리는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한다.	EC2, EN18, EN26, EN30, SO5
	8. 우리는 보다 많은 환경적 책임을 지는데 앞장선다.	EN1-30, SO5, PR3-4
	9. 우리는 환경친화적인 기술개발 및 확산을 지원한다.	EN2, EN5-7, EN10, EN18, EN26-27, EN30, SO5
반부패	10. 우리는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의 모든 형태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한다.	SO2-6



섬기는 사람들

- 01 GRI Index / NGOSS
- 02 섬기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후원자명단
- 03 2009년 기윤실 일정
- 04 2009년 발간자료목록

직명	성명
이사장	우창록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이사	강영안 서강대 철학과 교수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 김동호 높은뜻송의교회 담임목사 김충환 다니엘교회 은퇴장로 김홍섭 시립인천전문대학 e-비즈니스과 교수 문애란 ROG미디어 대표 박상은 생병원 의료원장 박은조 분당샘물교회 담임목사 방선기 직장사역연합 대표 백종국 경상대 정치행정학부 교수 손인웅 덕수교회 담임목사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오정현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이동원 지구촌교회 담임목사 이문식 산울교회 담임목사 이우근 법무법인 총정 대표변호사 이의용 생활커뮤니케이션연구소 소장 이장규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임성빈 장신대 기독교와문화 교수 전재중 법무법인 소명 대표변호사 정애주 흥성사 대표 정현구 서울영동교회 담임목사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광순 부산대 철학과 교수 한기채 중앙성결교회 담임목사 황형택 강북제일교회 담임목사
감사	황호찬(세종대 경영대학원 교수)
자문위원회	손봉호(자문위원장, 고신대 석좌교수) 김경섭, 김대근, 김일수
공동대표	김동호 이동원 이장규 임성빈 주광순

☞ 상임집행위원회

우창록 (이사장) / 김동호 이동원 이장규
임성빈 주광순 (공동대표) / 노영상 (소장) / 김병연 김선옥
김은혜 신동식 황영익 (본부장) / 양세진 (사무총장)

☞ 기독교윤리연구소

노영상 (소장, 장신대 기독교와문화 교수)
강영안 강진구 김병연 박노옥 박준용 손화철
신국원 정성진 최재덕 최태연 추태화

☞ 운동본부장

김병연 (정치신뢰성증진운동,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선옥 (삶의·정치윤리운동, 숭실대 철학과 교수)
김은혜 (참여여성리더십위원회, 장신대 기독교와문화 교수)
신동식 (생활신앙실천운동,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황영익 (목회자리더십위원회, 서울남교회 담임목사)

☞ 사회복지위원회

조흥식 (공동위원장,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오영 (공동위원장, 권오영법률사무소 변호사)
조태래 (부위원장) 박정수 (총무)
고기숙 김동배 김미혜 김수정 김한옥 김현호 김혜란
두재영 두준기 라창호 박경숙 박지영 백은령 송시섭
신산철 신정운 오세란 오창섭 유진현 이기영 이만동
이무영 이상근 이영분 이창희 장동한 최성재

☞ 신학위원회

이상원 (위원장,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김동춘 김승근 김영일 김은혜 김형민 노영상 문시영
민중기 박득훈 송준인 신국원 신기형 신원하 양낙홍
유경동 이혁배 임성빈 정광덕 정원범 정중훈 조용훈
홍순원 황봉환

☞ 사무처 (2010년 3월 현재)

양세진(사무총장) 김효민(전략기획팀장) 윤나래(미래교육팀장)
조제호(정책팀장) 전선영(온전한심킴팀장) 박은애(전략기획팀 간사)
김지숙(협동간사) 김문(협동간사)
배진현(씨드스쿨 간사) 오사라(씨드스쿨 간사) 최홍섭(씨드스쿨 간사)
2010년 1월 사임간사 / 최육준(팀장) 김양미(간사)
강성호(협동간사) 홍지혜(씨드스쿨 간사)

함께하는 사람들

(2010년 3월 현재)

기윤실 네트워크 대전기윤실 정우찬 차장 042-256-5183 / 부산기윤실 김기현 국장 051-462-1558 / 울산기윤실 052-285-2072 / 익산기윤실 김윤근 목사 010-5553-1091 인천기윤실 우조은 간사 010-8961-8351 / 전주기윤실 김윤배 목사 063-644-0492 / 진주기윤실 광필재 간사 055-753-1484 / 청주기윤실 이창호 국장 043-274-5852 / LA기윤실 유용석 장로 cem_la@yahoo.com / 워싱턴기윤실 강창재 장로 cj kang@cox.net

협력단체 공의정치실천연대 www.justkorea.or.kr / 교육봉사단 씨드스쿨 http://seedsschool.kr / 교회개혁실천연대 www.protest2002.org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www.cfnk.kr / 기독교영연구원 www.kocam.org /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http://worldview.or.kr / 기독교법률가회 www.clf.or.kr / 낙태반대운동연합 www.prolife.or.kr / 놀이미디어교육센터 www.gamemedia.or.kr / 뉴스미션 www.newsmission.com / 생활커뮤니케이션연구소 www.leecomm.co.kr / 성서한국 www.biblekorea.org / 좋은교사운동 www.goodteacher.org / 직장사역연합 www.bmi.or.kr / 크리스천라이프센터 www.christianlife.kr /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www.cbioethics.org

2009년 기윤실을 1회 이상 후원해 주신 개인 및 교회와 기관 명단입니다.

후원해 주신 73개
교회 및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802명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한빛누리 (주)마임 (주)소프트이천 강변교회 강북제일교회 갯세마네(성균관대 기독교학생회) 경주교회 고척교회 공사성무교회 광영교회 광주
다일교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나눔교회 남서울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높은뜻송의교회 늘푸른교회 다니엘교회 대신감리교회 대주산업 덕수교
회 동부광성교회 동서장로교회 두레교회 마산제민교회 목민교회 목산침례교회 민들레교회 밀알교회 반월중앙교회 부천예인교회 부천평안교
회 분당샘물교회 분당소망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의교회 산울교회 삼일교회 새들녘교회 서울광영교회 서울남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영동교
회 서울영동교회(6여전도회) 서울영동교회(권사회) 서울일본인교회 서울중앙교회 서진교회 소망교회 신반포교회 안암제일교회 언덕교회 언약
교회 영세교회 우리들교회 은평침례교회 은혜와영광교회 일산은혜교회 일원동교회 잠실중앙교회 전주안디옥교회 정읍중앙교회 주님의보배
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 지비전인터넷서널 청량교회 큰은혜교회 한영교회 할렐루야교회 향상교회 화평교회 한국리더십센터

강대용 강대현 강동수 강명길 강민아 강병관 강석우 강승철 강영주 강영실 강영안 강은경 강은영 강일구 강준식 강진호 강춘래 강현아 강현주
강형구 강호인 강홍구 강홍준 강희철 고선옥 고승표 고영준 고은상 고정환 고지아 공미자 광상배 구능희 구에리 국승택 권대식 권민규 권오용
권오재 권용태 권장희 권태현 기세춘 기용서 기진호 김가현 김겸손 김경래 김경미(a) 김경미(b) 김경선 김경숙 김경천 김경호 김경희 김재홍 김
광은 김광환 김구 김규성 김규현 김기섭 김기형 김나선 김남기 김달수 김대만 김대인 김대준 김덕기 김동식 김동호 김두희 김명희 김말순 김명
금 김명수 김명찬 김문돌 김문정 김미숙 김미혜 김민규 김민수 김민영 김범영 김병식 김병원 김병일 김사무엘 김삼수 김상길 김상범 김
상수 김상윤 김상온 김상인 김상환 김석돈 김선옥 김선희 김성경 김성근 김성길 김성득 김성상 김성수 김성식 김성천 김성태 김성철 김
성현 김성호 김세진 김소연 김수자 김수정 김승일 김승효 김승희 김신근 김신욱 김신형 김애실 김양미 김연중 김연철 김영 김영규 김영모 김영
봉 김영식 김영주 김영철 김영철 김요열 김용미 김우경 김옥 김원섭(a) 김원섭(b) 김유숙 김윤수 김은수 김은영 김은지 김의선 김이수 김익수 김
인숙(a) 김인숙(b) 김일수 김재균 김재영 김재원 김재홍 김재환 김정린 김정섭 김정욱 김정용 김정현 김정훈 김종민 김종필 김종하 김종호 김준
영 김지숙 김지영 김지태 김지형 김진석 김진우 김진표 김진필 김창섭 김철준 김춘곤 김충환 김태훈(a) 김태훈(b) 김하영 김학동 김하나 김한성
김해자 김현태 김현희 김형중 김혜경(a) 김혜경(b) 김혜경(c) 김혜진 김혜창 김홍섭 김홍주 김홍환 김효상 김효원 김희경 김희숙 김희정 김희철
나영식 나영재 나현집 남경자 남궁설 남대일 남영란 남은찬 남재택 남준일 남태일 노광섭 노규호 노대용 노승아 노희명 두준기 라창호 류기성
류인복 류종우 마은숙 명호중 문경환 문규 문석운 문애정 문정옥 문춘식 문학준 문현미 문현주 박경순 박경준 박경희 박대형 박대호 박동민
박득훈 박명배 박명배 박명섭 박문구 박미정 박민선 박병주 박복배 박봉순 박상규 박상돈 박상은 박상홍 박상희 박서현 박석호 박세진 박수
정 박영범 박영수 박영진 박용준 박윤정 박은미 박은애 박은지 박은하 박인애 박인자 박인화 박재규 박재환 박재장 박재형 박재호 박정민 박
정희 박재우 박종구 박종운 박종원 박종원 박주현 박준동 박지연 박지영 박창근 박철규 박철원 박태순 박태영 박태원 박관근 박한옥 박혜경
박환승 방진기 방순영 배복희 배승관 배재수 배정주 배정호 배준환 배진성 백경원 백기숙 백명희 백영숙 백요한 백인남 백종현 백지열 백현주
백혜림 범학식 변철석 변현정 변화순 변화중 서다비 서동진 서동천 서순오 서유미 서일향 서인선 서준순 서중오 서제란 서태원 서현희 서효정
석미경 석우경 소은중 손교식 손기식 손덕순 손봉호 손부영 손상문 손상일 손영철 손용기 손원일 손유정 손은민 손은숙 손은순 손은정 손준
호 손주익 손창우 손화철 송미옥 송병문 송복순 송성현 송시섭 송인우 송인호 송재기 송종영 송준인 송철화 송태현 송택호 송형록 신국원 신
대희 신동철 신동일 신동진 신동필 신명호 신상린 신수현 신은정(a) 신은정(b) 신전수 신정인 신종현 신평은 신호균 신희선 심대진 심순실 심재
용 안금주 안병직 안선옥 안신길 안연희 안정란 안정신 안정은 안춘명 양나홍 양병이 양세진 양승원 양신근 양신수 양유진(염준용) 양인봉 양
정석 양지영 양지혜 양태홍 양홍길 엄영진 엄용환 엄현식 여신은 여영운 연미영 오기맹 오덕수 오동춘 오명현 오민재 오상덕 오성만 오세란 오
일호 오창섭 오혁진 옥성일 우창록 원영태 원응삼 원종민 원철 원희용 유진호 유미정 유석중 유성오 유영미 유영중 유영준 유원욱 유은상 유
재균 유정윤 유지성 유창수 유혜무 유현숙 유혜원(a) 유혜원(b) 유홍일 유희경 윤기정 윤나래 윤미정 윤민영 윤선현 윤성우 윤성웅 윤양숙 윤여
송 윤영란 윤영식 윤영희 윤은경 윤철중 윤치호 윤태호 윤혜균 윤혁경 윤형주 은현희 이진 이경옥 이경재 이경진 이경희 이계형 이국은 이금노
이금순 이금아 이기용 이길승 이남경 이도홍 이동원 이동철 이동혁 이만일 이명자 이문규 이방옥 이범식 이범삼 이병환 이봉원 이상규 이상
민 이상진 이상현 이석형 이선희 이성재 이성진 이성호 이성훈 이송자 이수경 이수룡 이수진 이수환 이순자 이순희 이승구 이승민 이승원 이
승철 이영분 이영주 이옥희 이용아 이용천 이용훈(a) 이용훈(b) 이우근 이우길 이원근 이원애 이원영 이유민 이윤옥 이윤정 이윤현 이윤희 이
은섭 이은성 이은숙 이은자 이의용 이장규 이장로 이재문 이재윤 이정민 이정석 이정선 이정욱 이정은 이정훈 이정희 이정희 이종실 이종숙
이종안 이종혁 이주영 이준규 이준원 이진숙 이진영 이진의 이진형 이찬호 이창미 이창산 이창직 이철수 이철우 이철진 이춘강 이춘화 이춘자
이춘학 이태희 이필성 이향익 이혜영 이현도 이현숙 이현호 이혜림 이호식 이화영 이훈배 이희석 이희열 인훈 임성빈 임영택 임은호 임일택 임
장수 임장우 임종록 임종호 임지용 임춘희 임태규 임현숙 임혜정 임희옥 장관 장기화 장민 장병조 장상진 장성록 장연순 장영순 장은림 장익
장주희 장준혁 장지인 장춘복 장혜경 전병화 전선영 전장덕 전재주 전종갑 전진우 전태수 전희숙 정광재 정금영 정명태 정문희 정미옥 정민경
정병선 정병호 정병화 정보영 정부영 정상직 정선우 정성진 정세철 정수덕 정애리 정애주 정연실 정연희 정영미 정영호 정영훈 정영호 정용복
정운채 정유진 정유정 정유진(a) 정유진(b) 정은영 정은창 정익수 정인에 정일용 정준 정지연 정철도 정철모 정한철 정현철 정혜숙 정화선 정효
제 제천모 조경하 조계인 조규봉 조부성 조성극 조성연 조아라 조양래 조열제 조영관 조영미 조용진 조용환 조우철 조운 조운행 조은경 조인
진 조인희 조인호 조제호 조종호 조준호 조진영 조철현 조현 조현덕 조혜미 조홍식 주선경 지삼영 지상섭 지숙자 지연실 차성용 채홍석 권경
훈 천민우 최경규 최경석 최광사 최근영 최근희 최덕수 최동주 최민규 최삼옥 최상태 최성수 최성재 최승민 최영애 최영애 최영애 최영애 최영애
최우석 최옥준 최유진 최윤선 최윤 최인영 최재용 최정운 최정은 최정철 최종원 최종현 최지영 최지연 최태연 최태영 최태홍 최현규 최혜
석 최혜원 최효운 최희영 추진연 태원우 팽정호 표현중 하유수 하재용 하현주 한국회 한국목 한기미 한기재 한동훈 한병선 한상호 한상호 한
석환 한신영 한영희 한인철 한재량 한지연 한진영 함봉식 허남 허명산 허영진 허장 허주희 홍관수 홍기룡 홍대식 홍만삼 홍상희 홍선희 홍영기
홍영주 홍인종 홍일선 홍정진 홍창진 황규민 황문용 황병일 황석주 황철진 황형택

2009년 기운실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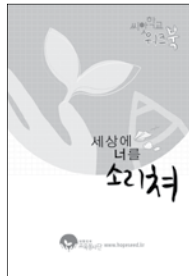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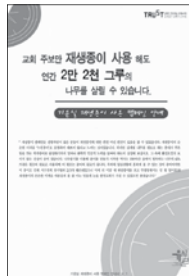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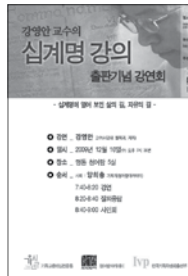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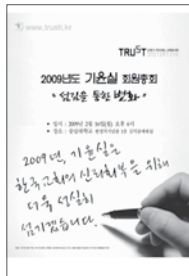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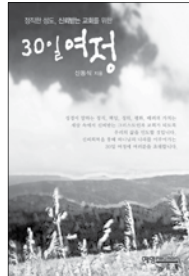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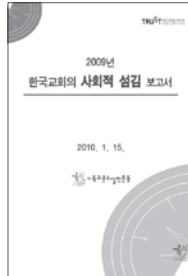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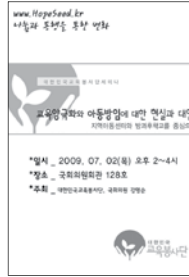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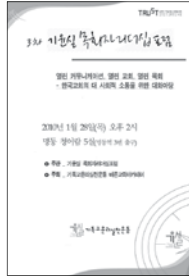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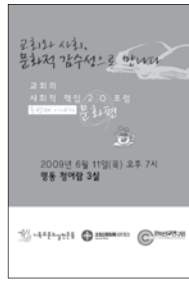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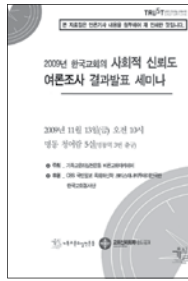
- 01 GRI Index / NGOSS
- 02 섬기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후원자명단
- 03 2009년 기운실 일정
- 04 2009년 발간자료목록

01	5(월)-6(화)	간사 신년워크숍	06	1(일)-2(화)	대교단 운영위 워크숍	11	27(화)	임시 상임집행위원회(대장금)
	12(월)	1차 정기이사회(울촌)		4(목)	대교단 목회자 간담회		2(월)-4(수)	2009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필그림하우스)
02	10(화)	2차 정기이사회(울촌)	07	9(화)	3차 상임집행위원회(울촌)	12	13(금)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 (청어람)
	11(수)	2009년 기자간담회		12(금)	교회의 사회적책임 포럼 <문화편>		17(화)	간사워크숍(덕수교회)
03	16(월)	2009년 회원정기총회 (술실대)	08	16(화)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검토위원회	2010 1	19(목)	자살예방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국회)
	20(금)	1차 상임집행위원회		2(목)	교육양극화와 아동방임에 대한 현실과 대안 토론회(국회)		25(수)	씨드스쿨 사회적리더십 "기아체험"
04	20(금)-21(토)	기록활동가대회	09	6(월)	3차 정기이사회(울촌)	1	29(화)	4차 상임집행위원회(울촌)
	25(수)	1차 회원실천모임		10(금)-11(토)	대사리 1기 MT		4(금)	교회의 사회적책임 포럼 <교육편>
05	4(수)	서울남교회 30일의 신뢰여정(6주)	10	15(수)	기운실 비전 간담회	2010 2	9(수)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공동대표회의
	11(수)	2차 회원실천모임		17(금)-18(토)	대교단 교사훈련워크숍		10(목)	간급난상토론 "사랑의교회건축, 건설적으로 이야기해 보자"
06	16(월)	홍보전략워크숍	11	1(토)	대교단 교사아카데미(4주)	3	16(수)	강영안 교수의 십계명강의 출판기념 강연회(청어람)
	23(월)	5기 창의여성 성경공부 오픈강의		3(월)-7(금)	2009년 성서한국대회		29(화)	상임집행위원회 부부송년모임
07	27(금)	2차 상임집행위원회 대학생 사회적 리더십 아카데미개강 (매주 금, 10주 과정)	12	14(금)	기운실 간사 비전워크숍	4	15(월)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책임 보고서 발표
	28(토)	3차 회원실천모임		21(금)-22(토)	기운실 전국 실행위원 수련회(부산)		28(목)	3차 기운실 목회자리더십포럼(청어람)
08	13(월)	3차 회원실천모임	13	28(금)	대사리 2기 여는마당(장신대)	5		
	16(목)	공공신학 출판기념 세미나 (덕수교회)		14	2(수)		씨드스쿨 입학식	
09	28(화)	임시사교육 고민 목회적 대안은 무엇인가 세미나 (영락교회)	15		3(목)	간사전략워크숍		
	28(화)	4차 회원실천모임		5(금)	대사리 2기 강좌시작(13주)			
10	30(목)	기운실 네트워크 사업공유 미팅	16	7(월)	장신대 현장실습 OT			
	3(일)	서울서문교회 홍보부스운영		9(수)-10(목)	씨드스쿨 간사 비전워크숍			
11	8(금)	교회의 사회적책임 포럼 <환경편>	17	11(금)-12(토)	장신대 사경회 홍보부스운영			
	11(월)	고양지역 회원모임		22(화)	4차 정기이사회(필그림)			
12	11(월)-13(수)	Next Wave 홍보부스운영	18	26(토)-27(일)	교회의 사회적책임 포럼 <대안경제편>			
				30(수)	씨드스쿨 비전캠프			



2009년도 기윤실 발간 도서 / 자료집 / 영상 리스트

- 01 GRI Index / NGOSS
- 02 섬기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후원자명단
- 03 2009년 기윤실 일정
- 04 2009년 발간자료목록



도서
자료집
기타
영상

- 공공신학 : 한국교회의 사회적 섬김에로의 초대(예영커뮤니케이션)
- 정직한 성도, 신뢰받는 교회를 위한 30일 여정(예영커뮤니케이션)
- 2009년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 자료집
- 2009년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 보고서
-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자료집
-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섬김 보고서
- 2009년 회원총회 자료집
- 3차 기윤실 목회자 리더십 포럼 자료집
- 강영안 교수의 십계명 강의 강연회 자료집
- 교육양극화와 아동방임에 대한 현실과 대안 세미나 자료집
-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포럼 환경편 자료집
-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포럼 문화편 자료집
-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포럼 대안경제편 자료집
-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포럼 교육편 자료집
-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포럼 백서
- 기윤실 재생종이 사용 안내서
- 씨앗학교 교사용 매뉴얼 '세상에 너를 소리쳐'
- 씨앗학교 워크북(학생용) '세상에 너를 소리쳐'
- 2009년 3~4월호 기윤실 열매소식지 "신뢰의 여정"
- 2009년 5~6월호 기윤실 열매소식지 "신뢰의 여정"
- 2009년 7~8월호 기윤실 열매소식지 "신뢰의 여정"
- 2009년 9~10월호 기윤실 열매소식지 "신뢰의 여정"
- 2009년 11~12월호 기윤실 열매소식지 "신뢰의 여정"
- 청소년용 미션뱅크
- 한국교회의 대 사회 이미지와 신뢰성 실추 원인에 대한 분석과 이미지 제고 및 교회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방안 논문
- 2008년 기윤실 사역정리
- 2009년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 스케치
- 2009년 회원총회 스케치
- 기윤실 청년사역 홍보
- 대사리 홍보영상
- 서울남교회 30일의 신뢰여정 후기
- 씨드스쿨 소개



영상들

도서 / 자료집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열정 기윤실 2010년 사역 후원 기도편지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과 축복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한 여정에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09년 한 해 기윤실 사역은 사랑과 헌신으로 함께 후원해 주신 후원자 여러분의 배려에 힘입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0년은 지난 2월 22일 회원총회를 통해 2대 핵심사업(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 기독교민교육프로그램)과 4대 주요사업(365 말씀과 실천 캘린더, ISO26000 교회표준 개발, 사회혁신기업가아카데미, 재생종이사용캠페인)이 결정됨으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 아래의 기도제목대로 중심을 잃지 않고 사역해 나갈 수 있도록 2010년에도 아낌없는 후원과 격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9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신뢰를 받고 복음전도의 통로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일상의 삶 속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16

기윤실 사역을 통해 한국교회가 세상 가운데 진리의 증거가 되고, 믿음과 신뢰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기윤실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있어서 많은 전문 기관과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윤실의 사역은 은행을 위한 은행인 한국은행처럼 한국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을 위해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 1:7

기윤실 사역이 이념과 세대와 지역과 계급을 뛰어 넘고, 상호신뢰와 사랑으로 서로 화해하고 소통하도록 섬기는 평화와 통합의 사역이 될 있기를 기도합니다.

2010년 3월 2일

이사장 우창록

공동대표 강영안 김동호 박은조 백종국 이동원 임성빈 주광순

사무총장 양세진



독자의견설문지

2009년 기윤실 지속가능성보고서 “신뢰의 열매”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절취선을 따라 오린 후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아래 연락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 (140-011)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기윤실 지속가능성보고서
담당자 앞
2 / 팩스 : 02-790-8585



소중한 의견을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기윤실에서 발간한 “세상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길을 걷는 사람들(기윤실 엮음, 예영커뮤니케이션 출판)” 단행본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추첨에 참여하실 분들은 성함과 연락처를 별도 기재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본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개요	<input type="checkbox"/> 매우 만족	<input type="checkbox"/> 만족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불만족	<input type="checkbox"/> 매우 불만족
열매관점	<input type="checkbox"/> 매우 만족	<input type="checkbox"/> 만족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불만족	<input type="checkbox"/> 매우 불만족
협력적관점	<input type="checkbox"/> 매우 만족	<input type="checkbox"/> 만족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불만족	<input type="checkbox"/> 매우 불만족
재무적관점	<input type="checkbox"/> 매우 만족	<input type="checkbox"/> 만족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불만족	<input type="checkbox"/> 매우 불만족
환경적관점	<input type="checkbox"/> 매우 만족	<input type="checkbox"/> 만족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불만족	<input type="checkbox"/> 매우 불만족
종합	<input type="checkbox"/> 매우 만족	<input type="checkbox"/> 만족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불만족	<input type="checkbox"/> 매우 불만족

2. 본 보고서에서 가장 유익하게 읽은 내용은 무엇입니까?(중복응답가능)

개요	<input type="checkbox"/> 기윤실 개요	<input type="checkbox"/>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input type="checkbox"/> 중요성평가
열매관점	<input type="checkbox"/> 사업선정 방법	<input type="checkbox"/> 교회신뢰도 여론조사	<input type="checkbox"/> 사회적책임 컨퍼런스
협력적관점	<input type="checkbox"/> 씨드스쿨	<input type="checkbox"/> NO! 위장전입	<input type="checkbox"/> 사회적보고
	<input type="checkbox"/> 의사결정시스템	<input type="checkbox"/> 회원현황	<input type="checkbox"/> 30일의 여정
재무적관점	<input type="checkbox"/> 대사리	<input type="checkbox"/> 간사들의 영적성장	<input type="checkbox"/> 협력과 섬김을 통한 변화
환경적관점	<input type="checkbox"/> 재정투명화 노력	<input type="checkbox"/> 재정변화 추이	<input type="checkbox"/> 회계감사보고
기타	<input type="checkbox"/> 환경이슈	<input type="checkbox"/> 재생종이 사용 캠페인	<input type="checkbox"/> 비전메시지(사무총장)
	<input type="checkbox"/> About the Report	<input type="checkbox"/> 비전메시지(이사장)	<input type="checkbox"/> 비전메시지(사무총장)
	<input type="checkbox"/> GRI index	<input type="checkbox"/> 섬기는 사람들	

3. 본 보고서가 기윤실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4. 본 보고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중요한 이슈를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5. 본 보고서는 원하는 정보를 찾기 쉽고, 읽기 편하게 디자인 되었습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6.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회 원	<input type="checkbox"/> 후원회원	<input type="checkbox"/> 후원교회 성도	<input type="checkbox"/> 후원교회 목회자
관심자	<input type="checkbox"/> 뉴스레터회원	<input type="checkbox"/> 일반교회 목회자	
기윤실	<input type="checkbox"/> 기윤실 간사	<input type="checkbox"/> 기윤실 임원(이사/감사)	<input type="checkbox"/> 기윤실 위원
협 력	<input type="checkbox"/> 기독교 NGO	<input type="checkbox"/> 일반 NGO	<input type="checkbox"/> 기윤실 네트워크 위원/간사
기 타	<input type="checkbox"/> 정부기관	<input type="checkbox"/> 언론기관	<input type="checkbox"/> 일반기업
			<input type="checkbox"/> 지속가능경영 관련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7. 본 보고서에서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이나 기윤실 운동 전반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2009년 기윤실 지속가능성보고서
신뢰의 열매 발간을 위해
 광고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독교경영연구원

기독교경영연구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경영·경제학자, 기업인, 전문인 및 직장인들이 연구하고 교육하며 봉사하는 모임으로 '기업경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기업세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이사장¹ 이장로(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원장² 배종석(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부원장³ 류지성(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천상만(한국생산성본부 교수)

“기윤실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을 축하합니다”

www.kocam.org



CLF-기독교법률가회(Christian Lawyers' Fellowship)

기윤실 법률가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1999년 창립한 기독교법률가회는 연구위원회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법사상을 연구하며, 사회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고, 생활공동체위원회를 통해 기독교법률가의 대안적인 삶을 실험하며, 선교위원회를 통해 법을 통한 선교적 책임을 감당하며, 예비법률가위원회를 통해 로스쿨 학생 등에 대한 수련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장으로 윤세리 변호사, 실행위원장으로 조성극 변호사, 상임이사로 전재중 변호사가 일하고 있으며 CLF의 자세한 활동은 www.cl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윤실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을 축하드리며, 기윤실의 사역을 통해 기독교법률가들이 복을 받았듯이 한국교회와 사회가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www.clf.or.kr

용어해설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코피아난 전 UN사무총장이 1999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다보스 회의에서 처음 제창한 협약으로,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입니다. 현재 100여 개 이상의 국가들의 수천여 회원 단체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업의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중심의 협약이나 많은 비영리 단체 또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윤실은 2007년 4월 가입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Stakeholder)

이해관계자는 조직의 활동, 제품/서비스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을 만하고 또한 조직이 성공적으로 전략을 이행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에 영향을 줄만한 객체나 개인을 의미합니다.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3 가이드라인

1997년 국제연합환경계획(UNEP)과 미국의 NGO인 세리즈(CERES)가 공동으로 암스테르담에 설립한 UN 협력기관으로 GRI는 조직의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 현재 사용되고 있는 G3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NGO 분야 가이드(Sector Supplement)

분야 가이드는 특정 산업분야에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분야별 성과지표를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해석과 길잡이를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G3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 Sector Supplement의 해석은 부가지표가 무난하나 GRI에서 사용하는 용어정리에 의하면 부가지표는 additional Indicators의 번역으로 사용되고 있고, Sector Supplement는 산업 가이드로 용어 정리되어 있으나, NGO의 경우 산업보다는 분야라는 용어가 무난해 여기에서는 분야 가이드라고 번역 표기했습니다.

☐ 현재 지표는 Draft Final 버전으로 2010년 중순 최종본이 나올 예정입니다.

세계수준의 첨단의료를 구현하는 환자중심의 샘병원



- * 주한 외국 대사관 지정병원 : 파라과이, 아프가니스탄, 라오스, 온두라스, 슬로바키아, 과테말라
- * 해외 13개국 16개 병원과 협력
- *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소 "사랑의 진료소" 운영
- * 효산장학문화재단 설립

5대 비전

- 진료 · 선교 · 교육 · 연구 · 봉사



안양샘병원 031 467 9114 **샘여성병원** 031 449 6114 **샘한방병원** 031 463 4310 **군포샘병원** 2010년 개원 예정

통합의학암센터 031 467 9188 / 9388 세포유전자치료연구소 031 466 0020 건강의학센터 031 463 4331~2 산업의학센터 031 463 4390~3 응급센터 031 467 9119 / 9129
 분만센터 031 441 1977 산후조리원 031 443 6714 안양시노인주간재활센터 031 381 2198 만안구노인보건센터 031 466 6370 샘병원교회 031 467 9334



본 보고서는 재생종이에
공기름으로 인쇄하였습니다

